

## 退溪先生年譜\*

□ 1501년 11월 26일 己亥 辰時(79)에 선생께서 禮安縣 溫溪 마을 집에서 나섰다. 선생의 先世께서는 眞寶縣에서 사셨는데 5대조 松安君께서 왜적을 피하여 安東府 豊山縣 남쪽 磨崖촌에 옮겨 계시다가<sup>1)</sup> 조부 判書公 때에 이르러 예안현 북쪽 온계 마을의 泉石이 아름다움을 사랑하여 비로소 卜居하셨다.

□ 1502년 <선생 2세> 6월 贊成公께서 돌아가셨다. 선생께서 지으신 先妣貞敬夫人朴氏墓碣에 이르시기를 “선군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맏형이 娶妻를 하시고 그 남은 이는 다 어려 眼前에 가득하였으니 모친께서 자식이 많고 일찍이 과부가 되심에 장차 가업을 유지하지 못할까 매우 염려하셔서 농사짓기와 누에치기에 더욱 힘을 써서 옛 가업을 잃지 않으셨다. 모든 자녀들이 점점 자람에 미쳐서는 가난한 가운데도 뒷바라지 하시고 먼 데나 가까운 데나 보내어 배우게 하시고 늘 가르쳐 경계함을 더하시니 한갓 글재주만 일삼을 뿐 아니라 모가짐과 행실을 삼가기를 더욱 중하게 여겨서 늘 丁寧<sup>2)</sup>히 일깨워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이 늘 과부의 자식은 가르치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허물하니 너희들이 그 공을 백 배나 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비난을 면하겠는가?’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선생께서 비록 일찍 찬성공을 여의셨으나 학문을 성취함에 대부인께 얻으신 것이 많으셨다.

□ 1503년 <선생 3세>

\* 金光淳 註解, 『國譯 退溪先生年譜』(慶北大 退溪研究所, 1972)를 전재한 것임.  
김광순 교수는 이 『國譯年譜』가 英祖 때 退溪선생의 八代孫인 李世澤(1716-1777)이 國譯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1) 飜譯에서 漏落된 部分 : 後又遷于周村.

2) 되풀이하여 알림. 재삼고침.

□ 1504년 <선생 4세>

□ 1505년 <선생 5세>

武宗, 正德 원년 (중종 대왕 원년) 丙寅(1506)년 <선생 6세>에 선생께서는 처음으로 글을 읽을 줄 아셨다. 이웃에 어떤 늙은이가 있어 『天文』을 조금 알거늘 선생께서 가 배우셨는데 아침마다 반드시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그 사람의 울타리 밖에 가서 배운 글을 두어 번씩 가만히 외우신 후에 들어가서 엎드려 배우기를 엄한 스승같이 하셨다.

□ 1507년<선생 7세>

□ 1508년<선생 8세> 둘째 형이 칼에 손을 다치니 선생께서 붙들고 우시거늘 모친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형은 손을 다쳤으나 울지 않는데 네가 어찌 우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이 비록 울지 않으나 피가 저렇게 흐르는데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하셨다. 선생께서는 溫恭하시고 遜順하여 어른을 잘 섬기셨는데 尊丈을 대할 때에는 감히 거동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고 비록 밤중에 깊이 잠들었다가도 어른이 부르시면 즉시 깨어나 대답하심을 매우 삼가시니 6, 7세 때부터 그러하셨다.

□ 1509년<선생 9세>

□ 1510년<선생 10세>

□ 1511년<선생 11세>

□ 1512년<선생 12세> 『論語』를 숙부 松齋公 堦<송재공의 휘는 堦이다>에게서 배우셨다. ‘제자는 들어오면 어버이께 호도하고 나서면 어른께 공순하여야 한다.’ 하는 말에 이르러서 근심하여 스스로 깨우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도리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하셨다. 하루는 ‘理’자의 뜻을 송재공께 물어 말씀하시기를 “무릇 일의 옳은 것이 理입니까?” 송재공께서 기뻐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벌써 文義를 아는구나.”하셨다. 송재공께서는 성품이 간략하고 엄하여 제자에게 許하여 옳다고 하시는 것이 적었는데 선생께서 형 大憲公 瀧와 같이 글을 배울 때에는 송재공께서 늘 칭찬하시기를 “죽은 형이 이 두 아이를 두었으니

죽은 것이 아니다.”하시고 또 선생을 가리켜 말하기를 “가문을 부지하는 것은 이 아이가 할 것이다.”하셨다.

□ 1513년<선생 13세>

□ 1514년<선생 14세> 글 읽기를 좋아하셔서 비록 사람이 많이 앉은 곳이라도 반드시 벽을 향하여 잠심하고 완미하셨다. 陶淵明이 지은 시를 사랑하여 그 사람됨을 사모하셨다.

□ 1515년<선생 15세>

□ 1516년<선생 16세>

□ 1517년<선생 17세>

□ 1518년<선생 18세> 봄에 놀아 들못을 읊으신 한 절귀가 있으니 가로되

이슬 머금은 가녀린 풀이 물가를 둘러 있으니  
적은 못이 淸活하고 좋아 모래도 없다.  
구름 날고 새 지나감은 원래 서로 어울리지만  
다만 때때로 제비가 물결을 차는 것이 두려울 뿐이로다.<sup>3)</sup>

<이는 理를 형용하여 지으신 글이다.<sup>4)</sup>>

□ 1519년<선생 19세> 회포를 읊으신 글이 있는데 이르시기를

홀로 여막 엮어 일만 권 책을 사랑하니  
한 가지 심사가 십 년이 넘었도다.  
요사이 源頭로 깨달은 듯 하니  
모두 내 마음으로 太虛를 보았노라. <sup>5)</sup>

<원두는 理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요 태허는 하늘의 理를 말하는 것이다.><sup>6)</sup>

□ 1520년<선생 20세> 주역을 읽고 그 뜻을 밝혀 궁구하여 자고 먹

3) 露草夭夭繞水涯 小塘淸活淨無沙 雲飛鳥過元相管 只怕時時燕蹴波.

4) 李世澤 補註.

5) 獨愛林廬萬卷書 一般心事十年餘 邇來似與源頭會 郡把吾心看太虛.

6) 李世澤 補註.

는 것을 잊으셨다. 이로부터 항상 파리하고 곤한 병환이 계속되었다. 뒤에 선생께서 趙士敬에게 주신 편지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릴 적에 일찍이 글에 뜻을 두었으나 그 방향을 알지 못하고 한갓 刻苦하기만을 너무 심하게 해서 파리해지는 병을 얻었다.” 하셨다. <뜻을 두었다 하신 것은 학문에 뜻을 두심이요 각고는 힘을 매우 괴롭도록 쓰는 것이다.><sup>7)</sup>

□ 1521년<선생 21세>에 부인 許氏를 맞아들이셨는데 진사 瓚의 따님이셨다.

□ 1522년<선생 22세>

□ 1523년<선생 23세> 10월에 자제 僉正公<sup>8)</sup>을 낳으셨다. 이 해에 선생께서는 처음으로 太學館에 들어가셨다. 이 때는 己卯의 화를 지낸 뒤여서<靜菴 趙光祖<sup>9)</sup>와 모든 현사가 소인에게 잡혀 돌아가신 화이다><sup>10)</sup> 선비들의 풍습이 浮薄<sup>11)</sup>하여 선생의 법도 있는 행동을 많이 비웃더라. 더불어 상종하는 이는 河西 金麟厚<sup>12)</sup> 한 사람 뿐이었다. 얼마 안되어 선생께서 시골로 내려가시니 河西가 글을 지어 이별하였는데 “夫子는 영남의 빼어난 사람이다. 李杜<sup>13)</sup>의 문장이요 王趙<sup>14)</sup>의 글씨이다.”하는 글귀가 있었다.

□ 1524년<선생 24세>

□ 1525년<선생 25세>

□ 1526년<선생 26세>

□ 1527년<선생 27세> 가을에 경상도에서 과거를 보시어 進士初試

7) 李世澤 補註.

8) 아들 준(篤).

9) 趙光祖(1482~1519). 조선의 학자, 문인. 자는 孝直, 호는 靜菴. 본관은 漢陽. 시호는 文正.

10) 李世澤 補註.

11) 천박하고 경솔함.

12) 金麟厚(1510~1560). 조선의 문신, 유학자. 자는 厚之, 호는 河西. 澹齋. 본관은 蔚山. 시호는 文正.

13) 이백과 두보.

14) 왕희지와 조맹부.

에서는 장원하시고 生員初試에서는 2등하셨다. 10월에 둘째 아드님 案  
가 나셨다. 11월 초 7일에 부인 許氏께서 돌아가셨다.

□ 1528년<선생 28세> 봄에 진사 會試<sup>15)</sup>에서 일등하셨다.

□ 1529년<선생 29세>

□ 1530년<선생 30세> 부인 權氏를 맞으셨다. <奉事 權碩의 따님이  
셨다>

□ 1531년<선생 31세> 6월에 側室에게서 아들 寂이 태어났다.

□ 1532년<선생 32세> 진사시에 합격하신 이후로는 선생께서 學業  
하실 뜻이 없으셨으나<거업은 과거 공부이다><sup>16)</sup> 형 大憲公이 모친께  
권하여 과거를 보라고 하시니 이 해에 문과 初試<sup>17)</sup>에서 이등하셨다.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오실 때 길 가 마을에서 주무셨는데 밤중에 도적  
을 만나 동행은 당황하여 失措<sup>18)</sup>하였으나 선생께서는 凝然<sup>19)</sup>히 동요  
하지 않으셨다.

□ 1533년<선생 33세> 성균관에 가시니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공경  
하여 감복하는 이가 많았다. 가을에 시골로 내려 오시는 길에 驪州를  
지나실 때 慕齋 金安國<sup>20)</sup>선생을 뵈었다. 慕齋의 이름은 安國이다. 그  
때에 벼슬을 그만두고 여주 梨湖村에 계셨다. 선생께서 만년에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모재를 뵈고 비로소 正人君子의 의견을 들었다.”하셨다.  
이 행차에서 忠定公 權撥<sup>21)</sup>을 좇아 동행하셨다. 경상도 향시에 장원하  
셨다.

□ 1534년<선생 34세> 3월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셨다. 4월에

15) 小科 初試에 급제한 사람에게 보이는 과거.

16) 李世澤 補註.

17) 한문본에는 문과 별시 초시로 기록되어 있다.

18) 처리를 잘못함.

19) 행동이 단정하고 기개가 있는 모양.

20) 金安國(1478~1543). 조선의 문신, 학자. 자는 國卿, 호는 慕齋 본관은 義  
城. 시호는 文敬.

21) 權撥(1478~1548). 조선 문신. 자는 仲虛, 호는 沖齋. 萱亭. 본관은 安東, 시  
호는 忠定.

承文院 權知 副正子<sup>22)</sup>에 계셨다. 翰林의 천거를 받아 藝文館 檢閱<sup>23)</sup>에 春秋館 記事館<sup>24)</sup>을 겸직하시다가 즉시 체직되어 도로 승문원 부정자가 되셨다. 이전의 선생 장인 權磻<sup>25)</sup>은 正言<sup>26)</sup> 權磻의 형이셨다. 권진께서 기묘사화 때 사류로서 安處謙<sup>27)</sup>의 옥사에 참여함에 권질께서도 또한 坐罪<sup>28)</sup>하여 廢하게 되셨다. 이에 이르러 대간이 權臣의 뜻을 받아 선생은 권질의 사위이니 史官이 될 수 없고 그를 천거한 사람도 또한 옳지 못하다고 하여 藝文館 官員을 推考<sup>29)</sup>하고 선생의 사관 벼슬을 바꿀 것을 啓請하였다. 이에 의견이 분분하여 춘추관 관원<sup>30)</sup>이 다 파직되고 선생도 체직되셨다. 金安老<sup>31)</sup>의 田庄<sup>32)</sup>이 榮川<sup>33)</sup> 땅에 있었는데 이 곳은 부인 허씨가 살던 땅이므로 김안로가 동향 연고로서 선생을 만나기를 원하였으나 선생께서 가 보시지 않으시니 김안로가 노하여 대간을 부추켜 논박한 것이었다. 6월에 正字<sup>34)</sup>에 오르셨다. 7월에 말미를 얻어 시골로 내려와 근친하셨다. 10월에 著作<sup>35)</sup>에 오르셔서 서울로 가셨다. 문과 廷試<sup>36)</sup>의 耆英會圖<sup>37)</sup>라 하는 글제에 선생께서 排律<sup>38)</sup> 10

22) 승문원의 중9품 벼슬의 시보로 일을 잠시 맡아함.

23) 예문관의 정9품 벼슬로 史草를 꾸미는 직분을 맡음.

24) 춘추관의 정9품 벼슬.

25) 權磻(1483~1545). 조선 문인. 자는 士安. 본관은 安東.

26) 사간원의 정6품 벼슬.

27) 安處謙(1486~1521). 조선 문신. 자는 伯虛, 호는 謙齋. 謹齋. 虛齋. 본관은 順興.

28) 죄를 받음.

29) 관원의 허물을 캐어 물으며 고찰함.

30) 번역본에는 춘추관으로 되어 있으나 예문관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31) 金安老(1481~1537). 조선 문신. 자는 頤叔, 호는 希樂堂. 龍泉. 保樂堂. 忍性堂. 退齋. 본관은 延安.

32) 자기가 소유한 논밭.

33) 지금의 榮州.

34) 홍문관, 승문원, 교서관 등의 정9품 벼슬.

35) 교서관, 승문원, 홍문관의 정8품의 한 벼슬.

36) 임금이 참석하여 행하던 과거의 마지막 시험. 殿試.

37) 송나라 司馬光이 洛陽에 노퇴하여 있으면서 명망있는 노인들과 結社하여 耆英會라 이름하고 회상을 그리게 하였다. 여기서는 국가에서 설치한 耆老所에 든

韻으로 장원하셨다. 11월<sup>39)</sup>에 務功郎 博士<sup>40)</sup>에 오르셨다.

□ 1535년<선생 35세> 6월에 護送官이 되어 倭奴를 동래로 데리고 가실 때에 驪州를 지나다가 牧使 李純<sup>41)</sup>과 더불어 神勒寺에 오르셨다.<신록사는 절이름이다.><sup>42)</sup> 지으신 글에

수를 물음에 능히 이치의 속을 더듬을 수 있고  
신선을 말할 때에는 바로 時流를 謝絶코자 하네.<sup>43)</sup>

하신 절구가 있으니 선생께서 스스로 註를 달아 말씀하시기를 “이순이 『皇極經內篇』이라 하는 책을 20여 년을 공을 쌓아 비로소 이루었더니 이 날 內篇과 參同契의 수련하는 법을 의논하였다.”하셨다. <수련은 신선의 참동계 책의 기운을 닦아 오래 사는 법이다.><sup>44)</sup> 이번 길에 예안에 들러 근친하고 가셨다.

□ 1536년<선생 36세> 3월에 宣務郎<sup>45)</sup>이 되셨다. 6월에 成均館 典籍<sup>46)</sup>에 오르시고 中學教授를 겸하셨다. 7월에 말미를 얻어 근친하시고 9월에 戶曹佐郎<sup>47)</sup>이 되셨다.

□ 1537년<선생 37세> 4월에 宣敎郎<sup>48)</sup>이 되시고 5월에 承訓郎<sup>49)</sup>이 되셨다. 9월에 承議郎<sup>50)</sup>이 되셨다. 10월에 모친 朴氏의 喪事를 당

사람들의 모임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말하는데 耆老所는 문관 이품 이상으로 60세가 넘은 사람을 入所시켜 敬待하는 것이다.

38) 보통 律詩는 八귀로 된 것인데 그 이상으로 句數를 늘린 것을 排律이라 한다.

39) 한문본에는 12월로 기록되어 있다.

40) 東班의 정7품 벼슬.

41) 李純. 조선 문신, 학자. 자는 希文. 본관은 德山.

42) 李世澤 補註.

43) 問數可能探理窟 談仙直欲謝時流. 이가원 著 퇴계시역주(P.17)에서는 수학을 의론하니 理窟을 더듬었으므로 되어 있어 의문형으로 끝맺지 않고 평서형으로 되어있는데 이가원의 해석이 옳을듯 함.

44) 李世澤 補註.

45) 종6품 문관의 벼슬.

46) 성균관의 정6품 벼슬.

47) 호조의 정6품 벼슬.

48) 종6품 문관의 품계. 무공량의 위, 승의량의 아래.

49) 정6품 문관. 선교량의 위, 승의량의 아래.

하셨다. 선생께서 6품이 되시면서부터 外臨을 구하여 養親하고자 하셨으나 當路<sup>51)</sup>에 있는 사람이 막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시다가 이에 이르러 서울로부터 奔喪하여 오시니 상중에 柴毀<sup>52)</sup>하여 병을 얻으니 거의 구하지 못할 뻔 하셨다. 12월 甲子일에 박부인을 온계 마을 樹谷 언덕에 장사지냈다.

□ 1538년<선생 38세>

□ 1539년<선생 39세> 12월에 脫喪하셨다. 弘文館 修撰<sup>53)</sup>이 되셨다가 이 날 修撰知製教에 오르시고 經筵檢討官<sup>54)</sup>을 겸하셨다. 그 때에 金安老가 이미 폐하였으므로 선생께서 뽑혀 玉堂에 들어가셨지만 형 大憲公께서 舍人<sup>55)</sup>으로 춘추관을 겸하여 계심에 선생께서 相避로 기사관을 겸하지 않으셨다.

□ 1540년<선생 40세> 정월에 司諫院 正言<sup>56)</sup>이 되시고 부름을 받고 서울로 가셨다. 2월에 奉訓郎<sup>57)</sup>이 되시고 奉直郎<sup>58)</sup>에 오르셨다. 3월에 承文院 教檢<sup>59)</sup>을 겸하셨다. 4월에 지제교가 되셨다. 이후로는 당하관 벼슬하실 적마다 예사로 겸하셨다. 司憲府 持平<sup>60)</sup>이 되어 經筵에서 아뢰어 말씀하시기를 “요즈음 가뭄이 매우 심하오니 政殿을 피하시고 수라를 감하시고 풍류를 그치시는 일이 비록 文具<sup>61)</sup>의 일이오나 행하심을 마땅히 지성으로 하실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자주 赦하는

50) 정6품의 문관. 봉훈랑의 아래.

51) 요직에 있는 사람.

52) 회초리 같이 몸이 말라.

53) 한문본에는 홍문관 부수찬으로 되어 있다. 홍문관 수찬은 홍문관이 정6품 벼슬. 부수찬의 위, 부교리의 아래.

54) 경연청의 정6품 벼슬. 講讀. 論思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직으로 他官이 겸임함.

55) 의정부의 정4품 벼슬.

56) 사간원의 정6품 벼슬.

57) 종친의 종5품 품계. 승의랑의 위.

58) 종친의 종5품 벼슬. 통선랑의 아래.

59) 승문원의 정6품 벼슬.

60) 사헌부의 정5품 벼슬.

61) 형식을 차리는데 지나지 않는 일.



것은 매우 옳지 아니하오니 옛 사람도 말씀하시기를 ‘赦를 자주 하면 모든 어진 사람이 해를 입고 간사한 사람들이 기뻐한다.’ 하였으니 요즈음 간사한 무리가 생각하기를 ‘가뭄이 極하면 반드시 은사를 내릴 것이다’ 하여 죄를 짓는 자는 희망을 가지므로 죄를 범하는 자는 기탄이 없으니 그 폐가 적지 않습니다.” 하시니 주상께서 아름답게 여겨 들으셨다. 옮겨 刑曹正郎<sup>62)</sup>이 되셨다가 얼마 안되어 事情에 의해 벼슬을 그만두셨다. 9월에 敍用<sup>63)</sup>되어 다시 형조정랑이 되시고 承文院 敎理<sup>64)</sup>를 겸하시다가 弘文館 副敎理<sup>65)</sup>에 임명되시고 經筵 侍讀官<sup>66)</sup>과 春秋館 記注官<sup>67)</sup>을 겸하셨다. 12월에 通善郎<sup>68)</sup>을 제수하셨다.<sup>69)</sup>

□ 1541년<선생 41세> 3월에 경연에 들어가셔서 일을 아뢰셨다. 이 때에 牛疫이 심하였기 때문에 선생께서 아뢰어 이르시기를 “五行志에 이르기를 ‘흙이 만물을 생성하는데 흙 기운을 기르지 못하면 곡식이 잘 되지 아니 하니 이에 소의 화가 있다.’ 하였으니 작년 가을<sup>70)</sup>에 지진이 일어나는 변이 있었고 지금에는 癘疫과 牛疫이 일어나니 옛 사람의 말이 진실로 거짓이 아닙니다. 또 바야흐로 봄에 가뭄을 근심하고 土脈이 윤택하지 않아 凶荒<sup>71)</sup>할 징조가 벌써 보이니 농사 풍흉을 점칠 수 있겠습니다. 災變<sup>72)</sup>이 겹쳐서 일어남이 지금같이 심한 적이 없었으니 바라옵건대 주상께서는 더욱 더 몸을 닦아 살피심을 더하십시오.” 그 뒤에 저녁 강의하실 때에 들어와 이르시기를 “漢나라 明帝 때에 하늘이 가물

62) 형조의 정5품 벼슬.

63) 죄가 있어 免官 당하였던 사람을 다시 임용하던 일.

64) 승문원의 종5품 벼슬.

65) 홍무관의 종5품. 수찬의 위, 교리의 아래.

66) 경연청의 정5품 문관. 검토회의 위, 시강관의 아래.

67) 춘추관의 정. 종5품.

68) 정5품 문관. 본직랑 위, 통덕랑 아래.

69) 번역본과 한문본의 내용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한문본에는 10月陞校理 11月授通善郎으로 기록되어 있다.

70) 한문본에는 겨울로 되어 있다.

71) 농사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듦.

72) 재앙과 이변.

어서 種離意가 상소하여 간하니 명제가 즉시 營繕<sup>73)</sup>을 파하고 잘못된 것을 百官에게 일러주었더니 때에 맞추어 큰 비가 내렸습니다. 요즈음 재변이 있다 하여 주상께서 근심하시며 부지런히 惕慮<sup>74)</sup>하시고 스스로에게 죄를 주시는 말씀이 또한 간절하심으로 하늘이 때에 맞추어 비를 내리시니 이 일로써 보건대 하늘과 사람이 서로 응한다는 이치가 어긋나지 않으니 대개 안으로 진실되게 정성을 다하면 그 보답이 이르는 것입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군자는 날이 다하도록 乾乾하고 밤에 惕若하기를 힘쓰면 허물이 없다.’하였습니다. <乾은 부지런하여 쉬지 않는다는 뜻이요 惕若은 마음이 경동한다는 뜻이요 힘쓰니 허물이 없다하는 것은 변이 있으나 재앙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sup>75)</sup> 『中庸』에 이르기를 ‘中和 和를 이루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에 있어서 시절을 편하게 하고 만물을 생육하게 한다.’하였으니 무릇 舉措<sup>76)</sup>하는 일이 사람의 마음에 합하게하기를 힘쓸 것이니 사람의 마음이 화합하면 재변을 없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讀書堂에서 글읽을 여가를 주셨다. 그 집은 한강 동쪽에 있으니 나라에서 인재를 儲畜하여 기르는 곳이다. 문학하는 선비를 뽑아서 그 곳에 두고 두어 번 번갈아 가며 글을 읽히니 거기에 뽑힌 자는 영광스럽게 여기기를 신전에 오르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러나 뽑힌 사람들이 놀며 스스로 평안하게 지내는 이가 많았는데 선생께서는 늘 차례가 되면 가시고 글 읽기를 일삼으셨다. 남쪽 누각 왼쪽에 작은 집을 지어 이름을 文會堂이라 하였는데 해마다 서당의 모든 사람이 唱和<sup>77)</sup>하여 지은 글이 있었다. 4월에 사헌부 지평이 되시고 5월에 홍문관 수찬이 되셨다. 咨文<sup>78)</sup>의 點馬官<sup>79)</sup>으로 義州로 가셨다. 義州雜詠이라 하는 글 열 두 절구가 있다. 부교리에 올라 재촉하여 부르시는 유지

73) 건축하고 수리함.

74) 두려워하는 마음.

75) 李世澤 補註.

76) 동작과 행동.

77) 한쪽에선 부르고 한쪽에선 화답함.

78) 중국관청에 보내는 편지.

79) 말을 점검하는 관원.

를 만들어 서울로 오셨다. 10월에 世子 侍講院 文學을 겸하시고 11월에 사헌부 지평이 되시고 12월에 病辭하셨으나 옮겨 成均館 典籍이 되시고 또 형조정랑이 되셨다.

□ 1542년<선생 42세> 2월에 홍문관 부교리가 되시고 겸직은 전과 같았다. 3월에 경연에 들어가 주상을 모시고 글을 써서 아뢰기를 “한 시대의 흥함에는 반드시 한 시대의 규모가 있으니 東漢의 光武帝가 외척 등용을 숭상하지 않음에 그 망할 때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외척의 손에 말미암았습니다. 처음으로 창업하는 임금은 친히 규모를 세웠으나 자손이 능히 지키지 못하고 국사를 그릇되게 하는 것입니다. 章帝도 또한 어진 임금이었으나 그 때부터 외척의 전권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릇 史記를 읽을 때에는 모름지기 다스려지고 어지럽혀지는 이유를 알고 보면 유익할 것입니다.”하셨다. 선생의 취미와 숭상하시는 것이 높고 깨끗하여 늘 물러나실 뜻을 두심으로 비록 영화로운 벼슬에 계셨어도 그것을 즐겨하시는 바는 아니셨다. 이 해의 봄에 玉堂에 속직하시며 매화를 생각한 시가 있었는데 이르기를<옥당은 홍문관이다.><sup>80)</sup>

뜰에 한 그루 매화, 눈이 가지에 가득하였을 것인데  
바람과 티끌의 회취와 바다를 꿈꿈에 끝이 분명하지 않도다.  
옥당에 앉아서 봄밤의 달을 대하니  
기러기 울음소리 가운데에서 생각나는 바가 있도다.<sup>81)</sup>

하셨다.<sup>82)</sup> 議政府 檢詳으로 어사되어 충청도로 내려가서 各官이 구황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검찰하시고 4월에 復命<sup>83)</sup>하셨다. 주상이 인견하시고 구황의 形止<sup>84)</sup>를 물으시거늘 선생께서 아뢰시기를 “옛 사람이 말하기를 ‘나라에 쓸 預蓄이 삼년을 지내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하였는데 지금 한 해만 흉년이 들어도 공·사간에 모두 군색하

80) 李世澤 補註.

81) 一樹庭梅雪滿枝 風塵湖海夢差池 玉堂坐對春宵月 鴻雁聲中有所思.

82)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其雅意所在可見.

83) 사명을 띤 사람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아뢰.

84) 일이 되어가는 형편.

고 결핍됨이 이와 같은데 올해 만일 또 失農하면 구황의 일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常時에 나라에서 쓰는 것을 撙節하고 저축하여야 비록 생각 밖의 재변이 있어도 窘急<sup>85)</sup>할 환이 없을 것입니다.” 하셨다. 또 公州 判官 印貴孫이 悖戾貪汚하여 구황하는 일에 부지런하지 못한 것을 아뢰며 죄를 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주상께서는 이 말을 좇으셨다. 晦齋 李彦迪<sup>86)</sup>선생께서 경주에 근친가심에 南郊에 가서 전송하셨다. 5월에 通德郎이 되어 舍人에 오르시고 承文院 校勘<sup>87)</sup>과 侍講院 文學을 겸하셨다. 8월에 龔巖 李公<sup>88)</sup><휘는 현보이다.>이 고향으로 가지거늘 글을 지어 이별하고 災傷御史<sup>89)</sup>로 강원도로 가셨다. 『過淸平山詩序』를 지셨다. 10월<sup>90)</sup>에 司憲府 掌書<sup>91)</sup>이 되셨다.

□ 1543년<선생 43세> 병환으로 사직하였으나 宗親府 典籤으로 제수되시고 또 장령이 되시어 계시다가 典設司守에 옮기셨다. 6월에 朝奉大夫가 되시고 7월에 成均館 司藝가 되시고 승문원 교감과 侍講院 弼善<sup>92)</sup>을 겸하셨다. 8월에 朝散大夫<sup>93)</sup>가 되셨다가 사간원 사간에 오셨으나 병환으로 부임하지 못하시고 司僕寺 僉正<sup>94)</sup>으로 제수되셨다. 金厚之 수찬이 근친 말미를 얻어감에 글을 지어 보내셨다. 시에 이르시기를

내 그대와 더불어 泮宮<sup>95)</sup>에 놀 때

85) 일이 막히어 급함.

86) 李彦迪(1491~1553). 조선 문인, 학자. 자는 復古 호는 晦齋·紫溪翁·시호는 文元.

87) 승문원의 종4품 벼슬.

88) 李賢輔(1467~1555). 조선 문신. 자는 棐仲, 호는 龔巖·雪髮翁·본관은 永川. 시호는 孝節.

89) 재해를 시찰하는 어사.

90) 한문본에는 12월로 되어 있다.

91) 사헌부의 정4품 벼슬.

92) 세자 侍講院의 정4품 벼슬.

93) 종4품 문관.

94) 사복시의 정4품 벼슬.

95) 성균관과 문묘의 총칭.

말 한마디에 도가 합하여 서로 언음을 기뻐하였다.  
 그대는 세상 살기를 빈 배<sup>96)</sup>같이 볼 줄을 알았고  
 나는 흩어진 재목이 樗櫟과 같음을 믿노라.  
 부귀는 내게 뜬 구름과 같으니  
 우연히 얻었으나 내가 구하는 것은 아니로다.  
 가을 바람 소슬하게 한강 물에 부니  
 바다길 산길 천리에 그대 먼저 가는구나.<sup>97)</sup>

10월에 成均館 司成<sup>98)</sup>이 되시고 말미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와 성묘 하셨다. 11월에 禮賓寺 副正<sup>99)</sup>으로 제수되셨으나 가지 않으셨다. 선생께서 뒤에 南冥 曹植<sup>100)</sup>께 보내신 편지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한갓 옛 성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집이 가난하고 어버이께서는 늙으셨으므로 친구들이 억지로 과거를 보아서 利祿을 취하라 하였는데 내가 그 때에 식견이 없어 문득 동요되어 우연히 천거하는 글에 이름이 올라 티끌 속에 골몰하여 날마다 겨를이 없었는데 그 밖에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 후에 병이 더욱 깊고 또 스스로 세상에 해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비로소 머리를 돌리고 발길을 멈추고서 옛 성현의 글을 취하여 읽고 이에 惕然히 깨달음을 얻어 길을 고쳐서 桑榆의 景을 거두고자 하여<sup>101)</sup> 벼슬자리를 떠나서 옛 글을 안고 고향의 산 가운데로 돌아가 장차 더욱 못 미친 바를 구하는데 하늘 신령의 힘을 입어 조금씩 쌓아 남은 것의 만분의 일이라도 얻을 것이 있다면 이 일생을 속절없이 보내지 않게 될 것이니 이는 나의 10년 이래의 뜻이요 원하는 일이다. 성은이 허물을 포용하시며 거짓 이름이 사람을 다그쳐 癸卯

96) 莊子, 列禦冠에 나오는 말.

97) 我昔與子遊泮宮 一言道合欣相得 君知處世如虛舟 我信散材同樗櫟 富貴於我等浮雲 偶然得之非吾求 秋風蕭蕭吹漢水 海山千里君先去.

98) 성균관의 종3품 벼슬. 대사성의 아래.

99) 예빈시의 종3품 벼슬.

100) 曹植(1501~1572). 조선의 학자. 자는 樗仲, 호는 南冥. 본관은 昌寧. 시호는 文貞.

101) 桑榆는 서쪽에 태양이 지는 곳이며 景은 햇빛으로 만년에 공부를 성취하고자 한다는 뜻이다.

(1543)년에서부터 壬子(1552)년에 이르는 동안 세 번을 물러나왔으며 세 번 부르심에 다시 돌아갔으나 늙고 병든 몸으로 工程에 더한 것을 이렇게 하고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하셨다. 또 鄭惟一<sup>102</sup>의 言行錄에 이르기를 “선생께서 본래 벼슬할 마음이 적으셨는데다가 그때의 일에 큰 機關이 있음을 보시고 癸卯(1543)년부터 물러나실 뜻을 결단하시니 이후로는 비록 여러 번 부르심을 입어도 조정에 계시지 아니하셨다.”하였다. 12월에 奉列大夫에 오르셨다.

□ 1544년<선생 44세> 2월에 鴻文館 교리로 부르셔서 서울로 가셨다. 독서당의 대화를<sup>103</sup> 두고 지으신 글이 둘 있다. 4월에 世子 侍講院 左弼善을 제수받으셨으나 병으로 다니지 못하시고 사헌부 장령으로 계시다가 6월에 병으로 사직하고 成均館 直講을 옮겨지셨다. 또 鴻文館 교리가 되셨으나 병으로 체직되시고 종친부 전첨이 되셨다. 圭菴 宋麟壽<sup>104</sup>가 북경으로 가거늘 주신 글이 있다. 8월에 鴻文館 응교가 되시고 經筵 侍講官과 春秋館 編修官<sup>105</sup>과 승문원 교감을 겸하셨다. 9월에 말미를 얻어 집에 와 계시다가 10월에 서울로 가셨다. 11월에 中宗께서 승하하시니 천조에 사신을 보내어 부음을 아뢰고 시호를 청할 때 두 表文을 다 선생께서 지으시고 쓰셨다. 사신이 中朝에 들어가니 禮府官員이 글을 보고 매우 차탄하여 이르기를 “표문이 매우 좋고 필법이 또한 묘하다.”하였다. 사신이 돌아와 그 일을 아뢰니 명하여 선생께 말(馬)을 내리셨다.

□ 1545년<선생 45세> 정월에 遠接使의 종사관이 되었으나 병으로 가지 못하셨다. 林士滲를 의주로 보내는 글이 있다. 3월에 병환으로 체직되고 內瞻寺僉正<sup>106</sup>에 옮기셨고<sup>107</sup> 5월에 中憲大夫가 되셨다. 6월

102) 鄭惟一(1533~1576). 조선 문신. 자는 子中, 호는 文峯. 본관은 東萊.

103)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 : 暮春始開用東坡韻.

104) 宋麟壽(1487~1547). 조선 문신. 자는 眉叟, 호는 圭庵. 본관은 恩津. 시호는 文忠.

105) 춘추관의 정3품에서 종4품까지의 堂下官.

에 홍문관 응교로서 典翰<sup>108</sup>)에 오르셨고 겸직은 전과 같았다. 7월에 인종께서 승하하시고 명종께서 즉위하셨다. 상소하여 왜인과의 화친을 허락하시기를 청하셨다. 이전 庚午년에 三浦<sup>109</sup>)에서 왜적이 난을 일으켜 邊將을 죽였기에 나라에서 柳聃年<sup>110</sup>)과 黃衡<sup>111</sup>) 등을 보내어 討平하고 이로 인하여 예를 거절하고 왕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왜인이 화친함을 빌었으나 나라에서는 지난 일 때문에 다시 물리쳤다. 이 때에 나라에 큰 喪事가 있었고<sup>112</sup>) 선생께서는 왜적들이 그 틈을 타 여러 가지 화를 일으킬까 근심하시어 상소하셨는데 대략 말씀하시기를 “전번에 섬 오랑캐가 일으킨 變亂<sup>113</sup>)은 개나 쥐와 같은 도적에 불과했던 것으로 이미 도적의 무리를 죽여 물리쳤고 또 왜관에 머물렀던 자들을 쫓아 내쫓아 나라 위엄이 이미 진동하였고 왕법이 또한 바로 잡혔습니다. 저들이 위엄을 두려워하고 덕을 부끄럽게 여겨 마음을 고치고 허물을 고쳐 머리를 숙여 불쌍히 여기심을 빌며 꼬리를 흔들며 가련히 여겨줄 것을 비니, 왕의 도가 넓고 넓어 간사한 것을 미리 짐작하지 아니하며 미덥지 못한 것은 억측하지 아니하니 진실로 옳은 마음으로 온다면 이에 받을 따름입니다. 지금 天變은 위에서 보이고 人事는 아래서 빠져서 큰 화가 거듭되고 나라 안이 어렵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 나라의 어떠한 시절입니까? 또 나라에서는 북쪽 오랑캐와 더불어 틈이 생겼으니 만약 남북의 두 도적이 일시에 발하면 무엇을 믿고 막겠습니까? 들으니 조정에서 禮로 청하는 것을 끊는다 하는데 마음에 이상하게 여겨져 탄합니다. 이 일은 백년사직에 관계되는 근심이요 억만 백성의 목숨에 관계되는 것이니 바라옵건대 신의 이 글로써 慈殿께 취품

106) 翻譯에 내침시침정으로 되어 있어 내섬시침정의 오류로 보임.

107)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四月授奉正大夫移拜軍資監僉正.

108) 홍문관의 중3품 벼슬.

109) 富山浦, 鹽浦, 乃而浦로 왜인들이 와서 있게 허락한 곳이다.

110) 柳聃年(?~1526). 조선의 무신. 본관은 文化. 시호는 襄武.

111) 黃衡(1459~1520). 조선의 무신. 자는 彥平. 본관은 昌原. 시호는 莊武.

112)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人心危懼.

113) 蛇梁浦의 변란.

하시고 조정에 있는 신하들에게 널리 의논하시고 절충하고 살펴서 처리 하십시오.”하셨다. 8월에 中直大夫<sup>114)</sup>에 오르셨으나 병으로 홍문관 직을 사양하여 通禮院相禮<sup>115)</sup>로 계시다가 9월에 司饗院正에 제수되시고 홍문관 전한으로 제수되시니 겸직은 예전과 같았다. 10월에 李芑<sup>116)</sup>가 계청하여 선생의 직위를 삭탈하였다. 이 때에 權奸이 일을 일으켜 士禍가 크게 일어나 죽고 귀향간 사람이 계속 잇달았으니 사람이 모두 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右相 이기는 더욱 凶險하여 여론이 자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을 다 몰아내어 모든 입을 箝制하고자 하여 대궐에 홀로 나아가 아뢰기를 “요즈음 죄 정하기를 각각 맞게 하였으나 朝士들 중 坐罪하여 파면될 자가 아직 미진한 것이 있으니 청하옵건대 李天啓<sup>117)</sup>와 李滉과 權勿<sup>118)</sup>과 李湛<sup>119)</sup>과 丁燾<sup>120)</sup> 등을 파직하시기 바랍니다.”하여 선생께서 그 사람들과 같은날 삭직당하시니 朝夜의 사람들이 놀라고 통분히 여겼다. 12일에 仁廟의 梓宮<sup>121)</sup>을 陵으로 발인하였는데 선생께서는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셨기에 홀로 들 밖에 가서 望哭하시고 예를 행하셨다. 주상께서 명하여 職牒<sup>122)</sup>을 도로 주셨다. 이기의 조카인 李元祿<sup>123)</sup>은 본래 선생을 중히 여겼기에<sup>124)</sup> 林百齡<sup>125)</sup>은 이기의 黨 사람으로 또한 기에게 말하기를 “이황이 근신하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사람들이 다 같이 아는 것이니

114) 종3품 문관의 품계.

115) 통례원의 종3품.

116) 李芑(1476~1552). 조선 문신. 자는 文仲, 호는 敬齋. 본관은 德水.

117) 李天啓. 조선 문신. 자는 亨伯, 호는 槐堂. 본관은 新平.

118) 번역본에는 권발이라하여 잘못되었음. 서예본에는 權勿로 되어 있음.

119) 李湛(1510~1557). 조선 문신. 자는 仲久, 호는 靜存齋. 본관은 龍仁.

120) 丁燾(1512~1560). 조선 문신. 자는 季晦, 호는 遊軒. 본관은 昌原. 시호는 忠簡.

121) 임금의 관을 이르는 말.

122) 관직의 牒旨.

123) 李元祿(1514~1574). 조선 문신. 자는 廷瑞. 본관은 德水.

124)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 : 力諫芑.

125) 林百齡(?~1546). 조선 문신. 자는 仁順, 호는 槐馬, 본관은 善山.



지금 그 사람을 죄주면 지난 날에 죄입은 사람도 다 거짓 일로 잡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니 이기가 다시 대궐에 나아가 전번의 啓辭에 살피지 못한 것을 사죄하고 도로 직첩을 줄 것을 청하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 敍用하여 司僕寺正<sup>126)</sup>에 제수하고 承文院 參校를 겸하게 하셨다. 11월에 통훈 대부가 되시고 迎接都監郎廳으로 임명되셨다.

□ 1546년<선생 46세> 2월에 말미를 얻어 시골로 내려와 外舅<sup>127)</sup> 權碩을 장사지내셨다. 5월에 병으로 올라가지 못하시어 해직되셨다. 7월 초2일<sup>128)</sup>부인 권씨께서 돌아가셨다. 8월에 校書館 校理로 제수되시고 승문원 교리를 겸하셨다. 11월에 禮賓寺正이 되셨으나 모두 가지 않으셨다. 養眞菴을 퇴계 동쪽 바위 위에 지으셨다. 이전에 작은 집을 온계 마을 남쪽의 芝山 북쪽에 지었으나 마을이 많아 고요하고 아늑하지 않다고 하시고 이 해에 비로소 退溪 아래 수삼리쯤에 假寓<sup>129)</sup>하시고 동쪽 바위 곁에 작은 집을 지어 이름을 養眞이라 하셨다. 그 시냇물의 속명은 兎溪인데 선생이 물러갈 ‘退’자로써 토끼 ‘兎’자를 고치시고 인하여 스스로 별호로 삼으셨다.

□ 1547년<선생 47세> 7월에 안동 부사를 제수받으셨으나 가지 않으셨다. 8월에 홍문관 응교를 제수하시고 예전대로 겸직하여 부르시므로 서울로 가셨다.<sup>130)</sup> 12월에 병으로 사양하시니 儀賓府 經歷으로 제수되셨다.<sup>131)</sup> 이 때에 나라의 의논이 더욱 怪慮하여 兩司<sup>132)</sup>와 홍문관이 서로 글을 올려 鳳城君<sup>133)</sup>에게 죄주기를 청하거늘 선생께서는 힘으로 능히 구하지 못할 줄을 아시고 병으로써 사직하셨다.

□ 1548년<선생 48세> 정월에<sup>134)</sup> 외임을 구하신 것은 깊은 뜻이

126) 번역본에는 司僕判事로 되어 있고 서해본에는 司僕寺正으로 되어 있음.

127) 장인.

128) 한문본에는 7월로 되어 있다.

129) 임시로 거처함.

130)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有古意雪竹歌病中讀史有感等詩.

131) 의빈부의 종4품 벼슬.

132) 사헌부와 사간원.

133) 鳳城君(?~1547). 중종의 왕자. 이름은 旼. 자는 子瞻. 시호는 懿愍.

있어서였다. 청송을 구하시다가 얻지 못하시고 단양군수가 되시니 글을 지어 이르시기를 “청송과 백학은 비록 연분이 없으나 푸른 물과 丹山은 진실로 인연이 있도다.”하셨다. 선생께서 고을을 다스리시기를 誠信으로 하시며 懇惻<sup>135)</sup>하시고 다스림이 淸簡하시니 아전과 백성이 다 편하게 여겼다. 고을에 奇勝한 땅이 많았는데 龜潭과 島潭 같은 곳이 더욱 아름다웠다. 선생께서 공사하신 겨울에는 놀고 읍으시고 구경하셨는데 蕭然히 세상 밖에 나간 듯한 자취가 있었다. 단양에서 산수가 놀만한 곳 기록한 것을 말한 것과 二樂樓와 花灘 등이 지으신 글에 있다. 2월에 아드님 窅의 상사를 들으셨다. 8월에 향교에 釋奠<sup>136)</sup>하셨고 9월에 말미를 얻어 집에 돌아와 성묘하셨다. 10월에 형 대헌공이 충청감사가 되시니 단양이 그 도내에 있으므로 풍기군수로 옮기셨다.

□ 1549년<선생 49세> 2월에 향교에서 釋奠禮를 행하였다. 한식날 선영에 성묘하셨다. 4월에 小白山을 유람하셨다.<sup>137)</sup> 9월에 감사에게 辭狀하시고 10월<sup>138)</sup>에 감사께 글을 올려 白雲洞 서원의 扁額<sup>139)</sup>과 서책을 청하시니 감사께서 啓問하여 頒降<sup>140)</sup>하셨다. 백운동은 고을 북쪽 소백산 아래의 竹溪 위에 있는데 前朝 때 文成公 安裕<sup>141)</sup>께서 예전에 사셨던 땅이다. 周世鵬<sup>142)</sup>이 그 땅의 군수가 되었을 때 서원을 그 곳에 처음으로 지어 문성공을 제사하고 모든 선비들이 머물면서 배우는 곳으로 삼았었다. 선생께서 생각하시기를 동방에는 옛날에 서원이 없었는데 지금 비로소 처음으로 생겼으니 가르치는 것이 위에 말미암지 않

134)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正月求外補拜丹陽郡守.

135) 지극히 간절함.

136) 음력 2월과 8월의 上丁日에 공자를 모신 사당에서 지내는 큰 제사.

137)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有遊山錄及石崙寺次李白紫極宮有感諸詩.

138) 한문본에는 12월로 기록되어 있다.

139) 방안이나 대청 또는 문위에 가로 다는 현판.

140) 頒祿과 放料.

141) 安珣(1243~1306). 고려의 명신, 학자. 초명은 裕. 자는 士蘊, 호는 晦軒. 본관은 順興. 시호는 文成.

142) 周世鵬(1495~1554). 조선 문신, 학자. 자는 景游, 호는 愼齋·南阜·武陵道人. 巽翁. 본관은 尙州. 시호는 文敏.

으면 다시 폐하게 될까 두려워하여 감사께 글을 올려 청하여 위에 아뢰어 송나라 때의 옛 일에 의거하여 서책과 서원 편액을 내려주시고 田地와 종을 겸하여 주어 학자로 하여금 의지하여 돌아갈 곳이 있게 해 줄 것을 청하셨다. 감사 沈通源<sup>143)</sup>이 조정에 아뢰니 이에 이름을 紹修書院이라 하시고 대제학 申光漢<sup>144)</sup>을 시켜 記를 짓게 하고 四書와 五經과 性理大全 등의 책을 주시니 서원의 일어남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감사께 세 번을 사장하여 벼슬을 해임해 주기를 청하셨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오시니 行裝이 쓸쓸하여 서책 두어 상자일 따름이었다.

□ 1550년<선생 50세> 정월에 마음대로 임소를 버렸다 하여 과직당하셨다. 2월에 비로소 퇴계 서쪽에 卜居하셨다. 이보다 먼저 河明洞 紫霞奉 아래에 땅을 얻어 집을 짓다가 끝내지 못하고 竹洞에 옮겨 계시다가 또 골이 좁고 시내가 없다 하여 溪上에 옮기시니 세 번 옮겨 定居하신 것이다.

寒栖菴을 지으시고 堂 이름을 靜翳이라 하고 그 가운데서 글을 읽으셨다. 시를 지어 말씀하시기를

몸이 물러나니 어리석은 분수가 편안하고  
학문이 물러가니 暮境<sup>145)</sup>이 근심이로다.  
시내 위에 비로소 정거하니  
흐르는 물에 임하여 날로 살림이 있도다.<sup>146)</sup>

하셨다. 이로부터 쫓아오는 선비가 날로 많아졌다. 龔巖 李公을 汾川에 가서 뵈었다.<sup>147)</sup> 4월에 光影塘이란 못을 팠는데 못이 한서암 앞에 있으니 하늘 빛과 구름 그림자가 같이 배회한다고 하는 뜻을 취하여 이름을 지으신 것이다. 8월에 형 左尹公 瀧의 부음을 들으셨다. 좌윤공께서

143) 沈通源(1499~?). 조선 문신. 자는 士容, 호는 勸齋. 본관은 靑松.

144) 申光漢(1484~1555). 조선 문신. 자는 漢之, 時晦. 호는 企齋·駱峰·石仙齋·靑城洞主. 본관은 高靈. 시호는 文簡.

145) 늙바당.

146) 身退安愚分 學退優暮境 溪上始定居 臨流日有省.

147)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 : 有和東坡月夜飲杏花下詩.

전에 사헌부에 계실 때에 李芑가 정승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의논하였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이기의 모함에 빠져 매를 맞고 귀양가시다 길에서 돌아가신 것이다.

□ 1551년<선생 51세> 이 해에는 선생께서 벼슬을 하지 않으시고 집에 계셨다.<sup>148)</sup> 3월에 安東 馬鳴洞에 가서 선조 분묘에 성묘하셨다.

□ 1552년<선생 52세> 입춘에 지으신 시가 두 수 있는데 그 중 한 시에 이르기를

누른 책 중간에서 성현을 마주 대하여  
 밝은 한 집에 초현히 앉았도다.  
 매화 창에서 또 봄 소식을 보니  
 보배로운 거문고를 향하여 줄 끊어진 것은 탄식하지 말라.<sup>149)</sup>

하셨다. 龔巖을 臨江寺로 찾아가서 지으신 글이 있다. 4월에 홍문관 교리 지제교겸 경연시독관, 춘추관 記注官, 승문원 교리로 부르시니 서울로 가셨다. 5월 초 8일에 입시하여 進講하실 때 글을 써서 아뢰기를 “積善하는 집은 남은 경사가 있고 積不善하는 집은 반드시 남은 殃禍가 있나니<sup>150)</sup> 무릇 사람이 악한 일을 할 때에 스스로 그 일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겠지만 그 악이 점점 쌓여 마침내 큰 화에 이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어진 일을 좃춤은 올라가는 것 같고 악을 좃춤은 내려가는 것 같다.’ 하였으니 위로 제왕으로부터 아래로 모든 백성에 이르기가 지 다 마땅히 정히 살피며 굳게 지키어 中正한 도를 잡으라 하는 성인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한결같이 지키고 사사로운 것을 섞이지 않게 하면 사특한 念慮가 저절로 미치지 아니하며 그 마음가짐의 바르기가 한결갈을 따름이니 바라옵건대 주상께서는 公과 私와 義와 利의 분별을 살피 염려하십시오.” 하셨다. 司憲府 執義<sup>151)</sup>로 임명됨에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으셨다. 6월에 동료와 더불어 筓子<sup>152)</sup>를 올려 일을 의논하

148)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有次諸人唱酬韻14首.

149) 黃卷中間對聖賢 虛明一室坐超然 梅窓又見春消息 莫向瑤琴嘆絕絃.

150) 周易 坤卦.

151) 사헌부 종3품 벼슬.

시고 병으로 辭狀하셨으나 弘文館 副應敎로 옮기셨다. 7월에 通政大夫 成均館 大司成에 오르셨다. 그 때에 대사성이 비었기에 吏曹<sup>153)</sup>에서 대신의 뜻으로써 堂下官<sup>154)</sup> 중에서 글 잘하고 재주와 행실있는 사람을 택하여 擬望<sup>155)</sup>하기를 계청하니 선생께서 首望<sup>156)</sup>으로 추천되어 오르셨다. 愼齋 周世鵬의 遊淸涼山錄의 跋을 지으셨다. 11월에 병으로 사직하고 上護軍<sup>157)</sup>이 되셨다.

□ 1553년<선생 53세> 4월에 대사성이 되셨다. 임금께서 학교가 폐하고 해이하다고하여 勸學하는 節目을 내리시어 다시금 밝혀 거행하도록 하시니 선생께서 사양하여 사임하시고 다시 師丈을 택하여 말길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으셨다. 四學<sup>158)</sup>에 通文<sup>159)</sup>하여<사학은 南學, 西學, 中學, 東學이다.><sup>160)</sup> 모든 선비를 깨우치니 대강 이르시기를 “학교는 風化의 근원이요 착한 것을 따르는 곳이며 선비는 예의의 주인이고 元氣가 붙어 있는 곳이다. 나라에서 학교를 배풀어서 선비를 가르치는 것은 그 뜻이 매우 중한 것이다. 스승과 선비 사이에는 마땅히 예의로써 서로 먼저하여 스승은 엄하고 선비는 공경하여 각각 그 도를 다할 것이니 이제부터 모든 선비는 무릇 일상의 음식먹는 것을 예의 가운데서 주선하지 않는 것이 없게 하고 또 서로 계획하고 가다듬기를 힘써 옛 습관을 씻어 버리고 들어와서는 부형을 섬기는 마음으로 미루어 나가서는 어른과 웃사람을 섬기는 예를 삼으며 안으로는 효제를 행하고 충신을 으뜸으로 하여 나라에서 문교를 숭상하고 교화를 일으키기 위해

152) 서식이 간단한 상소문.

153) 육조의 하나로 문관의 선임, 훈봉, 관인의 성적고사에 관한 일을 맡았다.

154) 당하의 벼슬아치.

155) 三望(벼슬아치를 추천할 때에 후보자 셋을 천거하던 일)의 후보자에 천거함.

156) 三望 가운데에서 첫째.

157) 五衛의 정3품 벼슬로 현직에 있지 않는 문관, 무관 또는 蔭官이 맡음.

158) 선비를 양성하기 위하여 서울의 네 곳에 세웠던 학교. 중학, 동학, 남학, 서학.

159) 여러 사람이 돌려보는 통지문.

160) 李世澤 補註.

학교를 열어 선비를 가르치는 뜻에 보답해야 합니다.” 6월에 學田을 주셨기에 모든 선비를 거느리고 글을 올려 사례하셨다. 7월에 대왕대비께서 정사를 왕께 돌려 보내시는 교서를 지어 올리셨다. 병으로 사직하셨으나 副護軍<sup>161)</sup>으로 제수되셨다. 8월에 親試하시는 과거의 對讀官이 되셨다. 9월 丙申일에 景福宮이 불에 타서 종묘를 慰安하는 제문을 지어 올리셨다. 忠武衛上護軍이 되셨다. 洪應吉의 遊金剛山錄의 서를 지으셨다. 10월에 鄭之雲<sup>162)</sup>의 「天命圖」를 고쳐 정하셨다. 之雲의 자는 靜而요 별호는 秋巒이다. 「천명도」를 지었거늘 선생께서 그를 위하여 고쳐 정하고 그 뒤에 서를 쓰시니 대강 말씀하기를 “내가 벼슬하기 시작할 때 한양 서쪽 성문 안에 우거한 지 20년이나 이웃에 있는 鄭靜而와 더불어 서로 알고 왕래하지 못하였다. 하루는 「천명도」라 하는 것을 얻었는데 그림과 말이 잘못 그린 것이 있거늘 사람을 시켜 정이에게 청하여 정이의 本圖를 보라고 청하였다. 얼마 안 있어 또 정이 보기를 청하니 서너 번 왕복한 후에야 허락하였다. 정이가 말하기를 ‘慕齋와 思齋 두 선생의 문하에 가서 배우면서 그 의논을 들었으나 성리학은 미묘하여 밝힐 곳이 없는 것을 근심하다가 시험삼아 주자의 말씀을 취하고 다른 모든 말로써 相參하여 한 그림을 만들어 선생께 質疑하여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것을 청하였더니 선생께서는 쌓은 공부가 아니면 가볍게 의논할 것이 못된다고 이르지거늘 그 후에 내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달아 고친 것이 많으나 아직도 정한 것이 없습니다.’ 하거늘 내가 이르기를 ‘두 선생께서 가벼이 의논하지 않으신 것은 진실로 반드시 깊은 뜻이 계셨기 때문이나 지금 우리가 학문을 강구하다가 매일 未安한 곳이 있음을 깨달으면 어찌 한갓 구차히 같이 하며 굽히고 덮어 마침내 그 옳은 것을 분별하지 않겠는가?’ 하고는 周濂溪가 만든 태극도와 그 말을 인증하고 지적하여 이르기를 ‘어떤 곳은 잘못되었으니

161) 五衛都總府에 속한 종사품 벼슬로 현직에 있지 않는 문관, 무관, 蔭官이 말음.

162) 鄭之雲(1509~1561). 조선 학자. 자는 靜而, 호는 秋巒. 본관은 慶州. 「天命圖設」을 지었다.

고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어떤 곳은 있어야 할 것이 없으니<sup>163)</sup> 겁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어떠한가?’하니 정이가 말을 다 듣고 즉시 옮겨 여겨 성내는 빛이 없고 오직 황의 말이 마땅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힘써 분변하여 지극히 마땅한 것에 돌아간 후에 그치고 전라도 선비 李恒<sup>164)</sup>이 의논하여 情은 氣의 권역 가운데 두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 말을 취하여 여러 장점을 모은 자료로 삼았다. 그리고 두어달 만에 정이가 고친 그림과 그에 붙은 말을 가지고 와 보이거늘 다시 서로 같이 상참하고 교정하여 비록 잘못된 곳이 없는지 있는지를 알지 못하나 우리들의 소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였다. 이에 좌우에 걸어들고 조석으로 잠심하여 살펴 玩味하니 그림으로 인하여 깊은 속을 밝혀내어 조금이나마 유익함이 있을까 한다.” 하셨다.

□ 1554년<선생 54세> 2월에 東宮의 上梁文을 지으셨다.<sup>165)</sup> 5월에 형조참의가 되시고 6월에 병조 참의로 옮기셨다. 7월에 周愼齋의 訃音을 받고 우셨다.<sup>166)</sup> 盧伊齋<sup>167)</sup><守愼>에게 편지하여 夙興夜寐箴의 주해를 의논하셨다. 그 때에 이재가 진도에 귀양가서 숙흥야매잠을 주해하였거늘 선생께서 편지하여 의논하시니 대강 이르시기를 “숙흥야매잠을 옛날부터 일찍이 가슴에 담아들었으나 아직도 조리의 치밀함과 공부의 엄함이 이같이 지극한 줄은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 주해를 얻어 보니 章을 나누며 句를 분석하였고 정한 뜻과 높은 의논이 중요한 곳에 넓게 놀며 홀로 밝고 넓은 근원에 이른 것을 차탄하여 감복하기를 이기지 못하나 다만 그 사이에 두어 군데 의심되는 것이 없지 않아 삼가 다 내어 쓰니 바로잡아 주기 바랍니다.”하셨다. 경복궁의 새로 수리한 모든 편액 글자를 쓰셨다. 延平答問에 발을 지으셨다.<이 책은 송나라 선비 延平

163)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某剩不可不去.

164) 李恒(1499~1576). 조선 학자, 자는 恒之, 호는 一齋. 본관은 星州. 시호는 文敬.

165)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四月製思政殿上梁文.

166)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有挽詞.

167) 盧守愼(1515~1590). 조선 문신, 학자. 자는 寡悔, 호는 蘇齋. 伊齋. 暗室. 茹峰老人. 본관은 光州. 시호는 文懿. 改諡는 文簡.

先生<sup>168)</sup>이 주자의 묻는 말에 대답하신 글이다.><sup>169)</sup> 청주 목사 李楨<sup>170)</sup>이 새로 새기고 발을 청하므로 지으셨다. 9월에 체직하여 상호군이 되셨다. 10월에 思政殿에 大寶箴을 써 올리셨다. 11월에 上舍 洪仁祐<sup>171)</sup>의 죽음에 우셨다. 선생께서 남에게 편지하여 이르시기를 “이 사람이 학문이 있고 문장에 능하더니 문득 죽음에 이르니 늘 깊이 탄식하고 아까워한다.”하셨다. 첨지 중추부사가 되셨다. 12월에 重修景福宮記를 지어 올리시니 주상께서 馬을 하사하셨다.

□ 1555년<선생 55세> 2월에 康寧殿에다 七月篇<sup>172)</sup>을 써 올리셨다. 병으로 세 번 사양하여 벼슬을 사직하고 즉시 성 밖에 나가 배를 세내어 동으로 돌아가셨다. 이날 상호군이 되셨다. 첨지 중추부사를 제수하시고 食物을 주시고 諭旨하여 부르시며 서울에 와서 의원에게 보이라고 하심에 글을 올려 사은하시고 소명을 사양하셨으나 주상께서 듣지 않으시고 5월에 다시 부르셨다. 선생께서 돌아오신 후에 李龜壽가 아뢰기를 “이황은 병으로 고향에 돌아간 지가 거의 한 달이나 되었는데도 위에서 알지 못하시니 옛날에 이른바 ‘이전에 등용된 자가 오늘 그 나간 바를 알지 못한다.’<sup>173)</sup>하는 것이 이 경우를 말한 것일 것입니다. 이황은 문장과 操行이 있으나 산야에 恬退<sup>174)</sup>하였으니 이 사람을 숭상하여 권장하시면 선비의 풍습을 북돋워 가다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고 申汝棕이 또 아뢰기를 “서울에 있으면 의원을 찾아가서 약을 쓰기가 편할 것이니 이황을 올라 오게 하십시오.”하였다. 이에 다시 僉知를 제수하고 명하여 부르셨다. 선생께서 글을 올려 사례하는 뜻을 진술하시

168) 李侗(1093~1163). 南宋 性理學者. 자는 愿中, 延平先生이라 불림.

169) 李世澤 補註.

170) 李楨(1512~1571). 조선 문신, 학자. 자는 剛而, 호는 龜巖. 본관은 泗川.

171) 洪仁祐(1515~1554). 조선 학자. 자는 應吉, 호는 恥齋. 본관은 南陽.

172) 『詩經』에 七月篇이 있는데 4시의 농사짓는 풍경을 읊은 시다. 周公이 자기의 선대에서 王業을 일으킬 때에 농사에 힘썼다는 것을 임금에게 알리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173) 『孟子』. 滕文公下. 昔者所進 今日不知其亡也.

174) 명예나 이익에 뜻이 없어 벼슬을 사직함.



고 병이 들었으니 벼슬을 해임해 주시기를 청하셨다. 얼마 후에 鄭惟吉<sup>175)</sup>이 아뢰기를 “이황은 학술과 재주가 있으니 한 시대에 인재는 한정이 있는데 이같은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니 이로 말미암아 두 번 부르실 때 유지에 이르시기를 “그대의 재주가 文翰에 오르고 淸謹한 덕을 갖추었기에 바야흐로 서울에 두고 顧問을 갖추고자 하였는데 어찌 한 병으로 갑자기 향촌으로 물러가시는가? 이제 狀辭와 사례한 箋文<sup>176)</sup>을 보니 내마음이 섭섭하도다. 안심하고 조리하여 늦고 빠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올라오라.” 하셨다. 家廟에 祭하여 恩賜가 계신 것을 고하셨다. 6월에 龔巖께서 별세하셔서 그 집에 가 우시고 행장을 지으셨다. 先妣 김씨·박씨의 墓標를 지으셨다.<선생께서는 박씨에게서 나셨고 김씨는 전의 모친이시다> 겨울에 淸涼山에 들어가서 달이 넘은 후에야 돌아오셨다.<sup>177)</sup>

□ 1556년<선생 56세> 5월에 홍문관 부제학 지제교가 되시고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으로 부르심을 받으셨다. 이전의 좌상 尙震<sup>178)</sup>이 趙士秀<sup>179)</sup>와 같이 경연에서 선생을 부르기를 청하니<sup>180)</sup> 주상께서 御札로써 부르시기를 “그대는 탁월하여 맑고 간결하며 세상에 없는 문장으로 공명을 탐내지 않아 춘향에 한가하게 있으니 그 恬退하는 節을 아름답게 여겨 늘 서울로 돌아올 날을 기다렸으나 내가 어진 사람을 구하는 정성이 없어서 조정에 벼슬하지 않으니 내마음이 缺然하다.<sup>181)</sup> 내 비록 尙文<sup>182)</sup>의 덕이 없으나 그대는 어찌 富春에 숨어 살기를 좋게 여

175) 鄭惟吉(1515~1588). 조선 문신. 자는 吉元. 호는 林塘. 尙德齋. 본관은 東萊.

176) 길흥의 일이 있을 때에 임금에게 아뢰던 四六禮의 글.

177)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一有遊山諸詳.

178) 尙震(1493~1564). 조선 대신. 자는 起夫, 호는 松峴. 泛虛齋. 嚮日堂. 본관은 木川. 시호는 成安.

179) 趙士秀(1502~1558). 조선 문신. 자는 季任, 호는 松岡. 본관은 漢陽. 시호는 文貞.

180)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士秀曰某之爲人可扶頽俗.

181) 서운하다.

182) 文德을 위주로 하는 정치를 숭상함.

기인가?<尙文은 어진 임금이요 부춘은 옛날에 嚴子陵이 숨었던 곳이다><sup>183)</sup>빨리 올라와 베풀하여 내 간절히 구하는 뜻에 응하라.” 하시고 食物을 주시고 얼마 후에 부제학을 제수하고 또 부르셨다.<sup>184)</sup> 6월에 첨지 중추부사를 제수하시고 諭旨를 내려 말씀하시기를 “정과 뜻이 간절하므로 마지못해 따르니 안심하고 병을 조리하라.” 하셨다. 『朱子大全』에 있는 서찰은 다 공경과 대부와 제자들과 아는 사람과 더불어 往還에 따라 묻는 것을 대답하는 말씀으로 선생께서 각각 사람의 材稟의 높고 낮음과 학문의 얕고 깊음을 억제하고 높여주시며 인도하시며 구하신 것이어서 더욱 학자에게 切當<sup>185)</sup>하나 분량이 많아 그 자취를 궁구하기 쉽지 않다고 하시고 학문에 깊이 관계하고 받아쓰기에 적당한 것을 뽑아서 책을 만드시고 이름을 『朱子書節要』라 하셨다. 8월에 族人을 모아 안동땅에 계신 고조 증조의 분묘에 제사 지내셨다. 9월<sup>186)</sup>에 온계에 있는 모든 친척과 더불어 落帽峰<sup>187)</sup>에 오르셨다. 12월에 鄉約<sup>188)</sup>을 초하셨다. 이 때에 나라에서 鄉徒하라고 하시는 명이 계셔서 선생께서 향약을 초하셨으나 다른 일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였다. 『주자서절요』의 서문을 지으셨다.

□ 1557년<선생 57세> 3월에 樹谷菴記를 지으셨다. 수곡은 선생의 선영이 계신 곳이다. 서당의 터를 도산 남쪽에 얻으셨다. 다시 서당터를 얻으시며 느끼신 글 두 수와 다시 도산 남쪽 골에 가서서 보신 글이 있다. 4월에 太紫山에 놀면서 大方洞을 찾으셨다. 7월에 『啓蒙傳疑』란 책을 완성하셨다. 선생께서 지으시니 대강 말씀하시기를 “理와 數의

183) 李世澤 補註.

184)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再上狀辭遞副提學. 編次朱子書節要成.

185) 사리에 꼭 들어맞음.

186) 한문본에는 9월 9일로 기록되어 있다.

187) 晉書 孟嘉傳에 나오는 9월 9일 龍山落帽에서 유래한 名稱.

188) 송나라 藍田 呂氏가 鄉約을 처음 창설하였는데 그것은 鄉村에서 풍속을 교화하기 위하여 실천할 규약을 설정한 것이다. 그 강령은 德業相勸, 禮俗相交, 過失相規, 患難相恤이다. 후세에 이 여씨향약을 모방하여 실행하였는데 강령은 그대로 두고 세밀한 조목은 시대와 지방에 따라 각각 달리하였다.

학문은<이는 주역이요 수는 河圖洛書八卦를 그린 수다.><sup>189)</sup> 넓고 크며 묘하며 궁구하기 쉽지 않으며 혹 세상에 드문 책에서 나온 말이 많으니 반드시 다 상고하고 의논한 후에야 그 뜻을 알 수 있고 깊이 숨은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sup>190)</sup> 더하며 더는 법을 자세히 하지 않을 수 없다. 혹 생각하여 맞음이 있거나 혹 예를 상고하여 증거되는 것이 있으면 좃아가며 가끔 기록하여 상고해 보기를 편리하게 하였다.”하셨다.

□ 1558년<선생 58세> 3월에 滄浪臺를 쌓으시고<후에 天然臺라 고쳤다> 4월에 龍潭에 가 노셨다. 祭酒 禹倬<sup>191)</sup>을 위하여 서원을 오담 위에 짓고자 하여 그 터를 보셨다. 6월에 魚灌圃<sup>192)</sup>의 시집에 跋을 지으셨다.<판본은 魚得江의 별호이다> 윤 7월에 상소하여 致仕하기를 빌었으나 御批<sup>193)</sup>를 내려 허락하지 않으시니 부르심을 입고 서울로 가셨다. 이전 6월에 영의정 沈連源<sup>194)</sup>과 대제학 鄭士龍<sup>195)</sup>이 경연에서 아뢰어 서울의 벼슬을 줄 것과 감사로 하여금 권하여 올려 보내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선생께서 이를 들으시고 상소하여 병이 들어 벼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극진히 진술하셨는데 대강 이르시기를 “신이 비록 무식하오나 어려서부터 임금님을 섬기는 도리를 들어 배웠는데 어찌 말에 명에 매우기를 기다리지 않은 것이<sup>196)</sup> 공순한 것인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구태여 한 구석만을 지켜 모두 옳지 못하다고 하고 의심을 쌓아가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변통할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나아감이 임금을 섬기는 의리에 어긋남이 있을까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189) 李世澤 補註.

190)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傳印之譌有不可不正.

191) 禹倬(1263~1342). 고려 학자. 자는 天章. 卓甫. 호는 易東. 본관은 丹陽. 시호는 文僖.

192) 魚得江(1470~1550). 조선 문신. 자는 子舜. 子游, 호는 灌圃堂. 渾沌山人. 본관은 咸從.

193) 임금이 정사를 처리함.

194) 沈連源(1491~1558)조선 문신. 자는 孟容, 호는 保庵. 본관은 靑松. 시호는 忠惠.

195) 鄭士龍(1491~1570). 조선 문신. 자는 雲卿, 호는 湖陰. 본관은 東萊.

196) 『孟子』公孫丑章句下 禮曰父召無諾君命召不候駕.

의라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에 마땅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것을 숨기고 벼슬을 도적질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병 폐하여 헛 녹만 먹는 것을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헛 이름으로 세상을 속이는 것을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잘못된 것을 알면서 冒諂하여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소임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물러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섯 가지 마땅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조정에 있으면 그 신하된 의에 어떠하겠습니까? 앞드려 원하옵건대 신이 사정에 어둡고 어리석은 것을 살피시고 신의 병이 심한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전의 벼슬로써 田里에 물러가서 허물을 고치며 병을 조리하며 여생을 마치게 해주십시오.” 하시니 주상께서 어찰로 대답하시기를 “이번 상소의 사연을 보니 전후에 물러나는 일을 구하던 일을 기록하여 다섯 가지 마땅하지 못한 것을 진술하면서까지 굳게 고집하니 비록 어진 사람을 얻어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나 어찌 그 뜻을 빼앗겠는가? 내가 실로 덕이 적고 밝지 못하고 그대는 또한 생각이 없어서 도를 지키고 의를 지켜 결단하여 와서 도울 뜻이 없으니 내가 매우 부끄러우니 마땅히 내 뜻을 알라.” 하셨다. 이에 선생께서 명을 받들어 서울로 가시어 9월 그믐달 입성하셨다. 10월에 성균관 대사성을 제수하셨다. 주상께서 선생을 불러 政院<sup>197)</sup>에 나오라고 명하시고 전교하여 말씀하시기를 “학교는 풍속과 교화의 근원인데 퇴폐함이 심하고 士習을 마땅히 길러 바르게 할 것인데도 浮蕩하여 아름답지 않으니 비록 내가 불민하여 고무하여 교화하지 못한 탓이기는 하나 어찌 또한 師長<sup>198)</sup>에게도 관계가 없겠는가? 그대는 글이 능하고 淸謹하여 가르칠 소임에 합당하므로 내가 그대에게 맡기니 나의 지극한 뜻을 본받아 마음을 다하여 부지런히 가르쳐서 학교를 振起<sup>199)</sup>하게 하며 士習을 바르게 하라.” 하시고 貂皮의 귀마개를 주시니 선생께서 아뢰기를 “신이 병이 심하여 전에 두 번이나 이 소임을 맡았으나 다 감당하지

197) 승정원으로 왕명의 出納을 맡던 관아.

198) 스승과 어른. 訓人.

199) 정신을 가다듬어 일으킴. 振作.

못하였는데도 지금 소임을 또 맡게 되니 전같이 감당하지 못할 근심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셨다. 또 명하여 술을 하사하셨다. 11월에는 병으로 사양하시니 갈아 상호군을 제수하셨다. 12월에 어필로 특별히 가선대부 공조참판에 올리셨으나 병으로 사양하셨다.<sup>200)</sup> 다 듣지 않으시므로 그 때에야 마지못해 숙배하시고 힘써 사양하셨으나 듣지 않으셨다.

□ 1559년<선생 59세> 2월에 말미를 얻어 시골로 내려와 焚黃<sup>201)</sup> 하시고 병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상소하여 사직하셨으나 듣지 않으셨다. 이때에 선생께서 분황 때문에 물러나와 돌아가지 않으시니 혹 의심하여 묻는 자가 있음에 선생께서 편지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옛 사람도 매우 부득이 한 것에 이르면 또한 다른 일을 빌어 거취하는 자가 있는데 어찌 임금 섬기는데 성실하지 않아 그러하겠습니까? 싫어하는 것이 가탁하는 것보다 심한 까닭입니다. 더구나 내가 분황으로 말미를 청한 것은 법례를 좇은 것이고 병으로 조정에 돌아가지 못한 까닭에 물러남을 빌었는데 어찌 이것이 일을 가탁하여 성실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과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돌아보건대 사람이 옛 일을 깊이 상고하지 않고 사람을 꾸짖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입니다.” 하셨다. 5월에 또 사직하시니 듣지 않으셨고 7월에 또 사직하시니 주상께서 勉強<sup>202)</sup> 하여 허락하시고 참판으로 같으시고 동지중추부사에 옮기셨고 本道로 하여금 食物을 주라고 하셨다. 黃仲舉의 편지에 대답하여 白鹿洞規集解를 의논하셨는데 이것은 松堂 朴英<sup>203)</sup>이 지은 것이다. 잘못된 것이 있어 선생께서 분변하여 해석하셨다. <仲舉는 錦溪 黃俊良의 字요 백록동규는 주자께서 만드신 백록동서원 규식이요 집해는 박송당이 해석한 글

200)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一再辭三辭.

201) 죽은 후에 벼슬을 받았을 때 官誥의 副本인 누런 종이를 무덤 앞에서 태우는 일.

202) 억지로 시킴.

203) 朴英(1471~1540). 조선 무신. 자는 子實, 호는 松堂. 본관은 密陽. 시호는 文穆.

이다>204)이 伊山書院記를 지으시고 집 이름을 쓰시고 그 서원의 선비를 가르치는 규칙을 정하셨다. 12월에 처음으로 송말과 원과 명의 『理學通錄』을 편찬하셨다. 주자 이후로 도를 공부하는 선비가 매우 많았으나 기록한 것이 흩어져서 각각 나오므로 그 말이며 의논한 것이 같고 다른 것과 옳고 그른 것과 학문의 얇고 깊은 것과 소홀하며 주밀한 것을 다 보지 못하니 학자들이 병으로 여기므로 선생께서 朱子書와 語類와 實記와 史傳과 一通志 등의 책에 의거하여 그 말씀이며 행실이며 사적을 캐어내어 각각 종류대로 분류하여 송나라가 남으로 건너간 뒤부터 원과 명에 이르렀으니 서명은 『이학통록』이라 하시고 그 陸學을 하는 자에게는 기록하여 각별히 外集을 만들어 그 아래 붙이시니 학술이 통일된 것이 있었다.<어류는 주자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요 실기는 주자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요 사전은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기록한 글이요 일 통지는 대명 때의 책 이름이요 학술은 선비의 배우는 법이요 통일은 배우는 일이 정한 곳을 한 데 모아 갈리지 아니한 것이요 육학은 陸象山의 학이 佛家에 가까워 옳은 듯하나 그른 학이요 이학통록이란 말은 이 학하였던 사람을 다 통하여 기록한 책 이름이다>205)

□ 1560년<선생 60세> 정월에 南冥 曹植의 『遊頭流錄』의 跋을 지으셨다.<남명의 성명은 조식이요 유두류록은 남명이 두류산에 遊山하여 기록한 글이니 끝에 의논한 말에 잘못된 것이 있으므로 선생께서 辨正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셨다>206) 11월에 奇高峯에게 답장하여 四端七情을 의논하셨다.<기고봉은 선생의 제자이다. 四端이란 말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타고난 본성이니 인과 의와 예와 지를 말하는 것이다. 理는 性으로 불쌍한 것을 보고 애처롭게 여기는 것은 惻隱한 마음이니 仁으로 동하여 난 끝이요 사나운 것을 보면 부끄러워하며 애처로와하는 것은 羞惡하는 마음이니 義로써 동하여 난 끝이요, 辭讓하는 마음은 禮로써 동하여 난 끝이요 是非하는 마음은 智로써 동하여 난 끝이니 이것

204) 李世澤 補註.

205) 李世澤 補註.

206) 李世澤 補註.

이 四端이다. 기쁜 일을 보면 기뻐하는 것이 喜요 노하는 일을 보면 노하는 것이 怒요 슬픈 일을 보면 슬퍼하는 것이 哀요 두려운 것을 보면 두려워 하는 것의 懼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愛요 싫어하는 것을 보면 싫어하는 마음이 惡요 하고자 하는 마음은 欲이니 이것이 七情이다. 사단과 칠정이 다 마음에 느껴서 동하는 것이나 사단은 理에 붙어 있어 순하고 선하여 악이 없는 것이고 칠정은 氣에 속해서 본래는 선하나 악으로 들기 쉬운 것이다. 선생께서 천명도를 수정하실 때 사단은 이에 붙이시고 칠정은 기에 붙여 도에 올려 놓으셨다><sup>207)</sup> 기대승 명언<기고봉의 자이다>이 그것을 보고 “사단과 칠정은 본래 한 가지 정이니 이와 기로 나누어 속한 것이라고 한 것은 너무 심하고 이와 기가 잘라져 두 가지 物이 되며 칠정이 이에서 나오지 않고 사단은 기를 타지 않는다고 한 말뜻에 병폐가 없지 않습니다.” 하며 선생께 글을 올려 분변함에 선생께서 대답하시니 대강 말씀하시기를 “사단은 정이요 칠정도 또한 정이니 다같이 정인데 어떻게 해서 사단과 칠정의 다른 이름이 있겠는가? 來喩의<기고봉이 편지에 했던 말을 말하는 것이다><sup>208)</sup> 이른바 ‘나아가 말한 바가 같지 않다.’ 한 것입니다. 대개 이와 기는 본래 서로 힘입어 體가 되었고 서로 힘입어 用이 되니 진실로 이가 없는 기는 있지 않으며 기가 없는 이도 있지 않다. 그러나 나아가 말한 바가 같지 않으면 또한 분별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또 性이라는 한 자로써 말하자면<성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sup>209)</sup> 자사께서 말씀하신 하늘이 명하신 것을 성이라 하는 것과 맹자께서 말씀하신 性善의 성이니 이 두 성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와 기를 사람이 타고 나서 하늘이 주신 가운데로 나아가 이 理의 근본이 본래 그러한 곳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가르킨 바가 理에 있고 氣에 있지 않은 것이므로 이것에 말미암아 순선하여 악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理와 氣가 서로 떠나지 못하는 까닭으로 氣를 검하여 말을 한다면

207) 李世澤 補註. 번역본에는 있으나 西厓本에는 나타나지 않음.

208) 李世澤 補註.

209) 李世澤 補註.

이미 이것은 性 본연의 것이 아닐 것이다. 자사와 맹자께서 道體의 전부를 환하게 보심으로써 그 말을 주장하기를 이같이 한 것은 그 하나만 알고 그 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로 기를 섞어 성을 말한다면 성 본래의 어진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程. 張의 諸子에 이르러 부득이 氣質之性이라 하는 의논을 둔 것은 또한 남보다 낮기를 구하여 다른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지적하여 말한 것은 사람이 타고난 후의 것이 있으므로 본연의 그러한 성으로써 섞어서 말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愚妄이 보건대<선생께서 검사하시는 말씀이다><sup>210)</sup> 정이 사단과 칠정으로 나누어짐이 있는 것은 성의 본성과 기품이 다름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하면 성을 이미 이와 기로써 나누어 말할 수 있다면 정에 이르러 홀로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하지 못하겠는가? 측은과 수오와 사양과 시비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인의예지의 성에서 발하여 나오는 것이다. 喜, 怒, 哀, 懼, 愛, 惡, 欲은 어디로부터 발하는가? 그것은 밖의 物이 그 얼굴에 부딪히면 속에서 동하여 지경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사단이 발한 것을 맹자께서 이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마음이란 것은 진실로 이와 기가 합한 것이다. 그러나 지적하여 말한 바가 이를 주재함은 어찌된 것인가? 인의예지의 성이 粹然히 속에 있어 네 가지는 그 끝이다.<수연은 섞은 것이 없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sup>211)</sup> 칠정이 발함을 程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에서 발한 것이라고 하셨고 朱子 또한 말씀하시기를 각각 마땅한 바가 있다고 하신 즉 진실로 또한 이와 기를 겸한 것이다. 그러나 지적하여 말한 것이 기에 있음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외물이 오는 것은 느끼기 쉽고 먼저 움직이는 것은 形氣와 같은 것이 없으니 이 일곱 가지가 그 苗脈이다.<외물은 밖으로서 오는 일을 말하는 것이니 기빠하는데 기빠하고 노한 일 보면 노하는 일곱 가지를 말하는 것이다. 형기는 사람의 얼굴과 기를 말하는 것이요 묘맥은 곡식의 갓 돋아 나는 싹이며 사람의 맥에 비유하

---

210) 李世澤 補註.

211) 李世澤 補註.



여 말한 것이다>212)

사단이 다 어질기 때문에 ‘네 가지의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하며 ‘정은 선이 될 수 있다.’ 하셨고<맹자의 말씀이다>213) 칠정은 본래 선한 것이나 악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그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을 제라 말하고<자사의 말씀이다>214) 한 번 마음이 있고서 능히 살피지 못하면 마음은 벌써 그 바름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하니<주자의 말씀이다>215) 이로 말미암아 보면 이 두 가지는 자주<이 두 가지는 사단과 칠정이다>216) 비록 이와 기의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나 그 좃아온 바에 인하여 각각 주장한 곳을 가리켜 말한다면 어떤 것은 이요 어떤 것은 기라 말하는 것이 어찌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대개 이의 학문은 바르고 미묘한 극치로 반드시 크게 마음을 두며 높은 눈을 붙여 일제히 먼저 한 가지 말로써 주장을 삼지 말고 마음을 비워 기운을 편하게 하여 천천히 그 의에 돌아가는 것을 보아 같은 것 가운데에 나아가 그 다른 것이 있는 줄을 알며 다른 것 가운데에 나아가 그 같음이 있는 줄을 알아 나누어져 둘이라 하여도 그 일찍이 떠나지 않는 것이 문제되지 않고 합의하여 하나라 하여도 실로 서로 섞이지 않는 데에 돌아가 주변<sup>217)</sup>하고 자세하여 일편됨이 없을 것입니다.<일찍이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기가 가운데서 갈라지지 않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요 서로 섞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비록 이기가 합하여 있어 다른 것이 없는 듯하나 그 가운데에 이는 이요 기는 기니 서로 섞이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218) 이제 분별하는 바는 이것과 달라 합하는 것을 좋게 여기고 떠나는 것을 미워하며 渾全한 것을 즐기고 剖析함을 싫어하며<혼전은 하나인데 합하여 혼동이 일어난 것이요

212) 李世澤 補註.

213) 李世澤 補註.

214) 李世澤 補註.

215) 李世澤 補註.

216) 李世澤 補註.

217) 일을 주선하거나 변통하는 능력.

218) 李世澤 補註.

剖析은 갈라 분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219) 사단과 칠정의 좇아온 바를 궁구하지 않고 대체로 이와 기를 겸하며 선과 악이 있다 하여 깊이 분변하여 말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하니 이는 바로220) 羅整庵221) 이<나정암은 大明 때의 선비이다>222) 이와 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한 말을 처음으로 하여 주자의 말씀이 옳지 않다고 하기에 이르렀으나 나는 尋常히 그 뜻을 알지 못했는데 내유에 한 뜻이 또한 이와 같은 줄 생각하지 못했다.<내유는 기고봉 편지의 말이다>223) 무릇 학문을 강구하나 분석함을 싫어하고<분석은 부석이라 하는 말과 같다>224) 합하여 하나라고 하는 말을 옛 사람은 말하기를 鶻圖吞棗225)라 하니 그 병폐가 적지 않다고 하였으니<골륜탄조는 대추를 씹지 않아 그 맛을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226) 이렇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駸駸然히<점점이다>227) 기로써 성을 의논하는 데에 가리워짐에 들어가서 인육<사람의 육심이다>228)을 하늘의 이치로 잘못 아는 근심에 떨어질 것이니 어찌 옳다고 하겠는가? 보내온 편지를 받은 즉시 어리석은 소견을 보내고자 하였으나 그래도 스스로 내 소견이 옳아 의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오래도록 보내지 못하였는데 요즈음 『朱子語類』를 보니<어류는 주자의 말씀을 종류대로 기록한 책이다>229) 맹자의 사단을 의논하신 끝의 한 조목에 정히 일을 의논하시니 그 말씀에 이르시기를 ‘사단은 이것이 理에서 발한 것이요 칠정은 이것이 氣에서 발한 것이다.’ 하였으니 옛 사람이 말하지 않았는가? ‘감히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그 스

219) 李世澤 補註.

220)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遂以理氣爲一物而無所別矣近世.

221) 羅欽順. 명나라의 氣哲學者. 자는 允升. 號는 整菴.

222) 李世澤 補註.

223) 李世澤 補註.

224) 李世澤 補註.

225) 朱熹. 答許順之書.

226) 李世澤 補註.

227) 李世澤 補註.

228) 李世澤 補註.

229) 李世澤 補註.

승을 믿는구나.’ 하였으니 이 주자의 말씀을 얻은 후에야 비야흐로 어리석은 소견이 크게 잘못되지 않은 줄을 믿어 감히 주자의 말씀을 粗述하여 구구히 써 가르침을 청하노라.” 하셨다. 奇明彦이 또 조목 조목 분변하여 의논을 여러 번 왕복함에<sup>230)</sup> 선생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의리를 분석하고 정하고 넓힘이 진실로 마땅하나 돌아보건대 그 의논하는 조건과 끝이 번거러워 잡되고 말씀이 散漫하여 왕왕 임시로 先儒의 말씀을 채취하여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완하여 대답하니 분변하는 말을 하는 것이 과거를 보는 擧子<으뜸 재주><sup>231)</sup>가 場中에 들어가서 글제를 본 후에 옛 사실을 얻어다가 대답하는 자료로 삼는 것과 어찌 다르겠는가? 설사 십분 옳고 마땅하다 하더라도 자기의 몸에는 一毫도 받들어 가까운 것이 없으면서 다만 속절없이 다투는 것이니 聖門에서 크게 금하는 것을 범할 뿐이거늘 하물며 참으로 옳음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로 말미암아 다시 뜻을 일으켜 받들어 대답하기를 전같이 선뜻 하지 않았다.” 하셨다. 그 후에 명언이 전의 소견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 자기의 말을 버리고 선생을 좇아 사단칠정이란 글을 지어 말하기를 “맹자께서 사단을 논하여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단이 나에게 있는 것을 모두 확충할 줄 안다.’고 하였으니 확충할 줄을 알 것이다. 무릇 이 사단을 두고 확충하고자 한 즉 사단이 이 理로 발한 것은 진실로 그러한 것이고 정자가 칠정을 의논하여 말씀하시기를 ‘정이 이미 성하여 더욱 방탕하면 그 성이 상한다. 그러므로 깨달은 자는 그 정을 절약하여 중도에 맞게 하여야 한다.’ 하였으니 무릇 칠정이 성하여 더욱 방탕함으로써 그것을 절약하여 그 중도에 합하고자 한 즉 칠정이 이 氣에서 발한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 일로써 본다면 사단과 칠정이 이와 기로 나누어 속함을 스스로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 일이 한 해의 일이 아니나 분변하여 의논하시던 시말과 나중에 歸宿한 곳을 보는 사람이 알고자 하므로 이에 기록하였다. 도산 서당을 다 지

230)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 : 最後

231) 李世澤 補註.

으셨다. 이로부터 별호를 陶翁이라 하셨다. 집이 삼간이다. 현은 巖栖軒 이요 재는 玩樂齋이다. 精舍는 일곱간이니 이름을 隴雲이라 하셨다. 선생께서 늘 도산에 이르러 항상 안락재에 계실 때에 좌우에 도서를 쌓아 놓고 곱어 읽으시며 우리러 생각하시기를 밤으로써 낮을 이으셨다.<sup>232)</sup> 집이 가난하여 蔬糲<sup>233)</sup>로<속에서의 쌀이다><sup>234)</sup> 겨우 끼니를 이으셨는데 공부하시기를 매우 힘쓰시고 드시는 것이 담박하여 다른 사람이 보기에 감당하지 못하실 것 같았으나 선생께서는 더욱 裕如하신 듯하셨다. 선생께서는 더욱 도의 소견이 친절하시고 나아가시는 바가 더욱 깊어져서 스스로 즐기시며 밖을 사모할 것을 잊으셨기에 비록 궁약한 가운데 계셔도 怡然히<이연은 마음이 평안한 것이다><sup>235)</sup>自得하여 늙음이 이르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sup>236)</sup> 그 후에 학도들이 정사 서쪽에 집을 지어 거처하니 이름을 亦樂이라 하였는데 『논어』의 ‘벗이 먼 곳에서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하는 뜻을 취한 것이다. 12월에 소명을 입으시니 그 때에 天使가 오게 되어서 宋純<sup>237)</sup>과 林億齡 등이 계청함에 인한 것이다.

□ 1561년<선생 61세> 정월에 소명이 내려 서울로 가려 하시다가 마침 낙마하여 병으로 사양하셨다. 이윽고 天使가 오지 않으므로 부름심을 그치셨다. 3월에 節友社를 쓰셨다. 이날 선생께서 溪上에서부터 도산으로 걸어나와 매화를 찾으실 때 시를 지어 이르시기를

꽃은 바위가에 피었는데 봄은 고요하고  
새는 시내 나무에서 우는데 물은 잔잔히 흐르는도다.  
우연히 산 뒷길을 좇아 아이와 갓 쓴 사람을 데리고<sup>238)</sup>

232) 『孟子』. 離婁下 周公 思兼三王 以施四事 其有不會者 仰而得之 夜以繼日 幸而得之 坐以得旦.

233) 나물과 잠곡밥.

234) 李世澤 補註.

235) 李世澤 補註.

236) 『論語』. 述而 子曰女-奚不日其爲人也 發憤忘食 樂以忘憂 不知老之將至云爾.

237) 宋純(1493~1538). 조선 문신. 자는 遂初, 호는 俛仰亭. 企村. 본관은 新平. 시호는 肅定.

한가하게 산 아래에 이르러 考槃<sup>239)</sup>을 보노라.<sup>240)</sup>

<고반은 毛詩에 있는 말이니 근거한 땅을 말하는 것이다><sup>241)</sup> 李德弘<sup>242)</sup>이 묻기를 “이 시는 천지와 상하가 같이 흐르며 만물이 각각 그곳을 얻은 묘함이 있습니다.” 하니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록 그러한 의사는 있으나 미루어 말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하셨다. 4월 既望에 濯纓潭에 가서 배를 타고 달을 보실 때에 형의 아들 ■와 손자 安道와 문인 이덕홍이 같이 갔다. 淸風明月 이 네 자로 운을 나누어 글을 지으시고 前, 後赤壁賦를 읊으시고 밤이 깊어서야 돌아오셨다. 12월<sup>243)</sup> 陶山記를 지으셨다.

□ 1562년<선생 62세> 3월 上巳에<첫 보름날이다.><sup>244)</sup> 도산에 나오셔서 배를 타고 靑溪에 이르러 시내를 임하여 대를 쌓고 이름을 靑溪臺라 하셨다. 李龜巖이 와 뵈고 두어 날을 머물고 감에 선생께서 石礪臺에 가서 송별하셨다. 7월 既望, 16에 風月潭에서 놀아 소동파의 옛 일을 잊고자 하여 아는 벗들과 언약하셨으나 큰 비를 만나 실행하지 못하였다. 두 절귀가 있다.<절귀는 小詩이다><sup>245)</sup>

□ 1563년<선생 63세> 3월에 黃錦溪의 부음이 오니 곡하셨다. 금계의 이름은 俊良이요 자는 仲擧니 글짓는 것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었다. 늦게 다시 성리학에 뜻을 두어 자주 선생을 좇아 의심되는 것을 질정하며 가르침을 청하여 왕래하는 서적이 매우 많았는데 이 때에 星州牧使의 직책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길에서 죽음에 선생께서 매우 애석하게 여기시고 제문을 지어 두 번 사람을 보내어 제하시고 장사지낼 때에는 行狀을 지으셨다. 9월에 왕세자의 장사를 들으시고 도산에 나오셔서 設

238) 『論語』. 先進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239) 『詩經』 고반장에 나오는 말로 은사의 생활을 뜻하는 것이다.

240) 花發巖崖春寂寂 鳥鳴澗樹水潺潺 偶從山後携童冠 閒到山前看考槃.

241) 李世澤 補註.

242) 李德弘(1541~1596). 조선 학자. 자는 宏仲. 호는 良齋. 본관은 永川.

243) 한문본에는 11월로 기록되어 있다.

244) 李世澤 補註.

245) 李世澤 補註.

位하여 예를 행하시고 10월 초 4일에 복을 다하셔서 5일에 除服하셨다.

□ 1564년<선생 64세> 윤 2월에 안동땅에 가서 고,증조묘에 제하시고 族會하셨다. 4월에 제생과 더불어 청량산에서 노셨다. 遊山하여 지으신 글이 있다. 9월에 靜菴 趙선생의 행장을 지으셨다. 心無體用辯을 지으셨다. 宗室에 鍾城승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별호는 蓮坊이었다. 일찍이 徐花潭을 좇더니 이 때에 이르러 심무체용서를 지어 金就礪<sup>246)</sup>를 통하여 선생께 질정함에 선생께서 변경하셨다. 대강 말씀하시기를 “寂과 感으로써 體用이라 하는 것은 주역에 근본하였고 動과 靜으로써 체용이라 하는 것은<sup>247)</sup> 맹자에게 근본하였으니 다 마음의 체며 용이다.<戴記는 예기편명이다. 寂은 고요하고 나즈막한 것을 말하는 것이요 感은 일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動은 感과 같고 靜은 寂과 같다. 성은 마음이 있으나 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정은 성으로써 이미 발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체는 마음의 본체요 용은 마음으로 써 내어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sup>248)</sup> 대개 사람의 한 마음이 六습에 가득하고<육합은 천지와 사방이다><sup>249)</sup> 고금에 뻗쳤으며 幽明에 관통되어 있으며 만사에 투철한 것이나 그 중요한 것은 이 두 자에서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두 자는 체와 용이다><sup>250)</sup> 체용이라 하는 일이 비록 先秦 때의 글에 보이지 않으나<선진은 진나라 이전을 말하는 것이다><sup>251)</sup> 程朱 이래로 모든 선비가 도를 의논하며 마음을 의논함에 이것으로써 주를 삼았으며 강론하고 辯析<sup>252)</sup>하여 오직 밝히지 못할까를 두려워 하셨고 陳北溪의 心說에서<진북계는 옛 선비요 심설은 마음에 옳은 글이다><sup>253)</sup> 더욱 주장하였는데 어찌 일찍이 사람의 마음에 체용이 없다고

246) 金就礪. 명종 때의 학자. 자는 而靜. 호는 靜庵. 潛齋. 본관은 慶州.

247)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 : 本於戴記以未發已發爲體用本於子思以性情爲體用.

248) 李世澤 補註.

249) 李世澤 補註.

250) 李世澤 補註.

251) 李世澤 補註.

252) 옳고 그름을 따져 가림.

말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제 蓮老가 말하기를<연노는 연방이다><sup>254</sup> ‘마음에는 진실로 체용이 있으나 근본을 더듬으면 체용은 없다.’ 하였는데 내가 들으니 정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하나일 뿐이나 체를 가리켜 말한 사람도 있고 용을 가리켜 말한 사람도 있다.’ 하셨으니 이제 이미 체용이 있는 것을 가리켜 마음이라고 한 즉 마음을 말하는 것이 남은 것이 없는데 또 어찌 별도로 체용이 없는 마음이 근본이 되어 마음 이전이 되겠는가? 또 말하기를 ‘동정은 實한 이요 체용은 虛를 말하는 것이니 도와 이는 본래 체용이 없으나 동정으로써 체용을 삼았다.’ 하였는데 내가 생각하건대 도와 이에 동도 있고 정도 있으므로 정 이 한 자를 가리켜 체라 하고 동 이 한 자를 가리켜 용이라 하니 그러한 즉 도리의 동과 정이 실한 것이요 도리의 체와 용도 실한 것이니 또한 어찌 별도로 한 도리가 체용이 없는 것이 근본이 되어 동정의 앞에 있을 수 있겠는가? 또 말하기를 ‘체는 형상 위에서 생긴 것이고<상은 형상이다><sup>255</sup> 용은 또 동 위에서 생겨나는데 어찌 동 이전에 용이 있겠으며 어찌 상 이전에 체가 있겠습니까?’ 하였고 또 邵子의 ‘본래 체가 없다.’ 하는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체가 없는 즉 용이 없는 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내가 생각하건대 체용은 두 가지가 있으니 도리에 나아가 말하는 것은 沖漠無朕<sup>256</sup>한 것이나 만상이 이제 막 생겨나려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이요<충막무진은 혼합하여 정조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만상이 森然已具란 말은 일만 일이 일일히 다 갖추어졌다는 말이다><sup>257</sup> 사물에 나아가 말하는 것은 배가 물에서 가며 수레가 물에서 가니 배와 수레가 물과 물에서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주자께서 呂子約에게 답한 글에 이르기를 ‘형 이상의 것으로 말한다면 충막한 것이 진실로 체가 되고 그 사물 사이에

---

253) 李世澤 補註.

254) 李世澤 補註.

255) 李世澤 補註.

256) 아득하게 형용이 없는 것.

257) 李世澤 補註.

서 발한 것이 용이 되는데 만일 형이하의 것으로 말한다면 사물이 또 체가 되고 그 이가 발하여 보이는 것이 용이 되니 하나로써 형이상의 것을 도의 체라 말하고 천하에 통용된 도가 다섯 도의 용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다섯 도는 부자, 군신, 부부, 형제, 벗이 사귀는 오류도이다><sup>258)</sup> 배와 수레의 형상으로써 체라 하고 물에서 가며 물에서 가는 것으로써 용이라고 한다면 형상 이전에는 체가 없고 동 이전에는 용이 없다고 말하여도 옳겠지만 만일 총막으로서 체라고 한다면 이 체는 형상 이전에 있지 않으며 만상이 이에 갖춘 것을 용이라고 한다면 이 용이 동 이전에 있지 않으니 이것으로써 본다면 蓮老가 말한 체는 형상에서 생겨나고 용은 동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 다만 형이하의 사물의 체용을 말하여 아래에 있는 한 쪽으로 떨어져서 실로 형이상의 총막하여 근심이 없으며 체와 용이 한 근원인 묘한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오직 그 형상의 끝에 치우쳐져서 형상 이전의 체가 없다고 말하였고 소자의 말을 인용하여 증명하였으나 소자가 말한 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다고 말한 것이지 총막한 체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한 것이다. 체를 알기를 원만하게 하지 못한 즉 용을 알기를 원만하게 하지 못한 줄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호라.<탄식하는 말씀이다><sup>259)</sup> 총막하여 조심이 없는 것은 乾坤에 있어서 無極太極의 體가 되어 만상이 이미 갖춘 것이요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는 지극히 허하고 지극히 안정된 체가 되어 일만 가지 용이 다 갖추어진 것이요 그 사물에 있어서는 문득 발하여 보이고 흘러 행하는 용이 되어 때를 좇으며 장소를 좇지 않는 데가 없는 까닭에 程선생께서 이미 체용이 한 근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반드시 나타나며 微한 것이 간격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무릇 체용 이 두 자가 살아 죽은 것이 아니라면 원래가 모든 것을 포괄하여 묘한 것을 궁진하지 못함이 이와 같으니 이것으로써 생각해보건대 어찌 한갓 체자가 형상 위에서 생겨나 형상 이

---

258) 李世澤 補註.

259) 李世澤 補註.



전에는 체가 없다고 말하며 어찌 용자가 동 위에서 생겨나 동 이전에는 용이 없다고 말하겠는가? 그리고 어찌 태극을 성인이 억지로 지으신 이름이라고 하여 체용이 없다고 말하겠는가?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그 간 곳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맹자께서 다만 마음이 周流하고 변화하여 神明不測한 묘를 얻으며 잃기 쉽고 안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바로 이 마음의 용이 사물 사이에서 발하여 보이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니 진실로 마음에 체용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에 어디로부터 이 용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하셨다.

□ 1565년<선생 65세> 4월에 글을 올려 同知中樞府事 벼슬을 해직시켜 주시기를 청하시니 주상께서 좃으시고 전교하시기를 “내가 경을 기다리노라. 자리를 비운지 여러 해 되나 억지로 물러가 한가로이 있기를 구하니 이는 내가 어진 사람을 대접하는 정성이 부족하여 그러한 것이다. 다만 경의 뜻이 깊고 간절하므로 勉從하노라.”하시고 얼마 후에는 本道에 명하여 食物을 주셨다. 은혜를 입어 물러감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여덟 절귀가 있다. 文定王后<sup>260</sup>의 상사를 들으시고 곡하시고 성복하셨다. 敬齋箴圖와 白鹿洞規圖와 名堂室語를 써서 완락재 벽위에 붙이셨다. 8월에 제생과 더불어 啓蒙을 강론하셨다. 景賢錄을 개정하셨다. 龜巖 李公이 기록한 것을 보면 “楨<귀암의 이름이다><sup>261</sup>이 일찍이 寒暄堂<sup>262</sup> 선생의 家範과 行狀과 議得 등 책을 얻어 편찬하여 한 책을 만들었으나 문견이 얕고 좁아 소루하기가 매우 심하였다. 이에 의심되는 것을 퇴계 선생께 취품하여 질정하니 선생께서 義興<sup>263</sup> 金立과 秀才<sup>264</sup> 鄭崑壽<sup>265</sup> 등이 기록한 것을 아울러 취해 參訂하여 결정본을 만드셨

260) 中宗의 繼妃(1501~1565). 성은 尹씨. 본관은 坡平이다. 乙巳년에 明宗을 도와 8년간 垂簾聽政하였다.

261) 李世澤 補註.

262) 金宏弼(1454~1504). 조선 학자. 자는 大猷. 호는 寒暄堂. 蓑翁. 본관은 瑞興. 시호는 文敬.

263) 고을 이름.

264) 선비의 별칭.

265) 鄭崑壽(1538~1602). 조선 문신. 초명은 達. 곤수는 선조의 하사명. 자는

다.” 하였으니 이것이 경현록을 개정한 始末인 까닭에 여기에 붙여 보인다. 12월에 特旨로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민하기 때문에 어진 사람을 좋아하는 정성이 없어 전부터 여러 번 불렀으나 늘 늙고 병든 것으로 사양하니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 경이 나의 지극한 뜻을 받아 속히 올라오라” 하시고, 또 역마타는 것을 허락하시고 다시 중추부사가 되셨다.

□ 1566년<선생 66세> 정월에 소명을 받으시고 서울로 가시다가 榮川에서 辭狀하시고 豊基에 가서 머물면서 왕명을 기다렸으나 주상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교지를 내려 말씀하시기를 “경의 사장을 보니 내 마음이 缺然하다. 사양하지 말고 잘 조리해서 올라와 여러 번 부르는 정성을 저버리지 말라.” 하시고 또 沿路의 각 관에 명하여 호송하게 하고 內醫에게 약을 주어 문병하게 하셨다.<sup>266)</sup> 풍기에서 醴泉으로 가서 또 글을 올려 사면하기를 청하셨다. 주상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資憲大夫 工曹判書 겸 藝文館 提學으로 임명하심에 또 사양하셨다. 선생께서는 승직되었다는 말을 듣고 예천으로부터 鶴駕山 廣興寺로 들어가 3월에 또 글을 올려 아뢰기를 “신이 지난 번 무오(戊午, 1558)년에 조정에 들어가 성균관 장관이 되었으나 병이 이미 심하여 서너달<sup>267)</sup> 동안에 출근 날을 5. 6일<sup>268)</sup> 밖에 채우지 못하였는데도 도리어 명으로 승직시켜 본조참판이 되었으나 두어달 동안 겨우 사흘을 다녔고 한치 만큼의 남은 힘도 없어서 보답할 가망이 없으므로 어쩍정하게 물러나 돌아왔는데 이제 까닭없이 갑자기 승진되니 自古 以來로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옆드려 비옵건대 성상께서는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살펴주시어 신의 해골이나 고향에 가서 묻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지난해 4월 20일의 일처럼 신을 同知指揮에서 직분없는 자리로 두어 주시면 조금이나마 신의 명을 이어 도리를 다하고 죽음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하셨으나 허

汝仁. 호는 栢谷. 慶陰. 朝隱. 본관은 淸州. 初諡는 忠愍. 改諡는 忠翼.

266)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 : 再謝.

267) 한문본에는 二三朔間으로 기록되어 있다.

268) 한문본에는 四·五일로 기록되어 있다.

락하지 않으시고 재촉하여 부르셨다. 선생께서 이미 사장을 올리고 관  
 홍사에서 鳳停寺로 옮겨 또 글을 올려 아뢰기를 “새로 제수하신 벼슬은  
 도리나 자격과 이력으로 보나 받을 만한 이유가 없으며 留連하여 명을  
 기다린 것이 오히려 승직되기를 원하는 뜻이 있는 것 같아 신의 죄가  
 더욱 중합니다.” 하시고 봉정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오셨다. 홍문관 대제  
 학과 예문관 대제학과 성균관사 동지경연 춘추관사를 겸하게 하셨다. 4  
 월에 갈려 지중추부사로 임명되고 또 교지를 내리시어 부르셨다. 사장  
 이 미쳐 주상께 올라가기 전에 문형의 명을 또 내리셨다. 얼마 후에 주  
 상께서 사장을 보시고 선생께서 나올 뜻이 없음을 알고 대신을 불러 의  
 논하시니 대신들이 “六卿은 오래 비워둘 자리가 아니며 대제학은 나라  
 의 글이 나오는 곳이므로 더욱 비울 수 없는 관직이니 가는 것이 마땅  
 할 것입니다.” 하니 주상께서 그 말을 따라 한직을 주라 하시니 지중추  
 로 임명되고 또 교지를 내려 안심하고 조리하면서 병이 차도가 있으면  
 올라오라 하셨다. 7월에 글을 올려 자헌의 加資와 지중추의 직명을 사  
 면하시고 전의 벼슬로 취사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으시고 병의  
 차도가 있으면 올라오라고 명하셨다. 주상께서 선생을 간절히 기다렸는  
 데도 여러 번 사양하고 가지 않으셨으나 주상의 뜻이 더욱 간절하시니  
 현인을 불렀으나 오지 않는 것을 탄식한다라는 것으로 글제를 삼아 독  
 서당 신하들에게 각각 글을 지어 올려라 하시고 또 선생이 계신 도산을  
 그리게 하시고는 礪城君 宋寅을 시켜 지으신 도산기와 雜詠을 그 위에  
 쓰게 하고 병풍을 만들어서 거처하는 곳에 펼쳐놓게 하셨다. 10월에 晦  
 齋 이선생의 행장을 지으시고 그 문집을 교정하셨다. 『心經後論』을 지  
 으셨다. 선생께서 心經을 존중하고 숭상하는 것을 더욱 지극히 하여 四  
 子和 近思錄보다 못지 않다 하였는데 錦溪 黃俊良이 선생께 글을 올려  
 심경을 배척하여 말하기를 “眞西山은 빛만 있고 실하지 않고 范蘭溪<sup>269)</sup>  
 는 지번하여 절당하지 않고 黃慈溪<sup>270)</sup>의 소견은 두 사람에게 비하여 더

269) 范浚. 송나라 선비.

270) 黃幹. 송나라 선비.

욱 떨어지고 程篁墩<sup>271)</sup>은 보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선택한 것이 정하지 못합니다.” 하여 선생께 고쳐 刪定<sup>272)</sup>하시기를 청하니 선생께서 회답에서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변하였고 지금에 이르러 이 논설을 지으시니 “심학에 연원을 천명하였고 異端의 榛荆을 물리친 것이 깊고 간절하여 밝히시고<심학 연원은 심학의 근원이요 이단은 성인의 도가 어진 것이요 진형은 이단이 우리 선비가 정한 길이 가시같다는 말이다><sup>273)</sup> 草廬와 篁墩 두 사람의 말을<초려와 황돈 두 사람은 대명 때의 사람이다><sup>274)</sup> 자세히 그 잘못된 것을 분석하고 그 소장을 없애지 않아 바른 학문의 소맥이 환하게 밝혀져서 다른 갈림길에서 헤매지 않게 하셨으니 그 후세를 위하여 생각한 것이 지극한 것이다.” 하고 선생께서 또 중국의 학술이 틀려 白沙<sup>275)</sup>와 陽明<sup>276)</sup>의<다 禪學하였던 사람이다><sup>277)</sup> 여러 학설이 세상에 성행하고 증자와 주자가 서로 전해 오던 도통이 날로 涇滅해 가는 것을 민망하게 여겨 일찍이 계속 근심하여 깊이 탄식하고 이에 백사의 『詩教』와 양명의 『傳習錄』 등의 책을 다 의논하여 분변하여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셨다. 柳仁仲에게 편지하셔서 『續蒙求』란 책을 의논하셨다.

□ 1567년<선생 67세> 2월에 주상께서 다시 부르셨다. 嘉靖皇帝<sup>278)</sup>께서 崩御<sup>279)</sup>하시고 새 황제께서 즉위하시므로 天使<sup>280)</sup>가 오게 되었기에 대신 李浚慶<sup>281)</sup> 등이 아뢰어 문학하는 선비를 불러 모아 그

271) 程敏政. 명나라 선비.

272) 글의 字句를 깎을 것을 깎아 잘 정리함.

273) 李世澤 補註.

274) 李世澤 補註.

275) 陳獻章. 명나라 선비.

276) 王守仁. 명나라의 철학자.

277) 李世澤 補註.

278) 명의 11대 황제 世宗.

279) 한 나라의 왕이 세상을 떠남. 昇遐, 晏駕.

280) 천자의 사신을 제후의 나라에서 일컫는 말. 여기서는 명나라 사신.

281) 李浚慶(1499~1572). 자는 原吉, 호는 東阜. 1558년 우의정, 1560년 좌의정, 1565년에 영의정에 올랐다. 1567년 明宗이 즉자 교지를 받들어

들로 하여금 天使를 대접하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갑  
 命이 또 내렸다. 주상께서 5월에 諭旨<sup>282)</sup>를 내려 올라오기를 재촉하시  
 므로 6월에 서울로 올라가셨다. 明宗<sup>283)</sup>께서 승하하셨다. 선생께서 서  
 울에 올라가신지 사흘만에 병으로 미처 肅拜<sup>284)</sup>를 드리지 못하고 계시  
 다가 변을 들으시고 烏紗帽와 黑角帶를 하고 대궐에 나아가 곡을 하셨  
 다. 7월에 大行王<sup>285)</sup>의 行狀 修撰廳의 堂上官<sup>286)</sup>이 되시어 행장을 지  
 으셨다. 禮曹判書 兼 同知經筵春秋館事를 제수받고 두 번을 사양하셨으  
 나 주상께서는 듣지 않으셨다.

8월에 병으로 벼슬을 그만두시고 즉시 東으로 돌아오셨다.

9월에 大行王의 挽詞<sup>287)</sup>를 지어 올리셨는데 五言排律 이십운(韻)의  
 서문에 말한 대략을 들면 “6월 25일에 臣이 서울에 들어와서 26일에야  
 비로소 주상께서 편안치 못함을 들었는데 27일에 大漸<sup>288)</sup>하여<병세가  
 위중하시다는 말이다><sup>289)</sup> 28일에 宮車晏駕<sup>290)</sup>하시니 신은 서울 오는  
 길에 병이 심하여져서 미처 拜命<sup>291)</sup>치 못하고 갑자기 큰 변을 만나게  
 되어 우리러 통곡하니 오장의 끝이 헐리고 天使 맞을 준비로 분주하여  
 과로해서 몸이 상하고 천한 병이 매우 깊어 심한 데까지 이르렀는데 마  
 침 春館<sup>292)</sup>의 명이 있어서<춘관은 禮曹이다><sup>293)</sup> 하루도 소임을 수행

---

宣祖를 영립하였다.

282) 임금의 명령서

283) 조선왕조 제 13대 왕(1532~67, 재위 : 1546~67). 휘는 暲, 자는 對陽.

284) 서울을 떠나 임지로 가는 관원이 임금에게 작별을 아뢰는 일.

285) 죽은 뒤 시호를 받기 전에 있는 임금. 여기서는 明宗.

286) 당상인 관원. 당상은 문관은 정3품 明善大夫, 奉順大夫, 通政大夫 이상, 무  
 관은 정3품 折衝將軍 이상의 벼슬 階梯.

287) 죽은 이를 슬퍼하여 지은 글로 장사지낼 때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서 旗를 만  
 들어 상여 뒤에 따르게 하였다.

288) 임금의 병세가 위중함.

289) 李世澤 補註.

290) 왕이 세상을 떠남.

291) 명령이나 임명을 삼가 받음.

292) 禮曹를 예스럽게 이르는 말.

293) 李世澤 補註.

하지 못하고 사면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前朝에 병이 들어 물러간 신하로서 뒤를 이으신 왕께서 새로 정치를 시작하심에 은혜로운 명령을 저버리기를 이와같이 하니 신하로서의 의리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지라. 만일 다시 因循<sup>294</sup>하여 가지 않고 소임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자리만 차지하며 녹을 먹다 죽으면<소임은 수행하지 못하면서 벼슬만 尸童 같이 지낸다는 말이다><sup>295</sup> 수십 년을 괴롭게 사양하여 물러나기를 빌던 의리가 어디에 있으며 致仕<sup>296</sup>와 해골의 보존을 청하는 것을 다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벼슬이 바뀌는 틈을 타 몸을 빼서 돌아오니 이것은 진실로 부득이한 일이며 또 이미 하였던 일입니다. 신이 서울에 있을 때 들으니 군신으로 하여금 각각 挽詞를 지어올리라고 하신다 함에 신이 병든 탓으로 소견이 아득하고 어두워져서 짓지 못할 것 같았으나 죽지 못한 날들의 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여 겨우 한편의 挽詞를 지어 사람에게 부쳐 서울로 올려보내 죄스러움을 무릅쓰고 都監<sup>297</sup>에 바쳤습니다만 신이 山陵<sup>298</sup>을 마치지도 아니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많은 지탄을 받는 중에 있으니 받아 줄런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시고, 그 시에

벼슬을 명하시면 벼슬에서 지켜야 할 것을 잃었고  
 녹(祿)을 말하면 녹이 오히려 과하다.  
 옛 의리는 마땅히 빨리 가는 것 같고  
 지금의 정은 깊이 꾸짖음이 있구나.  
 의리와 정은 같이 있기 어려우니  
 지금과 예전의 다름을 어찌알까.<sup>299</sup>

294) 내키지 않아 머뭇거림.

295) 李世澤 補註.

296) 나이가 많아 벼슬을 내어놓고 물러남. 조선 때에는 堂上官으로 치사하는 경우 예조에서 매달 고기와 술을 급여하였으며 국가의 중대한 정사로 인하여 치사하지 못하는 70세 이상된 1품관에게는 几와 杖을 하사하였다.

297) 국장이나 국혼 등 그 밖의 큰 국사가 있을 때에 임시로 베풀어지던 관청.

298) 임금의 무덤. 因山전에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아니한 새능.

299) 命官官失守 言祿祿仍奢 古義當過去 今情峻訶 義情難并處 今古奈殊何

하는 글귀가 있다.

18일에 龍壽寺에 계셨다. 19일이 大行王의 發靱날이므로 집에 계시기가 편치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奇明彦<sup>300</sup>의 편지에 회답하셨다. 선생이 물러나 돌아오신 것이 山陵의 일을 마치기 이전이라 하여 이 때의 여론이 분분하였기에 奇明彦이 편지를 보내어 물으므로 선생께서 회답하셨다는데 대략 말씀하시기를 “因山<sup>301</sup>이 참담하고 欽衛<sup>302</sup>가 임하여 있으니<欽衛는 나라 상여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sup>303</sup> 일백 관원들이 따라가며 붙잡고 애통해 하는데 병든 신하는 길이 없어 예절에 와서 의지하고 있다가 마침 편지가 와서 옛 의리로써 책망을 하니 부끄러워 죽을 지경인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의 사람됨이 또한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처신함이 또한 어렵게 되었으니 어찌된 까닭이겠습니까? 크게 어리석고 심한 병이 든 탓이며 헛된 명성 때문이며 잘못 입은 은혜 때문입니다. 크게 어리석으면서 거짓된 명성을 받아들이고자 한 즉 망령된 것이 될 것이고 심한 병이 들어서 잘못된 은혜를 입고자 한 즉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망령된 짓을 행하면 덕과 의리는 상서롭지 못한 것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吉하지 못하고 나라에 있어서는 害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벼슬을 즐겨하지 않으며 떳떳이 몸이 물러나고자 하는 것이 어찌 다른 까닭이 있어서 이겠습니까? 옛날의 군자는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을 분명히 알아 한 가지 일도 지나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벼슬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즉 비록 크게 참지 못할 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물러나기를 버리지 않은 것

300) 奇大升(1527~1572)의 자. 조선조 宣祖 때의 성리학자로 호는 高峰이며 幸州人이다. 退溪와 성리학에 관한 문답을 하여 더욱 학설을 명확하게 하였다. 선조조에 大司諫이 되어 혁신적인 정치를 하고자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벼슬을 그만두었다. 시호는 文憲.

301) 太上皇 및 그 妃, 임금과 그 妃, 황태자 부부, 황태손 부부의 장례. 국장.

302) 欽은 수레 즉 靈輿이며 衛는 영거를 護衛하는 사람들.

303) 李世澤 補註.

은 어찌 몸을 바치는 마당에 의리를 행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몸이 물러난 후에야 그 의리를 좇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때를 당하여 비록 크게 참지 못할 정이 있으나 의리에 굽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부득이하야 그러한 것입니다. 道가 같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고 도가 같지 않은 사람은 일천 말을 하여도 알지 못하니 제 몸이 堂 위에 있어야 바야흐로 堂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데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대의 뜻이 어느 것이 옳으며 어느 것이 그르며 어느 것을 취하며 어느 것을 버릴 것인지를 말입니다. 수고롭겠지만 가르쳐 주시길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다.

10월에 龍驤衛大護軍 兼 同知經筵春秋館事를 제수 받으셔서 부르심을 받으셨다. 諭旨에 이르시기를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어지럽혀지는 것은 임금의 덕에 달려있고 임금의 덕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진 사람을 존경하며 학문을 강구하는데 있으므로 經筵에 부지런히 나아가 날마다 어진 선비와 서로 만나 마음과 지혜를 높고 밝게한 후에야 그 사람됨이 어질며 사특한지를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經筵에 모실 만한 사람이 멀리 있으면 마땅히 그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하여 經筵의 所任을 맡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경이 내려갈 때에 마침 과인이 皇 皇罔極한 가운데 있어서 미처 살피지 못하였으나 이제 새롭게 정사를 보려함에 沈滯<sup>304</sup>하였던 사람들을 모두 발탁하여 쓰고자 하는데 하물며 어진 재상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경은 역마를 타고 빨리 서울로 올라오라.” 하셨다. 大司諫<sup>305</sup> 睦詹<sup>306</sup>이 아뢰기를 “李滉은 학문에 있어 해박하고 공부를 돈독히 하니 마땅히 教旨<sup>307</sup>를 내려

304) 오래도록 벼슬에 오르지 아니함.

305) 조선시대 司諫院의 최고직으로 임금에게 충간하는 일을 맡아 보았다. 大司諫은 정3품 한 명을 두었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아 보았다.

306) 睦詹(1516~1593). 자는 思可. 호는 逗日堂. 1546년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참의를 거쳐 충청감사로 있다가 대사간 이조참판을 역임했다.

307) 임금의 傳旨, 王旨.



불러서 經筵에 두시면 반드시 聖學을 펴는 것을 돕고 인도하는 공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召命을 내리셨다. 同知中樞府事<sup>308</sup>를 제수받으셨고 겸직은 예전과 같았다.

辭狀<sup>309</sup>을 올려 召命을 거두시고 講職을 맡아주시고<講職은 經筵에서 강의하는 벼슬이다><sup>310</sup> 禮法에 의하여 致仕하게하여 주시기를 청하셨다.

知中樞府事<sup>311</sup>로 직무를 바꾸시고 겸직은 예전대로 하시고 또 敎書<sup>312</sup>로써 특별히 부르셨다. 許曄<sup>313</sup>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帝王이 어진 스승을 얻어서 배운 후에야 事業이 높이 돋어나니 李滉이 병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만일 주상께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禮를 다해 스승으로 삼고자 하신다면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 주상께서 말을 좇아서 선생과 曹植<sup>314</sup>과 李恒<sup>315</sup>을 똑같이 敎書로써 특별히 부르셨는데 이윽고 날씨가 추워 올라오지 못할까하여 “더디고 빠름에 구애받지 말고 따뜻할 때를 기다려 평안히 올라오라.” 하셨다.

12월에 교지를 내려 빨리 올라올 것을 재촉하셨는데 天使가 장차 오게 될 것이므로 應接할 일이 급하였기 때문이었다.

□ 1568년 정월에 상소하여 自劾<sup>316</sup>하시고<自劾은 스스로를 탄핵한

308) 中樞府의 종2품 벼슬. 중추부는 처음에 왕명의 出納, 宿衛, 軍機를 맡았다가 세조 때에 일정한 사무없이 현직이 없는 堂上官의 벼슬자리로 되었다.

309) 사직서

310) 李世澤 補註.

311) 中樞院의 종2품 벼슬.

312) 임금이 내리는 훈시의 글.

313) 許曄(1517~1580). 자는 太輝이며 호는 草堂. 1562년 과거되었다가 1568년 進賀副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大司諫에 올라 향약의 시행을 건의하였다.

314) 曹植(1501~1570). 자는 樵中이며 호는 南冥. 昌寧人으로 세상에 나오지 않고 두류산의 山天齋에서 성리학의 연구와 후진양성에 전념하여 명망이 높았다.

315) 李恒(1499~1576). 자는 恒之이며 호는 一齊로 星州人이다. 30세에 학문을 시작하여 朴莢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성리학에 전심하여 조선왕조 중기의 대학자로 불리었다. 1566년 義盈庫令에 이어 掌令, 掌樂院正을 역임했다.

316) 자기의 죄상을 스스로 탄핵함.

다는 말이다><sup>317)</sup> 다시 致仕할 것을 빌으시고 召命을 사양하시는 辭狀을 올리셨다. 疏에 대략 말씀하시기를 “신이 듣자오니 聖帝明王<sup>318)</sup> 중에서 어진 사람을 존경하는 선비를 등용하는 것에 힘쓰지 아니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른바 어진 선비로서 반드시 모두 바른 사람을 얻어서 진실로 그 실지를 취하였던 것이니, 만일 한갓 어진 사람을 좋게 여기는 뜻과 어진 일을 즐겨하는 정성은 갖고 있으나 사람 알기가 어려운 줄을 생각하지 않으며 사람의 그릇이 어떠한지도 묻지 않고 재주도 없고 덕도 없는 사람을 잘못 불러서 받아들이기를 부지런히 할 뿐만 아니라, 거짓 이름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선비를 갑자기 어진 사람으로 존경하고 예를 받게 하시면 이는 굽은 것을 들어서 곧은 것을 버리는 것과 같아서 많은 백성이 복종하지 않을 것이며,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섞이어 나라의 政事가 날로 흐트러질 것입니다. 신이 先朝 때에 여러 번 선왕께서 내리신 召命을 받았었는데 그 중 앞서 세 번 부르실 때에는 다만 벼슬의 品階가 낮아 별달리 嫌疑<sup>319)</sup>될 것이 없었기에 신이 명을 받고 즉시 행함에 일찍이 의심하고 주저하여 나아가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그 후의 두 번 부르실 적에는 한 번은 장차 벼슬의 品階를 올려서 중한 책임을 맡기시려 하시며 또 한 번은 이미 品階를 올려서 중한 소임을 주시므로 신이 區區<sup>320)</sup>하고 위태롭다는 생각에 극력히 사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해에 서울로 들어가서 망극한 변<국상><sup>321)</sup>을 만나고 천한 병이 갑자기 더욱 심하여져서 능히 소임을 행하지 못하고 義理를 이미 펴지 못하였기 때문에 홀로 몸이 물러나는 것만이 의리에 的然<sup>322)</sup>하고 매우 분명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山陵이 바로 있었으나<山陵은 國葬이다><sup>323)</sup> 능

317) 李世澤 補註.

318) 덕이 높고 지혜가 밝은 임금.

319) 꺼리어서 싫어함. 의심.

320) 잘고 용렬함.

321) 李世澤 補註.

322) 확실히 그러하다. 확실하다.

323) 李世澤 補註.

히 머물러 기다리지 못하고 경솔히 질러 돌아오니 이것은 또한 理가 극에 달하고 의리가 변한 것으로 부득이 나온 것인데 한 때의 物情이 모두 괴이하게 여겨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명예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거짓 병이다.’고 말하고 혹은 산짐승에게 비유하기도 하고 혹은 指斥<sup>324</sup>)하여 이단이라고 하니 이것은 신이 신하로서의 도리를 잃었기 때문에 그 때의 어진 사람들에게서 큰 죄를 얻은 것인데 다시 무슨 도리로써 주상께서 권고하시는 뜻을 받들어 이 시대의 쓰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원하옵건대 虞人이 이르지 않은 죄를 너그러이 보아주시며 先王의 사람 물리친 禮를 詳考하셔서 잘못 내리신 有旨를 도로 거두시고 이것으로 인해 召命을 파하시고 致仕하는 법전을 다시 거행하여 신의 목숨을 들어 비는 청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셨다.<虞人은 산을 지키는 천한 소임을 맡은 이로 齊나라 경공이 사냥하려 할 때 虞人을 부름을 大夫(大夫)의 禮로써 하거늘 虞人<sup>325</sup>)이 감당하지 못하여 가지 아니하였는데 孔子께서 옳다고 하셨다.<sup>326</sup> ‘先王은 옛 어진 임금으로 옛 어진 사람 부름을 禮로써 하였다.’는 말이 있다>

崇政大夫<sup>327</sup>)로 승진시 議政府右贊成<sup>328</sup>)으로 제수하시고 諭旨를 내려 빨리 올라오라고 재촉하셨다. 선생의 상소가 미처 주상께 올라가지 못하였는데 주상께서 또 대신들에게 이르시기를 “李滉을 軍職에 있게 하는 것은 尊賢하는 도리에 족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가히 특별히 贊成<sup>329</sup>)을 제수하고 다시 일러서 올라오게 하라.” 하시며 이러한 벼슬을 주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야 상소가 주상께 들어가니 주상께서 친히 批答<sup>330</sup>)하여 말씀하시기를 “卿의 상소에 담긴 글을 보니 謙謹<sup>331</sup>)하여

324) 옷 어른의 언행을 지적하여 탓함.

325) 경험이 많고 숙달된 사냥꾼.

326) 孟子 萬章下.

327) 종1품 文武官의 품계.

328) 조선왕조 議政府의 종1품 문관 벼슬. 의정부는 당시 조선왕조 행정부의 최고기관이었다.

329) 의정부의 종1품 벼슬. 좌찬성, 우찬성이 있음.

330) 상소에 대한 임금의 下答.

사양하는 것이 지나치도다. 卿이 累朝<sup>332)</sup>의 옛 신할 德과 행실이 높고 학문이 바른 것을 비록 閭巷사람이라 한들 어느 누가 모르겠는가? 나 또한 그대의 명성을 들은 지 오래되었노라. 卿이 先朝때에 여러 번 부름을 받고 서울로 들어왔고 말년에 이르러서도 또한 都下<sup>333)</sup>에 이르렀으나 불의의 망극한 변을 만나 갑자기 도로 돌아가니 이는 반드시 新政이 도리를 잇고 尊賢하는 것을 정성으로 하지 않은 연고이라. 나의 누우치고 한스러워함을 가히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 人君은 비록 밝고 어질어도 반드시 어진 사람을 구하여 스승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나는 어려서부터 엄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서 갑자기 어렵고 큰 덕을 이었으니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慈殿<sup>334)</sup>께서도 역시 말씀하시되 ‘내가 지식이 없고 더구나 망극한 가운데에 있으니 내가 어찌 주상을 가르쳐 인도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李滉 같은 이가 있는 것이 좋을 것이오.’ 하시며 항상 卿이 올라오기를 바라시니 慈殿의 뜻이 이렇듯이 간절하신데에도 卿이 즐겨 올라오지 않는 것은 卿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에 이르러 조정에 비록 나이가 많고 德이 있는 사람이 많으나 내가 卿을 바라는 것을 또한 복두성과 같이 하니 卿은 모름지기 進退로써 嫌疑를 삼지 말고 올라와 병을 降仍<sup>335)</sup>하고 조정에 머물러서 나의 憂末한 기질을 도우라.” 하셨다. 3월에 또 상소하여 새로 올리신 벼슬을 사양하시고 “전의 벼슬로 致仕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비셨으나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시 教書를 내려 올라오라 재촉하시거늘 또 사양하셨다. 疏에 대략 말씀하시기를 “臣이 지난 해 10월부터 금년 2월 그믐에 이르는 동안 무릇 7번이나 聖旨를 받았으니 모두 불려 벼슬을 제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臣은 극히 無狀하여<sup>336)</sup> 죽히 주상께서 간

---

331) 겸손하고 삼감.

332) 累代, 즉 여러 대의 조정.

333) 서울 안.

334) 임금의 어머니.

335) 부득이 그대로 함.

336) 내세울 만한 공이나 선행이 없음. 또는 예의가 없음.

절하게 바라시는 것을 막으며 밝은 뜻에 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늘 한 번 명을 내리실 때마다 곧 붉은 정성을 드러내어 엎드려 疏를 올려 벼슬을 갈아 주시기를 빌었으나 정성이 주상께 통하지 않아 허락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내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개 천하에 있는 인재의 품은 큰 것도 있으며 작은 것도 있으니 큰 것을 가히 작은 것으로 삼지 못하며 작은 것을 가히 큰 것으로 삼지 못하는 것입니다. 先王께서는 그것이 그러한 줄을 알았기 때문에 벼슬주기를 각각 그 才品에 따라 큰 재주를 가진 이에게는 큰 소임을 주시며 작은 재주를 가진 이에게는 작은 소임을 주어 일찍이 분에 넘쳐 지나치게 주지 않으시니 어찌 人君이 사람 쓰는 것에만 이러했겠습니까? 신하로서 나아가 세상에 쓰이는 자는 그 능하며 능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헤아려 보지도 않고 나아간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옛 사람이 이르기를 ‘헤아린 후에 들어가고 들어간 후에 헤아리지 말라.’ 하였습니다. 臣이 지극히 어리석고 비루한 자질로써 여러 해 동안 沈痼<sup>337)</sup>한 병이 들어서 농사를 지으러 돌아가 힘껏 일해 먹고 살며 본래 타고난 본분을 지켜 예전에 논란이 되던 죄를 면하고자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거짓 이름을 더 얻게 되어 先朝께서 잘못된 은혜를 더 자주 내리시게 된 것은 뜻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臣은 이에 바야흐로 본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 쉬고자 하였거늘 조정에서는 그 사양하는 것으로 인해 발탁하여 품계를 올려주셨고 신은 또 승진된 것을 힘써 사양하거늘 조정에서는 올리신 것을 또 올리시니 공로로써 말하면 한 가닥의 털끝 만큼도 나타난 것이 없는데 벼슬로 말한다면 높다랗게 六卿<sup>338)</sup>의 줄에 있는지라 이는 古今天下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며 신의 큰 허물이 되는 것이니 굽어보며 우러러보니 부끄럽고 두려워 어떻게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九五의 용이 날고<sup>339)</sup> 만물이 모두 우러러 보는지라 어진 사람을 좋게 여기시며 어진 일을 즐겨하시는 것이 至誠에서 나오셨거늘 所見固滯<sup>340)</sup>한 신하가 있어 외람

337) 오랫동안 낫지 않고 고치기 어려운 병.

338) 육조판서의 雅稱.

339) 龍飛九五. 새로 제왕의 위에 오른 것을 말하는 것이다. (周易乾卦九五爻)

되게 臣의 이름을 들어 과장되게 表裝<sup>341</sup>)하고 의논하여 천거하여서 자리가 평안치 못하여 어진 사람을 구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잘못되게 하고 신을 부르시는 것이며 다만 신에게 명하신 것이 거둬되어 성하며 무거우니 모두 臣이 받들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臣은 바야흐로 또 疏를 펴서 스스로 죄를 청하여 벼슬을 갈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위하였는데 그 疏가 미처 올라가지 못한 동안에 또 특별히 贊成으로 벼슬을 올려주시는 명이 계시니 신이 일찍이 벼슬을 사양하기를 원했던 뜻에 비해 보면 그 가볍고 중한 것과 크며 작은 것과 능히 감당하며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엿드려 비읍건대 억지로라도 軫念<sup>342</sup>)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덕의 소리를 渙發<sup>343</sup>)하여 전에 冒諂하여 받은 벼슬을 비록 모두 갈아주시기를 바라지는 못하나 이번에 새로 주신 높은 品階와 벼슬과 經筵官<sup>344</sup>)을 兼帶<sup>345</sup>)하게 하신 것을 빨리 도로 명하여 거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敎書를 내려 간절히 타이르시고 또 各道の 監司<sup>346</sup>)에게 명을 내려 "수로와 육로에서 가마나 말과 배로써 호송하라." 하시거늘 선생께서 또 글을 올려 높은 品階를 힘써 사양하셨다. 그 때에 天使가 돌아간 후에 모든 신하들에게 비단과 향을 나누어 주셨는데 이에 선생께서도 참여하시게 되었으나 선생께서는 아뢰시기를 "이것은 조정이 皇恩을 공경하여 받들어 조정에 있는 신하들과 더불어 아름답게 같이 하실 일로서 臣은 贊成의 벼슬을 명하신 것을 받들지 못하였는데도 그 벼슬을 일컬어 물건을 내려주시니 진실로 祉受<sup>347</sup>)하기 어려우며 또 몸이 멀리 서울 밖에 있어 天使가 돌아갈 때까지

340) 사물의 보고 살펴어 인식하는 생각이 고집스럽고 좁음.

341) 꾸며 만들.

342) 귀한 사람이 아랫사람의 형편을 살펴줌.

343) 임금의 명령을 널리 선포함.

344) 경연에 참여하는 관원.

345) 두 가지 일을 겸하여 봄.

346) 관찰사. 外官職 문관의 중2품 벼슬. 각도의 首職, 軍政, 財政을 통할하여 관하의 수령을 지휘 감독함.

347) 임금의 下賜를 받음.

지 한 가지도 해드린 일이 없는데도 모든 신하들과 똑같이 물건을 내려 주시는 것은 감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시고 모두 사양하여 받지 않으셨다.

5월에 贊成을 갈고 判中樞府事로 부르셨다. 선생께서 힘써 새 명을 사양하시니 조정에서는 억지로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經筵에서 知中樞府事를 내려 주셨는데 또 지성으로 부르시면 마땅히 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청하는 이가 있어 이에 贊成을 갈아 判中樞府事를 제수하시고 諭旨를 내려 말씀하시기를 “내 조그마한 몸으로 민간에서 나고 자라 들어와서 大統을 받들어 臨御<sup>348</sup>)하였기 때문에 즉위한 이래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어진 덕이 있는 선비를 모아서 내가 미치지 못한 일을 보충할까 생각하였다. 卿은 본래 성품이 冲澹<sup>349</sup>)하고 마음 두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純一하고 밝아 한가한 곳에 있어 安靜<sup>350</sup>)함을 지켜서 선비의 학문에 潛心<sup>351</sup>)하니 또한 진심을 쌓고 힘쓴 것이 오래라. 그 의리와 性命<sup>352</sup>)이 깊은 것과<性命은 사람이 타고난 성이고 命은 하늘이 주신 명이다><sup>353</sup>) 理를 궁구하여 지극함에 다다르며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요점을 반드시 脫然히 알고 깨달아 洞然히 나아가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經筵의 위에 두고 그 의리와 법도를 보며 의견을 들으면 즉시 나의 어리석으며 어두운 것을 없게 하고 나의 마음과 지혜를 키워낼 수 있을 것이므로 여러 번 부름을 다 지극한 정성으로 하였는데도 끝내 일어나 나올 뜻이 없으니 내가 심히 缺然<sup>354</sup>)하다. 지난 번에 卿에게 右贊成의 벼슬을 준 것은 내가 卿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고 卿에게 바라는 것을 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요, 모든 의견의 공정함을 좇아한 것이거늘 卿은 도리어 이 일로써 嫌疑로 여겨

348) 임금의 자리에 임함.

349) 성질이 맑고 깨끗함.

350) 마음과 정신이 편안하고 고요함.

351) 마음을 가라앉히어 깊이 생각함.

352) 人性과 天命

353) 李世澤 補註.

354) 모자라 서운함.

물러가 사양하기에 더욱 힘쓰니 내가 경을 褒獎<sup>355</sup>하려는 것이 다만 죽히 卿을 막는 것이 되었구나. 이미 명하여 갈았으니 경이 다시 무엇을 嫌疑로 여길 것이 있는가. 예전에 先王께서는 卿을 寵眷하여 남달리 높게 대접을 하신 것이 가히 지극하다 할 수 있었다. 諸葛武侯<sup>356</sup>께서 말씀하시기를 ‘先帝께서 남다른 대접을 하신 것을 좇아 폐하께 갓고자 합니다.’ 하셨으니 卿이 진실로 先王을 잊고 나를 버리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할 것이니 卿은 이것을 생각하여 가히 평안하게 있으면서 더디게 오지는 말라.” 하셨다.

6월에 명을 받들어 서울로 가셨는데 가시는 길에 연이어 글을 올려 높은 職品을 사양하고 모두 갈아주시기를 빌었으나 주상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셨다. 선생께서 벼슬이 갈렸다는 명을 받으시고 즉시 글을 올려 謝禮하여 말씀하시기를 “미천한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특명으로 贊成 벼슬을 갈아주셨으니 聖眷이 이에 이르셨는데 어찌 값을 것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臣이 마땅히 병으로 부축받아 나아가더라도 恩命을 謝禮해야 할 것이나 다만 一品의 외람된 品階는 끝까지 그대로 받을 이유가 없으니 바라옵건대 벼슬을 모두 갈아주시는 큰 은혜를 베푸소서.” 하시고 聞慶에 가서서 다시 글을 올려 사양하시고 忠州에 가서서 또 글을 올려 힘써 사양하셨으나 주상께서는 모두 허락하지 않으시고 辭狀 중에 길에서 병이 났다는 말이 있다 하여 內醫를 보내어 달러가서 돌보라고 하셨다.

7월 병인(丙寅, 19)일에 서울로 들어가시니 도성 사람들이 서로 전하여 말하되 李貳相<sup>357</sup>께서 오셨다고 하였다. 신미(辛未, 24)일에 대궐로 나아가 肅拜를 드리고 召命을 받고도 오는 것을 더디 하였으므로

355) 칭찬하여 장려함.

356) 諸葛亮(181~234)을 시호로 일컫는 말. 제갈량은 중국 삼국시대 蜀漢의 정치가. 자는 孔明. 空前의 전략가로 劉備의 三頭之禮에 감격, 그를 도와 뿔과 연합하여 曹操의 魏軍을 赤壁에서 대파하고 巴蜀을 얻어 蜀漢國을 세우고 유비가 帝位에 오르자 丞相이 되었음.

357) 三政丞 다음 가는 벼슬이란 뜻으로 左右贊成을 일컫는 말.



待罪하셨는데 전교하여 말씀하시기를 “待罪하지 말라. 이제 내가 卿을 얻으니 이는 실로 나라의 복이로다.” 하셨다. 또 선생께서 높은 品階를 개정하여 주시기를 아뢰었으나 허락하지 않으셨다. 임신(壬申, 25)일에思政殿에 들어가 뵙고 친히 진술하여 힘써 사양하였으나 듣지 않으셨다.

8월에 弘文館副提學<sup>358</sup>을 겸하게 하시거늘 사양하셨으나 허락하지 않으셨다. 옛 전례에 知經筵<sup>359</sup>은 朝講에만 들어갔는데 正言<sup>360</sup> 吳健이 아뢰기를 “李滉이 올라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 循例<sup>361</sup>로 접견하지 마시고 晝講과 夕講에도 명하여 불러 강론하시면 반드시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주상께서 이 말을 좃으시므로 선생께서 “그것은 법규 밖의 일이니 감히 평안하게 행할 것이 아닙니다.” 하시고 사양하셨으나 주상께서 위로하고 타이르시며 허락하지 않으셨다. 계미(癸未, 6)일에 弘文館 大提學<sup>362</sup>과 藝文館 大提學<sup>363</sup>과 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를 겸하게 하셨다.

상소하여 여섯 조목을 진수하시니 “첫째는 이른바 계통을 중하게 여겨 仁孝를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주상께서는 왕실의 至親<sup>364</sup>으로 들어와 大統을 이으셨으니 무릇 뜻을 이으시고 사업을 이어 닦으시는 바가 지극한 정성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으니 그 仁孝하시는 도리에 지극하심을 이루지 못할까 근심하지는 않으나 마음은 소반의 물을 받드는

358) 제학은 홍문관의 종2품 벼슬, 부제학은 홍문관의 정3품당상관의 벼슬, 홍문관은 三司 중의 하나로 內府의 經筵 및 文翰과 왕의 諮問을 맡은 관아이다. 관원이 모두 經筵官을 겸함. 한문본에는 提學으로 기록되어 있다.

359) 지경연사(知經筵事), 경연청의 정2품 벼슬로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의 위, 영경연사(令經筵事)의 아래.

360) 사간원(司諫院)의 정육품 벼슬로 좌·우 두 사람이 있었음. 사간원은 三司의 하나로 임금에게 諫하는 일을 맡아 보던 관아이다.

361) 관례를 좃음.

362) 홍문관의 정2품 으뜸벼슬.

363) 예문관의 정2품 벼슬인 대제학, 義政의 겸직으로 領藝文館事 밑에서 실무를 맡아 보던 으뜸벼슬이다. 예문관은 사명을 짓는 일을 맡은 관아이다.

364) 아버지와 아들, 언니와 아우사이를 일컬음.

것보다 어렵고 어진 일은 바람 앞의 촛불을 安保하는 것보다 어려우니 다른 때에 귀와 눈을 속여 가리는 것이 어지러이 널려 있으며 사랑하며 미워하는 것과 남을 요괴같이 현혹하는 것이 함께 생겨나 날이 오래되고 달이 깊어 일이 익혀지며 情이 尋常<sup>365</sup>하여서 宗廟를 받들며 長樂<sup>366</sup>을 받드는 것이 동요되고 어그러지며 풀어짐이 있어 마땅히 용서하게 할 것은 降殺<sup>367</sup>하게하여 마땅히 降殺하게 할 것은 융성하게 하는 것이 어찌 만드시 없을 것이라고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예로부터 들어와서 大統을 이으신 임금이 彝教<sup>368</sup>에 대한 죄를 지은 경우가 많은 까닭이니 오늘날 마땅히 경계하여야 할 바입니다.<長樂은 궁이름이니 계신 곳이라. 彝教는 성인이 예로부터 하상 가르치시던 人倫을 말하는 것이고 마땅히 융성하게 할 것은 이으신 바를 말한 것이고 마땅히 降殺할 것은 私家의 아버이를 말하는 것이다><sup>369</sup>

둘째는 讒間을 막아서 兩宮을 친하게 하는 것입니다.<讒間은 참조하여 이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兩宮은 대전의 사이를 말하는 것이다><sup>370</sup> 효도하는 사랑하는 도리는 천성에서 나온 것이고 그 倫紀가 지극히 중하고 그 정이 매우 간절하니 마땅히 극진히 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나 혹 효도하는 데에 빠진 것이 있으며 사랑하는 하늘이 또한 虧損하는 것이 있음에 이르기를 보통 사람도 진실로 이런 죄를 면하지 못함이 있는데 帝王의 집에 이러한 근심이 더욱 많은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좌우 가까이에서 주상을 모시는 자와 內戰에서 부리는 자는 宦官宮妾들인데 이 무리들의 성품은 陰邪하고 교활하여 간사한 것을 끼며 사사로운 마음을 품으며 분란을 일으키기를 좋아하고 재앙 만들기를 즐겨 패를 나누어 많은 것은 다투며 적은 것은 헤아림에 그 情狀이 일

365) 대수롭지 않고 예사로운. 범상.

366) 궁이름.

367) 등급을 따라 내리 깎음.

368) 삼강과 오륜.

369) 李世澤 補註.

370) 李世澤 補註.

만 가집니다. 그러므로 혹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여 믿으면 자연히 불효에 빠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음에 빠질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전하의 대비 섬기심에 이른바 의리로써 은혜를 두텁게 하고 변칙으로써 常道에 처하실 것이니<이는 친 자체가 아닌 것으로 繼后하셨으니 상도의 친 모자 사이가 아니기 때문이다><sup>371)</sup>이 두 가지는 실로 소인과 여자들이 틈을 엿보고 變端<sup>372)</sup>을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쥔내에는 늙고 간사한 무리와 늙고 蠱惑하는 무리가 아직도 다 없어지지 않았으니<sup>373)</sup> 앞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周易<sup>374)</sup>에 있는 집안의 사람 대접하는 의리를 보시며 小學<sup>375)</sup>에 있는 人倫을 밝히는 가르침을 法으로 삼아 몸 다스리기를 엄하게 하시고 집을 바르게 하는 데에 삼가며 아버지 섬기기를 두텁게 하시고 자식의 職任을 극진하게 하셔서 左右近習<sup>376)</sup>의 사람으로 하여금 兩宮에 지극한 정으로 효도하고 사랑하시는 것보다 중한 것이 없게 하여 우리를 참소하고 이간하는 것이 그 사이에서 행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 자연히 陰邪한 무리들이 이간하여 분란을 일으킬 걱정이 없어 효도함에 闕<sup>377)</sup>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마음을 미루어 효도와 공경을 恭懿殿<sup>378)</sup>에 이르게

371) 李世澤 補註.

372) 서로 다르게 되는 시초.

373)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 : 不但如○豕之躑躅而已

374) 三易중의 하나. 중국 상고시대의 伏羲氏가 그린 괘에 대하여 周의 文王이 총설하여 卦辭라 하고 周公이 이것의 六爻에 대하여 세설하고 爻辭라 했는데 공자가 여기에 심오한 원리를 붙여 十翼을 만들었음. 陰陽二元으로써 천지간의 만상을 설명하고 이 이원은 太極에서 생긴다고 하였고 음양은 老陽(여름), 少陽(봄), 少陰(가을), 老陰(겨울)의 四象이 되고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의 팔괘로 되고 팔괘를 거듭하여 六四괘를 만든다고 하며 이것을 자연현상, 가족관계, 방위, 덕목 등에 맞추어서 철학, 윤리, 정치상 설명과 해석을 가한것.

375) 중국 宋나라의 劉子澄이 朱熹의 가르침을 받아 지은 책. 灑掃, 應對, 進退의 예법과 善行, 嘉言을古今의 책에서 뽑아 편찬하였음.

376) 좌우에서 가까이하여 익숙해짐.

377) 빠지다. 참여하지 못하다.

378) 한나라에서 태후를 모신 궁이름인데 태후나 대비를 모신 곳의 대명사가 되었

하시면 도리가 이어지며 이어지는 것이 높아져서 仁이 지극하고 의리가 극진하여 三宮의 즐거우심이 지극하게 되고 일만 가지 복이 다 이를 것입니다.<慈殿은 明宗王后이시고 恭懿殿은 仁宗王后이시니 三宮은 慈殿과 恭懿殿과 大殿<sup>379)</sup>을 말하는 것이다><sup>380)</sup>

셋째는 임금으로서 배우는 것을 돈독히 하여 그것으로써 다스리는 근본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제왕의 학문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의 요점으로 大舜이禹께 명하신 것에 근원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이르기를 ‘인심은 위태롭고 道心은 미묘하니 精하고 한결같아야만 진실로 그 中을 잡을 것이라,’<sup>381)</sup> 하였습니다.<인심은 七情<sup>382)</sup>이니 눈으로는 좋은 빛을 보고자 하고 귀로는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하고 입으로는 맛있는 것을 먹고자 하고 코로는 좋은 냄새를 맡고자 하고 四肢는 평안하고자 하는 마음이니 살피지 않으면 잘못된 일을 하기 쉬우므로 위태롭다 하는 것이고 道心은 四端<sup>383)</sup>이니 어진 마음이지만 처음 시작하여 나올 때에 그 끝이 미묘하여 알아보기 어려운 것이라 하시니 精이란 말은 그 사이를 바르게 살펴 함부로 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요 一이란 말은 꼭 지켜 일치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sup>384)</sup> 그러나 舜의 이 말씀에서는 다만 위태롭고 미묘하다는 것만 말씀하시고 그 위태롭고 미묘한 까닭은 말하지 않으셨으며 다만 精하며 한결같은 것으로 가르치시고 精하며 한결같이 하는 방법은 보여주지 않으시니 후세의 사람들이 이에 의거하여 도리를 진실로 알아서 실지로 실천하고자 하였으나 또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성인이 서로 이어 孔子께 이르러서 그 법이 크게

다.

379) 임금님이 거처하는 궁전.

380) 李世澤 補註.

381) 書傳, 大禹謨에 나옴.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382) 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 곧 喜, 怒, 哀, 樂, 愛, 惡, 慾.

383)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네 가지 마음씨. 즉 仁에서 우러나는 惻隱之心, 義에서 우러나는 羞惡之心, 禮에서 우러나는 辭讓之心, 知에서 우러나는 是非之心의 네 가지.

384) 李世澤 補註.

갖추어졌으니 『大學』<sup>385)</sup>의 格致誠正과 『中庸』<sup>386)</sup>의 明善誠身이 그것입니다.<格致는 이치를 窮究하는 것이요 誠은 뜻을 實하게 하는 것이요 正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요 明善은 어진 일을 밝게 알람이요 誠身은 몸을 닦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다><sup>387)</sup> 臣이 청하옵건대 먼저 말한 첫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性과 情과 얼굴과 안색과 날마다 쓰는 人倫에 가까운 것으로부터 하늘과 만물과 古今事變의 많은 것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실질적인 이치와 지극히 마땅한 법칙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 이른바 천연의 스스로 있는 中입니다.<中은 어느 한 쪽도 아니며 넘치는 것도 아니며 미치지 못한 것도 아니며 끌어 올린 것도 아닌 지극한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sup>388)</sup> 그러므로 이것을 배우기를 가히 넓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것에 대해 묻기를 가히 자세하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을 생각하기를 가히 삼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을 분별하기를 가히 밝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이 네 가지는 아뢰는 條目이며 이 네 가지 중에서 삼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하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그 시작의 여러 끝을 發하셨으니 臣이 청하옵건대 그 쌓으신 功을 더 쌓아 세월이 오래되면 공부와 힘이 깊어져서 하루 아침에 흰하게 통하여 트이는 것이 있으면 비로소 이른바 體와 用이 한 근원이 되며 나타난 것과 미세한 것의 간격이 없는 것이 진실로 그러하여 위태로운 인심과 미묘한 道心이 아득하지 않고 精하게 살피며 반드시 지키는 것이 어지럽지 않아 中을 가히 잡을 수 있을 것이니 이를 일러 이른바 진실로 아는 것이라 합니다. 臣이 청하옵건대 다시 행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뜻을 성실하게 함에 반드시 그 기

385) 사서(四書)의 하나. 유교의 明明德, 新民, 至善의 三강령과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의 여덟 조목을 기록설명하였음. 增資 또는 子思가 지었다고 함.

386) 사서(四書)의 하나. 공자의 손자인 子思가 지음. 天人合一을 설명하고 過不及이 없고, 不偏不黨한 中庸의 덕과 덕의 道를 강조한 유교의 종합적인 해명서.

387) 李世澤 補註.

388) 李世澤 補註.

미를 살피 한 털끝 만큼도 實하지 못한 것이 없게 하며 마음을 바르게 함에 반드시 마음의 動과 靜을 살피 한 가지 일도 바르지 않게 하는 것이 없으며 몸을 닦음에 한 가지의 편벽됨에 빠지지 말며 집을 가지런히 함에 어느 한 쪽만을 가까이하지 말며 보지 못하는 바를 경계하며 듣지 못하는 바를 두려워하며 혼자 있어 남이 모르는 곳에서도 삼가며 뜻을 굳게 하여 그치지 아니함은 힘써 행하는 條目이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때에 따라 그리고 곳에 따라 생각마다 거두어 잡으시고 일마다 두려워하여 조심하셔서 일만 가지의 더러움과 모든 욕심을 마음 가운데에서 씻어 버리시며 다섯 가지 몇몇한 倫紀와 일백 가지 행실을 지극한 善으로 磨礪하여 밥 먹으며 숨쉬 사이에도 계속하시며 의리를 헤아리셔서 분함을 징계하시며 욕심을 막으시며 어진 곳으로 옮기시며 허물을 고치시고 성실하며 한결같이 하시고 넓으며 크며 높으며 밝기를 힘써 예법에 벗어나지 아니하며 하늘을 도와 천하를 經綸하는 것이 다 玉漏<sup>389</sup>에 根源하게 하십시오.<經綸은 실제 하는 이름인데 나라 다스리기 에 비유하였고 屋漏는 집의 어두운 구석이니 혼자 있는 곳에서도 조심하는 것이다><sup>390</sup> 이와 같이 진실로 쌓은 것이 많으며 시간이 오래되면 자연히 의가 精해지고 仁이 익어 그만두고자 하여도 능히 그만두지 못하여 갑자기 스스로 성현의 中和<sup>391</sup>된 곳에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넷째는 道術<sup>392</sup>을 밝혀서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唐虞와 三代의 융성할 때에는 道術이 크게 밝아 다른 데에서 갈리어 미혹된 것이 없는 까닭에 사람의 마음이 바르게 되고 다스리는 덕의 교화가 흡족해지기 쉬웠으나 周나라가 쇠퇴한 후로부터는 道術이 밝지 않아서

389)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곳. 『시경(詩經)』에 ‘옥루에 부끄럽지 아니하다. (不愧子屋漏), 라는 구절이 있는데 옥루는 방 안의 그윽한 구석이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구석진 데서도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삼간다는 뜻이다.

390) 李世澤 補註.

391) 德性이 中庸을 잃지 않은 상태.

392) 德性이 中庸을 잃지 않은 상태.

邪慝<sup>393</sup>)한 것이 같이 생기므로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않아 다스리려고 하여도 다스려지지 않고 교화시키려 하여도 교화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일러 道術이라 하는가 하면 하늘이 명하신 것을 나서 떳떳한 人倫에서 행하는 것이니 천하와 고금에 다 같은 것으로 말미암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臣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반드시 道術을 밝혀 인심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써 新政에 공헌하는 것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 밝히는 일은 또한 本과 末이 있으며<本은 처음이고 末은 끝이다><sup>394</sup> 먼저 하며 후에 하며 緩하며 급한 베품이 있는 것이니 人君께서 몸소 행하여 마음에 얻으신 다음에 근본하여 백성들이 날마다 쓰는 것은 本이고 法制의 자취를 따르며 문물의 아름다운 것을 이어 依倣하여서 한 곳에 대어 생각하는 것은 末이니 本은 먼저 하고 급하게 할 것이고 末은 후에 하고 緩하게 하는 것입니다. 臣이 옆드려 보건대 동방에서 異端의 害로서는 불교가 가장 심하고 老莊<sup>395</sup>의<노자와 장자다><sup>396</sup>虛誕한 것을 혹시 숭상하는 이가 있어 성인을 업신여기며 예법을 경멸하는 풍속이 간혹 있으며 管商의<管仲<sup>397</sup>의 商鞅<sup>398</sup>이다><sup>399</sup>術業을 다행히 전하여 진술하는 이는 없으나 功을 세며 利를 꾀하는 폐습이 고질화 되어있고 鄉愿<sup>400</sup>의 덕을 어지럽히는 습성은 세상에 아첨

393) 요사스럽고 간특함.

394) 李世澤 補註.

395) 老子는 중국 춘추시대의 철학자. 道敎의 시조. 성은 李, 이름은 耳, 자는 伯陽. 楚나라 사람. 莊子(BC 365~290)는 중국 戰國時代의 사상가. 도학자. 이름은 周. 송나라 사람. 萬物一元論을 주장하였음. 인생관은 사생을 초월하여 절대 무한의 경지에 逍遙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또한 인생은 모두 天命이라는 宿命論을 취하였음.

396) 李世澤 補註.

397) 管仲은 중국 춘추시대의 齊나라의 정치가. 법가. 이름은 夷吾. 친구 鮑叔牙의 권유로 桓公을 섬겨 부국강병책을 추진하여 환공을 중원의 覇者로 만들었음.

398) 商鞅은 중국 秦나라의 정치가. 위나라의 公族출신으로 법학을 공부하고 孝公 밑에서 法制, 田制, 稅制 등을 크게 개혁 진나라를 융성하게 하여 孝公 22년에 商에 봉함을 받았음.

399) 李世澤 補註.

400) 공자의 말에 “鄉愿은 德의 賊이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온고을 사람에게

하는 것의 濫觴<sup>401</sup>이 되었으며 俗學의 향방의 아득한 근심은 學子<sup>402</sup>가 이름을 쫓는 데서 燎原<sup>403</sup>한테 <老子和 莊子是 허무한 것을 숭상하던 사람이고 管仲과 商鞅은 완전히 리만 탐하고 형벌을 각박하게 하던 사람이고 鄉愿은 세족에게 아첨하여 밖으로는 용하다 하되 안으로는 실로 용하지 않는 것이고 俗學은 성인의 학은 아니라고 글을 외우고 글씨만 숭상한다는 말이다><sup>404</sup>하물며 이름내는 길과 벼슬 찾는 곳에 기회를 타서 막고 부정하여 속이고 저버리는 무리가 또 어찌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로써 보건대 지금 인심의 不正함이 심합니다. 설사 불행히 주상께서 도로 향하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처음과 같지 못하시면 무릇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반드시 잡다하게 같이 나아가 달려들어 일백가지 방법으로 주상의 마음을 어지럽힐 것이니 한 번만이라도 친하게 되면 곧 더불어 한 가지가 될 것이니 앞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뜻을 잡으시기를 金石같이 하여 처음과 나중에 변하지 마시고 道를 밝힘을 日月같이 하셔서 陰隱한 기운을 흰하게 없애 干犯침 못하게 하면서 떼땀이 오래되고 그치지 않으시면 기다려 興起하는 선비와 스스로 새롭게 하려는 백성들은 다 큰 德에 올라서고 아래의 모든 간사한 것과 잡되고 陰隱한 것들은 또한 장차 신성한 教化에 변화되기에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는 길러온 腹心을 밀어서 耳目을 통하는 것입니다. 人主는 한 나라의 元首이며 大臣은 腹心이며 臺諫<sup>405</sup>은 耳目입니다. 서로 맞추어 삼자가 서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옛날에 人君이 大臣을 신임하지 아니하며 臺諫의 말을 듣고 쓰지 않는 자는 비유하건대 사람이 스스로 그 가슴과 배를 미워하여 버리며 스스로 그 귀와 눈을 발라 막는 것과 같으

---

게 안전하다는 말을 들으나 似而非인 것으로써 덕을 혼란하게 한다는 뜻이다.

401) 사물의 처음. 시작.

402) 과거 고시에 응하는 선비.

403) 左傳, 隱公, 六年, 惡之易也 如火之燎于原.

404) 李世澤 補註.

405) 臺官과 諫官. 司諫院, 司憲府의 벼슬의 총칭.



니 진실로 머리만으로는 사람이 될 수 없고 혹시 大臣을 신임하여도 옳은 道로 말미암지 않아 대신을 구하는 것에도 그 나라를 바르게 하며 사업을 이루어 임금을 돕는 어진 사람은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침하여 임금의 뜻에 따르는 자를 구하여서 그 사사로운 욕심을 이루기를 피하면 얻은 바 그 사람됨이 간사하여 政事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흉악한 도적으로 권력을 擅恣<sup>406</sup>하는 자일 것입니다. 임금이 이런 사람을 욕심을 이루는 腹心으로 삼고 신하는 임금을 욕심을 이루는 머리로 삼아 위와 아래가 서로 합하여 굳게 맺어 사람들이 이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는 다 내쫓겨 나라 안이 비고 귀와 눈을 맡은 마을 관원은 모두 권력을 잡은 신하의 사사로운 사람이 되는 즉 이른바 귀와 눈이 元首의 귀와 눈이 아니고 權臣의 귀와 눈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귀와 눈을 빙자하여 勢焰<sup>407</sup>의 불을 붙여 權臣의惡을 당으로써 조장하고 腹心으로 말미암아 惡을 쌓으며 禍를 만들어 어두운 임금의 邪慝함을 쌓아 이루어 방자해서 스스로 각자가 하고자한 것을 얻었도다 하며 元首의 鳩毒<sup>408</sup>은 腹心에서 생겨나고 腹心の 蛇蝎<sup>409</sup>은 귀와 눈에 의해 생겨나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臯陶<sup>410</sup>의 노래에 말하기를 ‘元首가 叢脞<sup>411</sup>하시며 股肱<sup>412</sup>이 게으르면 일만 가지 일이 떨어지니라.’ 하니 이는 일만 가지 일이 떨어지는 책임이 元首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宋나라 신하 王介之가 말하기를 ‘재상이 宮禁<sup>413</sup>의 의향을 받들며 急死가 재상의 공지를 받들면 조정의 기강이 땅을 쓸어버린 것 같다.’하니<sup>414</sup> 사특

406) 제 마음대로하여 기탄 없음.

407) 의기가 강한 형세. 남이 보기에 두려워할 만한 힘.

408) 짐새의 깃에 있다는 맹렬한 독.

409) 뱀과 전갈. 남을 해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410) 옛날 요임금 때의 현신이라 한다.

411) 번잡하고 세쇄(細瑣)함.

412) 다리와 팔. 임금이 가장 믿고 중하게 여기는 신하.

413) 궁궐.

414)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 : 言邪徑之爲害也 至呂公弼之諫仁宗則曰 肱耳目必相爲

한 길로 말미암지 않으면서 능히 서로 쓰임이 되는 것이 지극히 어진 道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몸을 닦고 살피는 것을 정성으로 하여서 하늘의 사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전하께서 보배<sup>415)</sup>를 잡으시고 왕위에 오르신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자주 변하고 시절 妖孽<sup>416)</sup>이 번갈아 일어나고 和한 기운이 응하지 아니하여 兩麥<sup>417)</sup>이 다 耗損<sup>418)</sup>되고 수재가 참혹함은 예전에는 없던 바이고 바람과 우박과 蝗蟲<sup>419)</sup>등 여러 재변이 보이니 이는 하늘이 전하를 사랑하심이 깊이 위엄으로 경계하심이 지극한 것입니다. 옳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어버이를 섬기시는 마음을 미루어 하늘을 섬기시는 도리를 다하시고 닦고 살피지 아니하는 일이 없게 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때가 없어서 주상의 몸가짐에 비록 과실은 있지 않으나 心術의 隱微<sup>420)</sup>한 가운데에 쌓인 병을 가히 완전히 없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宮禁에는 비록 본래의 家法이 있으나 眷黨과 幽陰한 무리들이 청탁드리는 것을 가히 防遮<sup>421)</sup>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간하는 것을 들으시는 것은 비록 아름다운 것이나 때때로 사사로운 마음으로 굳게 거절하시는 것은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이며 어진 일을 즐기심이 비록 호색하는 정성같이 하시나 혹 헛된 것으로써 억지로 구함에 이르신 것은 마땅히 살피실 것이며 벼슬과 상을 함부로 주지 말아 공이 없는 자가 요행으로 얻고 공이 있는 자는 몸을 풀어 흠어져 버리게 하지 마시고 赦하고 풀어주는 것을 자주 하지 마셔서 악을 행하는 자로 하여금 면함을 얻게 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해를 입게 하지 마시고 節義를 숭상하시며 염치를 가다듬어 名敎<sup>422)</sup>를 막아 지키기

用 然後身安而元首尊故臣以爲.

415) 옥새.

416) 요약한 귀신의 재앙. 재앙의 징조.

417) 보리와 밀.

418) 닳아 없어짐.

419) 누리(메뚜기과).

420)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

421) 막아서 가리움.

를 튼튼하게 하는 것을 가히 허술하게 생각지 말며 검약을 숭상하고 사치를 금하여公私의 재물과 힘을 有餘하게 하는 것을 늦추지 못할 것입니다. 조종의 예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긴 것을 비록 조금이라도 變通하지 않을 수 없으나 혹 그 어진 법과 아름다운 뜻까지 일체 어지러이 고치면 반드시 큰 근심에 이를 것입니다. 조정의 신하들 중에서 바른 것을 미워하고 다른 것을 꺼려하여 틈을 엿보아 일을 일으키는 자를 미리 진정시키지 않을 수 없으나 혹 스스로 어진 무리들끼리 반목하고 서로 배척하여 공격하면 반드시 도리어 손상됨을 볼 것입니다. 옛 것을 지켜 보통 것을 좇는 신하를 오로지 쓰심은 지극한 다스림을 얻어내기에는 방해가 되며 새로 나아가 일을 일으키기를 좋게 여기는 사람을 편벽되게 부리시면 또한 어지러운 길을 돋우어내기에 이를 것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아전이나 종들은 바치고 심부름하는 자들을 이리떼처럼 잡아 먹으면서도 그래도 부족하여 마을 창고를 비울 정도로 도적질하며 鎭浦의 장수들은 군사를 호랑이처럼 삼키면서도 오히려 싫어하지아니하여 그 독이 善隣<sup>423</sup>과 일족에까지 미치며 饑荒<sup>424</sup>이 날로 심해지는데에도 賑救<sup>425</sup>할 묘책이 없으니 모든 도적이 크게 일어날까 두려워하며 변방이 허술하여 남쪽이나 북쪽에 틈이 있어 썩고 더러운 오랑캐가 불시에 침입해올까 염려되는데, 무릇 이같은 무리를 臣이 감히 낱낱이 들지 못하니 오직 전하께서 깊은 하늘이 주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안으로는 몸과 마음을 돌아보시는 것을 공경으로 專一하여 그침이 없게 하시며 밖으로는 정치를 닦아 행하시는 것을 성실히 하는 것으로 專一하여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 없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臣이 두려워하건대 否<sup>426</sup>와 太<sup>427</sup>가 서로 극이

422) 인륜의 명분을 밝히는 가르침.

423) 사이 좋게 지내는 이웃.

424) 굶주림. 기근.

425)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 줌.

426) 否卦. 乾卦와 坤卦가 거듭된 것으로 하늘과 땅의 상극을 상징함. 꼭 막힌 운수.

427) 泰卦. 坤卦가 거듭된 것인데 하늘과 땅이 사람을 상징함. 잘 되는 운수.

되며 禍亂이 서로 이어서 수백년 동안 昇平<sup>428)</sup>하신 끝에 나라의 근심 거리가 장차 날로 지금의 폐단보다 배로 생겨서 하늘이 전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도리어 전하께는 스스로를 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批答하시되 “내가 疏章을 보니 卿의 도덕은 옛 사람에게 叱正<sup>429)</sup>하여도 또한 그 짝 될만한 이가 드물 것이다. 무릇 이 여섯 조목은 진시로 千古의 지극한 말이며 當今에 급히 힘 쓸 일이니 내가 비록 眇末하나 감히 가슴에 담지 않겠는가?” 하셨다. 병으로 말미를 받아 있으면서 본 벼슬과 겸직인 大提學을 사양하시고 인하여 “崇政을 더한 것을 원하는 대로 개정하여 주십시오.” 하셨으나 듣지 않으시고 의원을 보내어 병이 어떠한지 물으셨고 선생께서 잇달아 사양하셨으나 허락하지 않으셨다. 伸縮, 24일에 대궐에 나아가 大提學을 힘써 사양하여서 세 번이나 말씀 드렸으나 듣지 않으시므로 이튿날 또 굳게 사양할 것을 그치지 않으시니 그 때에야 사직을 허락하셨다.<sup>430)</sup> 癸卯, 26일에 다시 判中樞府事를 제수하시고 知經筵春秋館事를 겸하게 하시니 大提學을 갈았던 까닭에 다시 批答을 내리셨다.

9월 초하루에 獻官<sup>431)</sup>으로 康陵에 제사지내셨다.<康陵은 明宗의 능이다> 己酉, 3일에 夕講에 入侍<sup>432)</sup>하여 啓事하셨다. 그 때에 軍籍<sup>433)</sup>을 정리하는 일이 있었는데 선생께서 아뢰기를 “山陵을 겨우 치르고 또 天使도 금방 겪었으며 失農도 하였으니 軍籍을 정리할 때가 아닙니다.” 하시고 인하여 擧前<sup>434)</sup>에서 筭子<sup>435)</sup>를 쓰면서 말씀하시기를 “군사를

428) 나라가 태평함.

429) 갈피를 잡고 헤아려 걱정함.

430)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 : 初大提學朴淳, 啓曰大提學, 提學, 雖同是館閣之職, 提學之任, 不如大提學之重也, 今臣爲主文, 而李滉爲提學, 高年碩儒, 反居小任, 而後進初學之士, 乃處重地, 朝廷用人, 顛倒莫甚, 請遞其任, 以授之, 上議于大臣, 皆以淳言爲然, 於是 命與淳相換, 而先生爲大提學, 淳爲提學, 先生遂以老病不堪, 連日力辭, 得請.

431)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임시로 임명하는 祭官.

432) 대궐에 들어가 왕을 알현하는 일.

433) 군인의 주소, 성명, 학력, 경력 등을 적어 군인으로서의 지위, 신분을 밝힌 명부. 병적.

搜括하여 빠진 것을 보충하는 것은 마땅히 급한 일입니다. 다만 작년 이래로 국상과 산릉의 큰 役事가 잇달아 있었고 天使가 와서 백성이 困弊<sup>436</sup>하였으며 올해에는 또 바람과 가뭄의 災變이 있었으며 날으는 황충(蝗蟲)이 하늘을 가리어 사망에서 災傷을 근심하며 救荒<sup>437</sup>을 근심하는 글이 서로 이어 그치지 않거늘 나라에서는 일찍이 한 번도 號令<sup>438</sup>한 정사를 내어 백성들을 구하는 방책은 세우지 않고 바야흐로 집마다 더듬으며 戶마다 뒤져 협박하고 몰며 침노하여 독촉하기를 성화 같이 급하게 하니 나라의 근본이 어찌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臣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잠시 그치고 세월이 풍년들고 백성이 쉰 후를 기다려 그 때 하는 것이 의리에 옳지 않을까 합니다.” 또 말씀하시되 “옛날의 聖王은 궁중의 일을 조정에서 參豫하여 알지 못하는 일이 없어서 宦官과 宮妾이 다 유능한 재상에게 거느려지게 하였고 諸葛亮이 後主<sup>439</sup>께 아뢰기를 ‘궁중과 府中<sup>440</sup>이 다 일체가 되어서 옳으며 잘못된 것에 높여 주며 벌주는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간사한 일을 하였거나 법을 범하였거나 또는 충성하고 어진 일을 하는 자가 있으면 有司<sup>441</sup>에게 붙여 그 형벌과 상을 의논하여 공평하고 밝은 정치임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니 편벽되게 사사로운 정으로하여 안팎의 법이 다른 것은 옳지 않다.’하니 또한 이 뜻입니다. 만일 ‘안의 일을 바깥 조정에서 알 바가 아니다.’하면 이것은 심히 옳지 않는 것입니다.” 하시고 인하여 朱子<sup>442</sup>가 효종에게 올리신 글 가운데서 한 대목을 각별히 기록하여

434) 좁고 길다란 평상 앞.

435) 간단한 서식으로 하는 상소문.

436) 괴롭고 피로함.

437) 기근 때에 빈민을 구함.

438) 큰 소리로 꾸짖음.

439) 蜀나라 劉禪의 경칭.

440) 府의 이름이 붙었던 예전 행정구역의 안. 官衙.

441) 어떠한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무.

442) 性理學을 대성한 南宋의 대유학자. 그의 학문은 宋나라의 周茂叔, 程明道, 程伊川, 羅豫章, 李延平 등의 學과 道, 그리고 佛學을 종합 집대성한 것으로 우주에는 理와 氣의 二元이 있다고 하고 그 실천 강목으로서 居敬, 窮理의 二大

올리셨는데<sup>443)</sup> 그 때에 늙은 궁인인 石尙宮이라 하는 자가 있어 先祖 때부터 안팎을 교통하여 정사에 干豫<sup>444)</sup>한 죄가 있어 臺諫에서 의논하는 바가 된 까닭에 선생께서 그것에 미친 것이니 주상께서 다 받아들이시고 명하여 軍籍 정리를 그치라고 하셨다. 壬子, 6일에 夕講에 入侍하여 程子の 四箴<sup>445)</sup>을 나아가서 강의하셨다. 강의를 마치시고 아뢰기를 이 四箴은 顏子<sup>446)</sup>가 仁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은 章에 있으니 孔子 문하의 많은 제자들에게 仁을 가르치신 것이 매우 많으나 오직 顏子만이 이것을 얻어들었기 때문에 朱子께서 말하시기를 ‘聖門의 心法을 전수하는 切當<sup>447)</sup>하고 중요한 말이다.’ 하였습니다.” 하시고 인하여 고사를 인증하여 切當히 강의하시고 주상께서 이르시기를 “이것은 진실로 지극한 말이니 마땅히 좌우에 두고 날마다 살펴야 할 것이니라.” 하셨다.

乙卯, 9일에 朝講에 入侍하여 論語集註를 강의하심에 周易을 배우면吉하며凶하며 사라지며 자라나는 이치와 나아가며 물러나며 있으며 망하는 道가 밝게 된다 하는 말에 이르러 선생께서 그 뜻을 미루어 아뢰기를 “六四卦에 주역의 이치가 다 갖추어져 있으니 우선 乾卦를 말씀드리면 첫 爻는 잠긴 용이니 쓰지 말라고 하였고 둘째 爻는 보이는 용이 발에 있다고 하였고 셋째 爻는 아래 卦의 가장 위에 있으므로 용으로써 취하여 卦象으로 삼지 아니하여 다만 경계할 뜻을 일렀고 넷째 爻는 흑뿔며 못에 있다 하였고 가장 위에 있는 爻는 자리가 너무 높아 극하므로 말하기를 귀하나 지위가 없고 높으나 백성이 없어 가장 높이 오른 용은 뉘우침이 있는 象이라고 하였으니 人君이 만일 높은 것으로 자처

綱을 들었음.

443)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 : 自古先聖王 兢兢業業 止 遺風餘烈猶可爲後世法程之語 以進.

444) 관계함. 참견함.

445) 공자가 안자에게 가르친 四勿에 대하여 정자가 四勿箴을 지었는데 視箴, 聽箴, 言箴, 動箴이 그것이다.

446) 顏回(BC 521~490). 공자의 수제자로 학력이 제자 중에 가장 높아 스승의 총애를 받았음. 十哲의 한 사람.

447) 사리에 꼭 들어맞음.

하여 어진 사람은 간만히 하며 스스로 성인인 채하여 혼자만의 외로운 지혜로 세상을 제어하며 아랫사람에게 자기를 낮추는 뜻이 없으면 이 형상에 응하여 궁한 재앙이 있을 것이니 반드시 겸허하여 문기를 좋아하며 德을 갖게 하여 서로의 일을 도와야만 亢極한 재앙을 면할 것입니다. 繫辭<sup>448</sup>)에 말하기를 위태롭다고 하는 자는 그 지위에서 평안한 자요, 망할 것이라고 하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보존하는 자이며 亂하다고 여기는 자는 그 다스릴 수 있는 자라 하시고 또 말하기를 망할까 망할까 하는 이는 包桑에 매여있다 하시니 人君께서 이것을 아신다면 가히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하시고 또 여쭙기를 “지금 나아가 강의한 것은 성현의 지극하신 말씀이나 한갓 음과 뜻과 句讀만 알고 스스로 얻은 실상이 없으면 유익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득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를 않으면 위태롭다.’ 하셨는데 그 뜻을 해석하는 자가 말하기를 ‘마음에 구하지 않으므로 아득하여 얻는 것이 없고 그 일을 익히지 않으므로 위태로워서 평안하지 못하다’ 하니 모든 經書에 다 통하여도 마음에 얻는 실상이 없으면 아득하여 얻는 것이 없고 마음에 생각하여도 익히지 아니하면 위태로워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延平<sup>449</sup>)께서 朱子께 이르시기를 ‘이 도리는 온전히 날마다 쓰는 것의 익힘에 있으니 날마다 쓰면 움직이며 가만히 있으며 말하며 침묵하는 사이에 마음을 두고 살피며 그 일에 익숙한 후에야 아는 것이 실로 얻은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진실한 학문이다.’ 하셨습니다.” 하셨다. 庚申, 14일에 晝講에 入侍하셨다. 선생께서 전날에 말씀하신 것 중 亢極한 용이 뉘우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은 그 뜻을 오히려 다 말하지 못하였다 하며 또 각별히 筮子를 지어 강의를 마치고 나아가 읽으시니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계하라는 것은 내 마땅히 경계를 삼겠노라.” 하셨다. 그 때에 申士楨이란 자가 있었는데 공주의 아들이었다. 자기 아버지께 불효하여서 臺諫이 바야흐로 疏

448) 文王과 周王이 易의 卦와 爻의 아래에 그 吉凶을 밝히기 위하여 써놓은 말.

449) 송나라 선비 李侗인데 주자의 스승이다.

를 올려 아뢰며 죄를 청하였는데 선생께서 아뢰기를 “요즈음 臺諫의 의논하는 바가 혹 집안 일을 간섭하며 혹 사사로운 일에 관련된 것이라 하며 즐겨 듣고 허락하지 않으시니 한 가지 일에도 이와 같고 두 가지 일에도 이와 같아서 쌓여 그치지 않으면 사사로운 일이 공변된 것을 이겨 없애는 것에 이르면 어지럽고 망할 조짐이 이에 말미암을 것입니다. 綱常이란 것은 우주를 부지하는 기둥과 대들보와 같은 것이며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주석과 같은 것이거늘 臺諫이 이 일 때문에 의논하는데에도 듣지 않으시면 주추와 기둥과 대들보가 부러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 아뢰기를 “臣이 無狀하여 文翰<sup>450</sup>의 소임과 史局<sup>451</sup>의 중한 책임을 다 감당하여 수행하지 못하고 오직 잠시나마 經筵에는 출입할 수 있을 것인데 겨울이 몹시 차가워 또한 장차 감당하기 어려우니 국사를 수행하지 못하면서 한갓 國祿만 먹는 것은 市井사람이 리만 보고 염치는 돌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조정은 臣을 士大夫라 부르는데 臣이 市井사람으로 자처하면 의리에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하시고 인하여 물러나기를 비심을 심히 간절히 하셨으나 주상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르시기를 “상하가 바야흐로 卿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셨다. 그 때에 주상께서 선생께 기울여 향하시기를 심히 간절히 하시고 선생께서도<sup>452</sup> 학문을 권하며 강론하는 것 외에도 정사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홀연히 일을 좇으며 진술하여 아뢰시고 비록 宮禁과 戚屬에 관계된 일이라도 또한 주상을 위하여 아뢰시고 주상께서는 또한 마음을 비워 아름답게 여겨서 따르시고 말마다 들으며 계획마다 좇겠노라 하시는 上教를 내리심에 이르렀다. 그러나 선생께서는 오히려 늙고 병이 들어 소임을 다할 수 없다고 하시며 늘 물러갈 뜻을 두시니 士大夫들이 선생께서 가시며 머무르시는 것으로 世道<sup>453</sup>의 낮으며 높음을 짐쳐서 오직 나라를 버리고 가는 것을 빨리하여 그 배우신 것을

450) 문필에 관한 일.

451) 기록을 꾸미는 實錄廳, 日記廳 등의 범칭.

452)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 : 赤知無不言.

453)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도리.



다 행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셨다. 이 날 臺諫에서 거론된 일을 다 들어 주시니 이는 선생께서 계를 올린 힘 때문이었다. 實錄撰集都廳堂上으로 임명되셨다. 總裁官 洪暹<sup>454</sup>이 여쭙기를 “李滉은 斯文의 옛 선비이니 의논하여 붓으로 써서 칭찬하고 각아내리는 데에 가히 이 사람같은 이는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까닭이다.<實錄은 明宗朝에 하셨던 것을 기록한 것이다><sup>455</sup> 丙寅, 20일에 대궐에 나아가 물러가기를 빌었으나 허락하지 않으시고 말씀하기를 “卿이 만일 벼슬을 그만두면 누구와 더불어 나라일을 하겠는가? 겨울철이라 병을 면할 수 없으면 완전히 소임을 폐하여도 무엇이 미안하겠는가? 원하건대 사양하지 말라 하시고 인하여 내일 夕講에 入侍하라.” 하셨다. 丁卯, 21일에 夕講에 入侍하셨는데 주상께서 물기를 “요즈음 조정의 의논이 趙光祖<sup>456</sup>에게 관직을 追贈<sup>457</sup>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 사람의 학문과 행했던 일이 어떠한 것이었나?” 하시니 선생께서 아뢰기를 “光祖가 天稟이 빼어나서 일찍이 뜻을 性理學<sup>458</sup>에 두고 집에 있을 때에는 효도하고 우애가 있었습니다. 中廟께서 다스림을 구하시기를 목마른 데에 물 생각하듯 하시어 장차 三代 때의 다스림을 이루려 하셨으므로 光祖가 또한 세상에서도 드문 만남이라 하여 金淨<sup>459</sup> 金湜<sup>460</sup>과 奇遵<sup>461</sup>과 韓忠<sup>462</sup>등과 더불어 서로

454) 洪暹(1504~1585). 자는 退之, 호는 忍齋. 中宗 30년(1535) 金安老의 專橫을 탄핵하여 유배되었으며 김안로가 죽은 다음 풀려나옴. 明宗 7년(1552) 清白吏에 錄選되었으며 벼슬은 영의정에 이름.

455) 李世澤 補註.

456) 趙光祖(1482~1519). 호는 靜庵, 성리학자 金宗直의 학통을 이은 士林派의 영수로서 도덕적 이상정치를 꾀하여 향촌의 상호부조를 위하여 呂氏鄉約의 실시, 미신타파를 위하여 照格書 폐지, 賢良科의 실시, 勳舊派의 削勳 등 급진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원로들과 충돌, 훈구파 洪景舟, 南袞, 沈貞이 일으킨 己卯土禍로 능주로 귀양갔다가 賜死됨.

457) 나라에 공로가 있는 벼슬아치가 죽은 뒤에 그 官位를 높여 줌.

458) 중국 송나라 때의 유학의 한 계통으로 性命과 理氣의 관계를 논한 유교철학. 漢 및 唐 이래의 경서의 주석만을 일삼던 訓詁學을 배척하고 보다 깊은 철학적 고찰을 통하여 宇宙의 本體와 人性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459) 金淨(1486~1521). 中宗 때의 정치가, 문장가, 자는 元沖, 호는 沖菴. 형조 판서와 예문관제학을 겸하여 조광조와 더불어 至治主義의 실현을 위해 미신

힘을 한 가지로 쓰며 마음을 같이 하여 크게 更張<sup>463</sup>하였고 조목과 법을 설립하고 『小學』으로써 사람을 가르치는 법으로 삼고 또 呂氏鄉約<sup>464</sup>을 거행하고자 하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바람에 움직이듯 하였는데 만일 오랫동안 폐하지 않았던들 다스리는 도를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 때에 나이 어린 사람들이 다스림에 이르기를 급하게 생각하여 빨리 하고자 하는 폐단이 없지 않았고 옛 신하들 중 물리침을 본 자가 벼슬을 읽고 怏怏하여 일백 가지로 피하여 틈을 살펴 망극한 참소로 엮어매어 일시에 어진 선비의 무리들을 혹 귀양 보내고<sup>465</sup> 혹 學行<sup>466</sup>에 뜻을 두는 사람을 싫어 하는 자들이 홀연히 지목하여 ‘己卯士禍<sup>467</sup> 때의 무리다.’ 하니 인심이 누가 禍를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士風이 크게 더럽혀져서 이름난 선비가 나지 않는 것은 이

타파와 향약의 전국적 시행 등의 업적을 남김. 己卯士禍에 腸死됨.

- 460) 金湜(1482~1520). 조선왕조 중종 때의 성리학자. 자는 老泉, 호는 淨友堂 또는 沙西. 淸風 사람. 조광조의 동지였는데 남곤 일파가 기묘사화를 일으키자 거창에 도피 『君臣千歲義』라는 시를 짓고 자살함. 己卯八賢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짐. 시호는 文毅.
- 461) 奇遵(1492~1521). 조선왕조 中宗 때의 학자. 자는 敬仲, 시호는 服齋. 幸州 사람. 중종 9년(1514) 문과에 급제 應敎를 지냄. 기묘사화에 관련되어 牙山, 隱域 등지로 귀양가던 중 腸死함. 시호는 文愍.
- 462) 韓忠(1486~1521). 조선왕조 중기의 문신. 자는 怨卿, 호는 松齋. 淸州사람으로 중종 8년(1513) 別試文科에 장원, 典籍을 거쳐 應敎 등을 역임, 동 13년 宗系辨誣를 위한 奏請使 남곤의 書狀官으로 중국 明나라에 다녀왔으나 의견충돌로 남곤의 미움을 삼, 동 14년 기묘사화에 조광조와 교류가 있다 하여 거제도에 유배되고 동 16년 辛巳誣獄에 연루되어 杖殺당함. 뒤에 伸冤됨. 시호는 文貞.
- 463) 사회, 정치적으로 부패한 모든 제도를 개혁함.
- 464) 중국 북송 말기 11세기 초에 陝西省 藍田縣의 呂氏일문 가운데 道學으로 이름높던 大忠, 大防, 大鈞, 大臨 네 형제가 향리를 교화선도하기 위하여 만든 향촌 자치의 규칙.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등 4조목을 주된 내용으로 함.
- 465) 翻譯에서 漏譯된 部分 : 或死 餘禍蔓延 至今士林之間.
- 466) 학문과 덕행.
- 467) 조선왕조 중종 14년(1519)에 일어난 士禍. 洪景舟, 南袞 등 守舊派가 이상 정치를 주장하던 趙光祖, 金淨 등 新進派를 賜死 또는 유배시킨 사건.

일 탓입니다.” 하셨다.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번에 弘文館에서 南袞<sup>468</sup>의 벼슬을 죄상에 따라 삭탈하여야 한다 하니 이것은 또한 어떻게 된 일인가?” 선생께서 아뢰기를 “己卯土禍는 바로 南袞과 沈貞<sup>469</sup>의 간사함에 말미암아 끝내 中廟의 누가된 것이니 가히 죄가 하늘에 통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상의 뜻은 先廟 때의 대신을 죄상에 따라 관직을 삭탈하기가 미안한 일이 아닌가 하시는 것이니 심히 忠厚한 뜻이나 모든 의논된 바는 어진 일을 나타내고 나쁜 일을 치는 일이니 光祖를 追贈하시고 죄상에 따라 南袞을 죄 주시면 是非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주상께서 명하여 대신에게 收議<sup>470</sup>하게 하시고 弘文館과 兩司<sup>471</sup>와 政院으로 하여금 각각 南袞의 죄상을 진술하라 하시고 드디어 南袞의 관직을 삭탈하셨다. 10월 초하루에 慕義殿에 陪祭하셨다.<명종의 魂殿><sup>472</sup>

선생께서 아뢰기를 근래에 日食이 있었고 또 겨울인데 천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先王께서는 災變을 만나면 두려워 몸을 기울여 德을 닦았으니 가히 文具<sup>473</sup>만을 행하여서는 상천을 감동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詩經』에 하늘을 공경하는 도리를 말하였는데 ‘공경하고 공경하라. 하늘이 나타나신다. 높고 높은 위에 계신다고 말하지 말라. 그 일을 오르내리며 날마다 보시는 것이 이에 계신다.’ 하니 대개 하늘은 곧 이치이며 하늘의 이치는 흘러서 행하며 그렇지 않을 때가 없으니 사람의 욕심이 조금이라도 그 사이에 생기면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

468) 조선왕조 中宗 때의 문신. 자는 士華, 호는 止亭. 宜寧 사람. 成宗 25년(1494) 문과에 급제, 기묘사화 때에 예조판서로 있으면서 趙光祖 이하 여러 선비를 포함하여 죽임.

469) 沈貞(1471~1531). 조선왕조 中宗 때의 相臣, 자는 貞之. 豊山 사람으로 연산군 때 靖國공신으로 華川府院君의 봉군을 받았음. 知襄으로 기묘사화를 조성하였고 중종 때는 좌의정에 오름, 중종 26년(1531) 辛卯에 刑死되어 이항, 김극복과 함께 辛卯三奸으로 불리었음.

470) 각 대신에게 의견을 물어서 서면으로 각자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471) 司憲府와 司諫院의 명칭.

472)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 : 己卯入侍畫講 戊子入侍夕講

473) 실속없이 거죽만 잘 꾸밈.

다. 『中庸』에 또한 말하기를 ‘神의 생각을 가히 헤아리지도 못하는데 하물며 가히 생각하여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하였고 孟子<sup>474</sup>께서 이르시기를 ‘그 마음을 잡아 性을 기르면 그것이 곧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하니 하늘을 섬기는 도리는 다만 마음과 性<sup>475</sup>을 잡아 기르는 데에 있을 따름입니다. 宋나라 때에 張橫渠<sup>476</sup>께서 지으신 『西銘』에 이 이치를 말한 것이 심히 분명한데, 아버이를 섬기는 도리로써 하늘을 섬기는 도를 밝히셨으니 그 속으로 미루어가면 성인의 지위에서의 일이고 아래에서부터 인사를 배우는 공부도 겸하여 다하지 않을 것이 없으나 이를 안 후에야 하늘을 공경하는 도리를 밖에서 假借하여 꾸미기를 기다리지 않고 진실한 공부를 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하여 청하시기를 “『小學』 강의를 마친 후에 『西銘』을 강의하겠습니다.” 하시니 “그렇게 하라.” 하셨다. 또 아뢰기를 董仲舒<sup>477</sup>가 한 말이 있으며 ‘人君께서 마음을 바르게 하여 그로써 조정과 百官과 만민을 바르게 하여 그로써 사망에 이르면 멀며 가까운 데에 바르게 하기를 한결같이 하지 않는 것이 없어 邪慝한 기운이 그 사이에 干犯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로써 음과 양이 조화되고 바람과 비가 제 때에 불고 내리며 가히 모든 복된 물건과 日月祥瑞가 다 이르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였으니 위로는 人君의 마음에서부터 아래로는 조정의 百官과 만민에 이르기까지 바르지 않는 것이 없으면 어찌 邪慝한 기운이 干犯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人君께서는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으며 그 가

474) 孟子(B·C 372~289). 중국 전국시대의 哲人. 이름은 軻, 자는 子輿 또는 子車, 공자의 仁사상을 발전시켜서 仁義禮智의 네 가지 덕이 인간의 본성이라 하여 性善說을 주장하였음. 齊, 梁 등의 제후에게 王道를 설파하고 仁義의 정치를 권함.

475)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소질로 본바탕이다.

476) 張載(1020~1077). 중국 송대의 철학자. 禮를 숭상하고 易으로 宗을 삼고 중용으로 體를 삼았으며 우주의 본체를 太虛라고 하였음.

477) 董仲舒(B·C 179~104). 중국 前漢의 유학자로 호는 桂巖子. 春秋公羊學을 수학하여 하늘과 인간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였음. 武帝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교를 국교로 제정하였다.

운데서도 많은 공부와 節目이 있으니 만일 다만 한 두 가지 끝에 있는 일만 고쳐서 災變을 없애고자 한 즉 가히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셨다. 庚子, 25일에 夕講에 入侍하여 董生行을 강의하시고<董生行<sup>478)</sup>은 『小學』에 있는 글이니 董生の 집에 새끼를 낳은 개가 나간 뒤 새끼가 울거늘 닭이 벌레를 몰아서 먹이는 일이 있는지라. 글 짓는 사람이 그 董生이 어질므로 그런 祥瑞가 있다 하였다><sup>479)</sup>아뢰기를 “和한 기운이 상서로움에 이르렀기 때문에 감동하는 바가 있으면 왕왕 상서로움에 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한 것이 德에 있고 상서로움에는 있지 않으니 진실로 德이 없으면 상서로움이 무엇이 귀하겠습니까?” 하셨다.

11월 戊申, 4일에 夕講에 入侍하셨다. 이날 『小學』을 강의하시고 아뢰기를 “『小學』과 『大學』은 聖學의 始終이니 마땅히 예전에 배운 것을 익히고 새 일을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비록 『小學』을 다 강의하였으나 또한 항상 유념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학문을 하는 공부는 능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이 근심이 아니라 능히 물러나서 견지 못함이 근심이다.’ 하였으니 물러나서 견는다는 것은 물러서서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배운 것을 늘 생각하여 잊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것을 익히는 공부가 깊고 지극하면 새 것을 아는 공부 또한 이에서 벗어나지 아니합니다.”

癸丑, 9일에 弘文館에 들어가서 『西銘』을 교정하셨다. 그 때에 장차 『西銘』을 강의하려 하는 데에 대신이 나아가 청하여 “선생으로 하여금 나아가서 읽으시게 하여주십시오.” 하거늘 선생께서는 “衰病하고 氣乏<sup>480)</sup>하여 말소리가 低微하여 죽히 주상께서 들으시도록 가르쳐 깨우치게 하지 못한다.” 하시며 사양하셨는데 대신이 다시 청하여 관원이 모두 같이 “교정한 후에 進講하여 주십시오.” 하므로 명을 받들었고 또 『西銘考證』을 만들어 그로써 참고로 삼게 하셨다.

庚申, 16일에 병으로 말미암아 사직하셨는데 명하여 말미를 주시고

478) 당나라 韓愈가 지은 시.

479) 李世澤 補註.

480) 기력이 없어짐.

의원을 보내어 문병하게 하시고 음식물을 주시고 己巳, 25일에 또 內醫를 보내어 병세를 물으셨다. 12월에 재삼 辭狀을 올리셨으나 허락하지 않으셨다. 庚寅 16일에 聖學十圖<sup>481</sup>와 筭子를 올리시니 첫째는 太極圖요 둘째는 西銘圖요 셋째는 小學圖요 넷째는 大學圖요 다섯째는 白鹿洞規圖요 여섯째는 心統性情圖요 일곱째는 仁說圖요 여덟째는 心學圖요 아홉째는 敬齋箴圖요 열째는 夙興夜寐箴圖이었다. 주상께서 “학문을 하는 데에 심히 切當하다.” 하시며 병풍을 만들어서 들이라고 명하셨다. 戊戌, 24일에 나아가 은혜에 감사하시고 사직하셨는데 허락하지 않으셨다.

□ 1569년<선생 69세> 정월 庚戌, 6일에 吏曹判書<sup>482</sup>를 제수하셨는데 나아가지 아니하시고 병으로 세 번 사양하시니 허락하여 같으시고 다시 判中樞府事를 제수하셨다. 甲子, 20일에 대궐에 나아가 은혜에 감사하시고 인하여 田里<sup>483</sup>에 돌아가기를 빌었으나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날에 文昭殿의 의논이 일어났다.

처음에 世宗<sup>484</sup>께서 漢나라 때의 原宗의 제도를 依倣<sup>485</sup>하여 文昭殿을 세워 四親<sup>486</sup>과 <四親은 高祖의 신주이다><sup>487</sup> 太祖<sup>488</sup>의 신주를 모셔와 한 집에 室을 다르게 하여 서쪽으로써 위를 삼고 四時<sup>489</sup>에 제사가 있으면 앞 전각에서 합하여 제사를 지냈는데 太祖가 가운데에

481) 성학의 대강을 풀이하여 밝히고 心法의 가장 중요한 점을 명시하기 위하여 여러 유학자들의 圖說을 인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만든 책. 1권.

482) 吏曹의 으뜸벼슬. 정이품 벼슬.

483) 시골. 고향.

484) 조선왕조 제4대 왕(1397~1450, 재위 :1419~1450).諱는 禔, 자는 元正.

485) 모방함.

486) 고조, 증조, 조부, 부친,의 4대를 말하는 것.

487) 李世澤 補註.

488) 조선왕조 제1대 왕(1335~1408, 재위1392~1398). 성은 李, 初命은 成桂, 즉위하여 ㅄ,이라 고침.

489) 한해의 네 절 春, 夏, 秋, 冬. 한달 중의 네 때 晦, 朔, 弦, 望. 하루의 네 때 ㅄ, 晝, 暮, 夜.

계서 남으로 향하시고 高祖·曾祖·祖·父 네 분은 동서로 벌려 앉게 하여 昭穆<sup>490</sup>의 제도같이 하였다. 成宗<sup>491</sup>께서 德宗<sup>492</sup>을 追崇<sup>493</sup>하셨으나 叡宗을 文昭殿에 들여 모셨기 때문에 德宗을 別殿에 모시고 이름을 延恩殿이라 하였다. 仁廟께서 승하하시고 明廟께서 왕위에 오르심에 이르러 여론이 있으되 仁宗을 들여 모시면 世祖께서 마땅히 祧遷<sup>494</sup>하실 것이로되 明廟께서는 친히 다하지 아니하시고 祧遷하지 않으시면 다섯 간이 되니 世宗의 뜻이 아니라고 하여 이에 仁宗을 延恩殿에 모시니 이는 그 때에 李芑<sup>495</sup>와 尹元衡<sup>496</sup> 등이 나라 일을 맡아서 그 의견을 주장한 것으로 이에 사람들이 다 痛憤하므로 지금에 이르러 대신 李浚慶이 의견을 올리되 “仁廟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그 때의 모든 신하들이 예의를 돌보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함에 잘못하여 文昭殿에 피시지 아니하고 別廟에 모시니 物議<sup>497</sup>가 憤鬱<sup>498</sup>하여 이 일이 족히 천지간의 和한 기운을 느껴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490) 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 天子는 1세를 가운데 모시고 2세, 4세, 6세는 昭라 하여 왼편에 3세, 5세, 7세는 穆이라 하여 오른편에 모시어 三昭, 三穆의 七廟가 되고 諸候는 二昭, 二穆의 五廟가 되고 大夫는 一昭, 一穆의 三廟가 됨. 우리나라는 太祖는 중앙에서 남향하고 그 다음부터 왼편에서부터 오른편으로 순서대로 모신다.

491) 조선왕조 9대왕(1454~94, 재위 : 1469~94).

492) 德宗(1438~57). 조선왕조 世祖의 세자. 자는 原明. 성종의 아버지. 세자로 책봉되었으나 즉위 전에 요절하였음. 성종과 月山大君 두 아들을 낳았음.

493)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이에게 帝王의 칭호를 올림.

494) 宗廟의 本殿 안의 위패를 그 안의 永寧殿으로 옮겨 모시는 일.

495) 李芑(1476~1552). 조선왕조 明宗 때의 相臣. 자는 文仲, 호는 敬齋. 德水 사람으로 재주가 있었으나 명종 원년(1546)에 영의정이 되자 윤원형과 결탁하여 乙巳社禍를 일으켜 선비들에게 화를 입힘.

496) 尹元衡(?~1565) 조선왕조 明宗 때의 권신. 자는 彦平. 坡平 사람으로 小尹의 거두이며 文定王后의 동생이다. 명종 원년(1546)에 문정왕후가 垂簾聽政할 때, 大尹을 숙청하기 위해 鄭順朋, 李芑 등과 음모를 꾸며 을사사화를 일으켜 尹任 등을 죽이고 많은 인사를 몰아냈음. 뒤에 문정왕후가 죽자 실각하여 관직을 삭탈당하고 첩 蘭貞과 함께 자살함.

497) 논의. 분쟁.

498) 분하여서 가슴이 답답함.

의논을 하되 明廟를 사당에 들여 모실 때에 틀림없이 文昭殿에 들여 모실 것이니 이 일은 의리에 심히 밝다 하되 다만 仁廟와 明廟는 더불어 마땅히 같은 代이시어 자리 수가 조금 늘어나므로 文昭殿 옛 집의 그 간수를 조금 늘려야 가히 奉安<sup>499</sup>하실 것이니 臣 등이 禮官과 더불어 청하옵건대 먼저 집의 形止<sup>500</sup>를 奉審<sup>501</sup>하여 미리 닦아 지어야합니다.” 하므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 때에 河東郡夫人<sup>502</sup>의 喪事를 맞아 返魂<sup>503</sup>하게 되었을 때 사샷집<sup>504</sup>에 家廟를 세우고자 하여 2品 이상에게 명하여 의논하라 하시거늘 선생께서 의견을 말씀드리기를 “追崇하는 모든 일은 마땅히 國喪 3년 뒤에 한결같이 宋나라 때의 僕왕과 秀<sup>505</sup> 왕의 옛 일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오직 家廟만은 지금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하셨다. <河東郡夫人은 宣祖大王을 낳으신 부인이시다><sup>506</sup>

2월 초하루에 慕義殿에 陪祭하시고 己卯, 5일에 春秋館의 史館에 들어가서 여러 재상들과 더불어 『世宗實錄』<sup>507</sup>을 펴내어 文昭殿의 儀軌<sup>508</sup>를 상고하시고 政院에 나아가 家廟 그림과 筭子를 올리셨다.<sup>509</sup>

499) 神主나 畫像을 모심.

500) 사실의 顛末. 형편.

501) 왕명을 받들어 陵이나 廟를 보살피는 일.

502) 宣朝의 생가 어머니.

503) 장사를 지낸 뒤에 神主를 집으로 모셔 오는 일.

504) 선조의 생가.

505) 효종의 생부가 秀王이었다. 그들은 아들이 황제가 됨으로써 황족으로는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되었다.

506) 李世澤 補註.

507) 조선왕조 제4대 왕, 세종의 재위 32년간의 실록, 단종 2년(1454)에 鄭麟趾 등이 편찬. 163권, 154책.

508) 본보기. 모범.

509)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 : 劄曰竊以, 文昭殿, 卽漢之原廟, 其爲制則 後寢五間, 以奉高曾祖考與, 太祖五位之神, 前殿三間, 大祭則合享于此, 太祖居北南向, 昭二位, 在東西向, 穆二位在西東向, 此當初所定之制也, 而其間有兄弟繼立則同昭穆共一位之法, 見於五禮儀宗廟圖說, 然不可以同一室并一坐, 故當依賀循七室加一之議, 與宋史同位異坐之文, 如 仁宗與 明宗同昭穆也, 仁宗祔不時, 世祖於明宗, 亦爲 高祖不祧, 故室與位數, 自至於加一爲六矣, 如是則當於本寢本殿內,



“殿안의 太祖께서는 東向하시고 좌우로 昭穆께서 남북으로 향하여 앉으시면 집을 고쳐야 할 일도 없고 땅이 좁아 거행하기 어려운 근심이 옛 예에 합당하여 奉先<sup>510)</sup>하는 道에 진실로 편리하고 합당할 것입니다.” 하셨으므로 주상께서 즉시 引見<sup>511)</sup>하시어 자세히 물으시거늘 선생께서 펴서 대답하시기를 筓子の 뜻과 같이 하시므로 명하여 대신과 禮官에게 의논하라고 하셨다. 선생께서 물러나와 또 옛 사당의 그림을 올리시니 대신과 禮官이 모두 의논하기를 “殿 안의 제사하는 의례와 옛 예를 따르지 아니하시니 世宗께서 효도 생각이 무궁하셔서 살아계실 때 朝夕으로 섬기는 공경을 펴시어 신주가 앉아계시는 자리의 向背規式을 이미 정하시어 그후 140년 동안 실행하던 제도를 하루 아침에 고치는 것은 일 자체가 거북한 것입니다.” 하므로 선생의 의견을 실행하지 못하였다.<sup>512)</sup>

議處變禮之宜，可爾，安得曲生異議，別入他廟平，人神鬱抑二十有餘歲，況彼時明廟聖旨，有曰 仁宗後日 自當祔入，見於承政院日記，可見 明宗遺意，本如此，幸今 聖上繼述，已俞同祔之請，可以正典禮之失，慰神人之望矣，然其同祔之際，節目之詳，必須熟講而審處之，且以後寢室數，言之，世祖於今，親盡當祧，而虛其室，睿宗進居于此，其下以次而陞，仁宗來神第五室，又有 明宗一位，如前成六，而無室可入，故今擬就其東偏，依 宗廟增室故事，新位一間，以奉安 明宗神位，正合古人不以室數，限主數之義，此卽後寢六間圖所明之說也，至於前殿三間，專爲合享諸位而設，其制南北短而隘，東西長而闊，從前設位，自北而南，恰設五位外，更無餘地，今加一位，實爲難處，倘若以此爲患，欲更制大作，以殿其地，則拆改殿室，事甚非輕，鉅材難得，功役不易，不廟前恐未及成也，臣伏聞古之屋祀享，皆太祖東向，以南北，分左右昭穆之列，自西而東，此萬世所當法也，今茲南向之位，隘碍難行如此，不如因時處宜，以古祫之制，通今祫之礙，舉而行之無一不可，臣既爲殿圖於前，以見南向難行之故，繼以朱子周祫九圖，宋祫一圖，以明祫必東向之意，終復爲殿圖，以表東向得禮之懿，伏願 殿下按圖據禮，揆以義理，只就殿內轉北從西，太祖，西壁東向，睿宗 中宗，在南北向，成宗 仁宗 明宗，在南北向，世祖，今雖祧出，仍虛其位，而 成宗，依舊與 中宗相對，不敢進居 世祖之虛位，此朱子祫圖，武王不敢對文王之說也，如是則可免拆改殿屋之撓，而又無地隘難行之患，其於奉先之道，允爲便當，割入，

510) 先朝의 덕업을 이어받아 지킴.

511) 옷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서 봄.

512)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先生又 啓曰臣非不知原廟爲俗禮 然俗禮之中有一段難

乙未, 21일에 朝講에 入侍하셨고 己亥, 25일에 宣仁門 밖에 나아가 筭子를 올려 물러가기를 빌었으나 허락하지 않으셨고 壬寅, 28일에 또 筭子를 올리셨으나 또 허락하지 않으셨다.

議政府右贊成을 제수하셨는데 肅拜하지 않으시고 靑門 밖에 가서 힘써 사양하시니 가라고 허락하셨다.

3월 丙午, 2일에 또 대궐에 나아가 兼帶한 직책을 다 갈고 致仕하여 “시골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셨으나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때에 이르러 선생께서 가실 뜻을 이미 결정하셨기에 연일 계속해서 대궐에 나아가 힘써 사양하셨는데, 그 때에 장차 주상께서 慕義殿에 친히 제사지 내니 政院에서는 선생께서 드디어 가실까 두려워하여 아뢰어 “제사를 지낸 후에 引見하시고 보내십시오” 하고 청하므로 주상께서 注書<sup>513)</sup> 俞大修에게 명하여 뜻을 알리셨다.

判中樞府事를 제수하심에 戊申, 4일에 詣闕<sup>514)</sup>하여 은혜에 감사드리고 夜對廳<sup>515)</sup>에 들어가서 대하시며 물러가기를 간절히 비시니 주상께서 허락하셨다.

주상께서 선생을 引見하시어 힘써 머무르시기를 두세 번 권하셨으나 선생께서 물러가기를 더욱 간절히 비시므로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卿이 이제 돌아간다면 하고자 하는 말이 있지 않겠는가?” 하시니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스려지는 세상을 근심하고 밝은 임금을 위태롭게 여긴다.’ 하였으니 대개 明主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자질이 있고 治世에는 가히 근심된 것을 막을 것이 없으니 絶人<sup>516)</sup>한 자질이 있으면 혼자서 지혜로써 세상을 다스리며 신하를 업신 여기고 근심을 미리 막지 않으면 교만하고 사치한 마음이 생기니 이것

---

行處 變通以從古禮之懿 以祖宗聰明正直與天合德之靈 豈不諭以其義爲 非禮而 不安其享乎 不允.

513) 承政院의 정7품 벼슬.

514) 대궐에 들어감. 입궐.

515) 왕이 밤중에 신하를 불러 경연을 베풀어 經史의古今 治亂에 관하여 對講하던 곳.

516) 남보다 아주 뛰어난.

은 가히 두려워할 만한 일입니다. 지금 시절이 비록 治平한 듯하나 남쪽과 북쪽에는 틈이 있고 백성은 困乏하고 마을과 창고는 비어 장차 나라의 몰골이 되지 못하게 되어서 만일 갑자기 事變이 생기면 土崩瓦解<sup>517)</sup>할 조짐이 있으니 근심이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그 후 24년 만에 壬辰倭亂(1592)을 당하였다><sup>518)</sup> 성상의 자질이 高明하시어 여러 신하들의 재주가 성상의 뜻에 차지 못하기 때문에 논의하고 處事하는 가운데 혼자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는 점이 없지 않으시니 識者가 미리 근심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신이 전번에 올린 바 乾卦에 ‘날으는 용이 하늘에 있고 亢龍은 뉘우침이 있다.’ 하는 말이 있는데 ‘날으는 용이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은 人君의 극히 높은 자리인데 그 위에 또 자리가 있으면 너무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스스로 高亢하고자 하여 즐겨 신하와 더불어 마음을 한 가지로 하지 않으며 德을 한 가지로 하지 않으면 어진 사람이 아래에 있어 도울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亢龍이 有悔니라.’ 하는 것입니다. 용이 物 이룸은 구름으로써 그 변화를 신묘하게 하여 恩澤이 만물에 입히게 되는 것이니 人君이 아랫사람과 더불어 마음을 한 가지로 하지 않으며 德을 한 가지로 하지 않으면 용이 구름을 만나지 못한 것과 같을 것이니 비록 그 변화를 신묘하게 하여 恩澤을 만물에게 입히고자 한들 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임금의 덕에 있어 큰 변입니다. 무릇 태평이 지극하면 반드시 亂이 생길 조짐이 있을 것인데 지금이 태평하다고 하여 일에 혹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이는 배를 잡아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손을 놓을 때에 흐르는 물을 따라 아래로 따라 내려가 풍파를 만나면 뒤집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학문하는 공을 그만두지 않고서야 사사로운 뜻을 가히 이겨서 이러한 변통이 저절로 사라져 풀어질 것입니다. 성인의 일천 말과 일만 말은 存心하는 법이 아닌 것이 없으나 역시 요점을 아는 것이 귀합니다. 臣이 전에 드린 聖學十圖는 臣의 사사로운

517) 흙이 무너지고 기와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사물이 여지없이 손떨 수 없게 됨.

518) 李世澤 補註.

소견이 아니고 모두 옛 어진 사람들의 소견이며 臣은 다만 그 사이에서 한 두 가지 道를 보충했을 따름입니다. 그 공부는 전에 드린 筍子에서도 생각 思자와 배울 學자로써 주를 삼은 것으로 이것으로써 생각을 이루신 즉 얻으신 바가 더욱 깊어 사업에 발휘하실 것이니 가히 소신의 충성하려는 생각에서 가르침을 드리는 정성을 아실 것입니다.”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心統性情圖는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 그림과 맨 아래 그림은 卿이 그린 것인가?” 하시니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程復心の 四書章圖에 이 그림이 있는데 위의 한 그림은 바로 程復心の 그림이고 그 나머지 理와 氣를 나눈 것에 말이 많이 온당하지 않으므로 버리고 孟子와 程子和 朱子가 의논한 本然之性和 氣質之性으로 나누어서 중간과 아래 그림을 그렸는데 本然之性은 理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이며 氣質之性은 理와 氣를 겸하여 말한 것이고 情에 대해 말한 것으로 理를 좇아 말한 것은 四端이며 理氣를 합하여 말한 것은 七情입니다. 그러므로 가운데 그림은 本然之性으로 四端을 주로 하여 만들었고 아래 그림은 氣質之性으로 七情을 주로 하여 만든 것이니 이것은 비록 臣이 만든 것이나 모두 성현의 말씀을 끌어와서 만든 것으로 臣이 망령되어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셨다.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성정을 거느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인가?” 하시니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西銘』에 이르시기를 ‘천지의 막힌 것을 내 몸으로 삼았고 천지에 주한 것을 내 性으로 삼았다.’ 하니 기운은 형체가 되고 理 가운데 갖추어져 있는 것이니 理와 氣가 합한 것이 마음이 되어 한 몸의 主宰<sup>519)</sup>가 되니 性情을 거느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主는 性을 말한 것이고 宰는 情을 말한 것이다><sup>520)</sup> 대체로 이 性을 담는 것은 마음이고 내어 쓰는 것 또한 마음이니 이것은 마음이 性과 情을 거느린 까닭입니다.” 하셨다. 주상께서 또 물으시기를 “그림 안에 虛靈<sup>521)</sup> 이 두 자가 위에 있고 知覺 이 두 자가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시니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519) 사람들 위에 서서 일체를 통할하는 사람.

520) 李世澤 補註.

521) 마음의 잡념이 없고 영묘함.

“虛靈은 마음의 본체이고 知覺은 사물을 응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하셨다.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할말이 없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 祖宗은 은혜가 깊으시며 혜택이 두터워서 공과 德이 높으시지만 다만 士林之禍가 중엽에 일어나니 廢朝<sup>522</sup>때의 戊午土禍<sup>523</sup>와 甲子土禍<sup>524</sup>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中廟朝의 己卯土禍 때에는 현인과 군자가 다 대죄를 입어 이로부터 邪와 正이 서로 섞이어 간사한 사람이 뜻을 얻어 사사로운 원한을 갚을 때는 반드시 말하기를 ‘己卯 때의 남은 짝이다.’ 하여 사람의 화가 연속해 일어났으니 예로부터 이같은 때는 있지 않았습니니다. 明廟가 나이 幼沖<sup>525</sup>하시고 권세있는 간신이 뜻을 얻어 한 사람이 패하면 또 한 사람이 나서 서로 잇달아 일을 일으키니 사회를 차마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臣이 이미 지나간 일을 아뢰는 것은 장래에 큰 경계로 삼으시게 하고자 함입니다. 예로부터 人君이 처음에는 정사가 淸明하므로 바른 사람을 등용하여 쓰나 임금이 허물이 있으면 간하며 잘못이 있으면 다투므로 人君이 반드시 厭苦<sup>526</sup>하는 뜻이 새기게 됩니다. 이에 간사한 사람들이 틈을 타 逢迎하여<人君의 뜻을 맞이하는 것이다><sup>527</sup> 人主의 마음을 사로잡으니 만일 이 사람을 쓰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522) 廢位된 군주의 시대. 즉 燕山君 때.

523) 조선왕조 燕山君 4년(1498) 柳子光을 중심으로 한 훈구파가 金宗直 중심의 士林派에 대해 일으킨 사회. 훈구파가 『成宗實錄』에 실린 史草 『弔義帝文』으로 사림파를 모함하여 김종직을 剖棺斬屍하고 金駟孫 등 많은 선비들을 죽이고 귀향보냈음.

524) 조선왕조 연산군 10년(1504) 갑자년에 폐위된 연산군의 어머니 尹氏의 복위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회. 생모 윤씨가 폐위되어 賜死된 사실을 알고 격노한 연산군이 成宗의 후궁들과 왕자를 죽이고 윤씨의 복위에 반대한 權達守 등을 죽이는 한편, 윤씨 폐위에 찬성했던 尹弼商, 李克均, 金宏弼 등 십여명의 제신들을 유배, 사사하였으며 이미 죽은 韓明滄, 鄭昌孫, 鄭汝昌, 南孝溫 등은 剖棺斬屍하였음.

525) 나이가 어림.

526) 싫어하고 괴롭게 여기는.

527) 李世澤 補註.

않을 것이 없을 것이라 하여 이로부터 소인과 더불어 뜻을 합하여 正人 이 손 닿을 데가 없게 된 후에야 간신이 뜻을 얻어 벼를 부르면 무리를 모아서 인하여 하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지금 새로 정사하시는 처음에 무릇 간하며 논하는 바를 다 뜻을 굽혀 좇으시니 큰 허물이 없으시나 오래됨에 주상께서 혹 마음을 바꾸시면 어찌 능히 오늘 같으실 것을 능히 보증하겠습니까? 이 같으면 邪와 正이 장차 서로 나누어져 간사한 사람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니 처음의 정사에서 크게 상할 것입니다. 唐나라 玄宗<sup>528</sup>의 開院 때에 姚崇<sup>529</sup>과 宋璟<sup>530</sup> 등의 어진 신하가 조정에 가득하여 그로써 태평세월을 이루었으나 玄宗이 욕심이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군자는 다 물러가고 소인만 머물러서 天寶의 난<sup>531</sup>을 일으키니 한 나라의 임금의 몸으로 그 일에 두 사람이 갈게 된 것은 처음에는 군자와 합하였고 나중에는 소인과 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상께서는 이 일로써 큰 경계를 삼으셔서 어진 무리를 보호하여 소인으로 하여금 構陷<sup>532</sup>하지 말게 하시면 이것은 宗社와 신민의 복이니 臣이 경계하고 아뢰고자 하는 것에 이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하셨다.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러준 말을 마땅히 경계로 삼을 것이다.” 하시고 또 물으시기를 “卿이 조정의 신하 가운데서 가히 천거할 만한 이가 없는가?” 하시니 대답하여 말씀하기를 “오늘날 대신의 자리에 있는 자는 다 맑고 삼가하며 六卿에는 邪慝한 사람이 없으며 首相에 이르러는 危疑한 때를 당하여도 聲色<sup>533</sup>이 변하지 않음에 진실로 柱石

528) 玄宗(685~762, 재위 712~756). 중국 당나라의 제6대 황제. \*는\*基. 초년에 정사를 바로 잡아 盛唐時代를 이루었으나 만년에 楊貴妃에 빠져서 정치를 돌보지 아니하다가 安祿山의 난을 만났음.

529) 姚崇(650~721). 중국 당대의 명재상. 자는 元之. 3차에 걸쳐 재상이 되었으며 그때마다 兵部尙書를 겸하여 북방수비를 튼튼히 하고 또 율령체제의 완전 실시를 기하여 『開元의 治』라고 일컫는 당의 황금시대를 이루는데 공헌함.

530) 宋璟(663~737). 중국 당나라의 재상. 현종의 開元 연간에 姚崇의 추천으로 재상이 됨. 절개가 곧고 법도를 잘 지켰으며 성격이 강직하여 論功賞罰의 사사로움이 없었음.

531) 안록산의 난.

532) 터무니없는 말로 남을 죄에 빠지게 함.

은 신하이니 마땅히 비교해서 중요하게 여길 사람은 뜻하옵건대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首相은 영의정 李浚慶이고 聲色은 소리와 얼굴빛이다><sup>534)</sup> 주상께서 또 학문하는 사람을 물으심에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程子께 묻는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제자 중에 누가 얻음이 있습니까?’ 하거늘 程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얻은 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시니 그 때에 游酢와 楊時<sup>535)</sup>와 謝良佐와 張繹과 李籲와 尹焞 등 여러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나 程子께서 감히 가벼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臣이 어찌 감히 위로 天日을 속여 어느 사람이 얻은 바가 있다 하겠습니까? 奇大升같은 이는 글을 많이 읽었고 또한 理學<sup>536)</sup>의 소견이 빼어나 통한 선비이나 다만 收斂하는 공부가 적습니다.” 아뢰기를 마치시고 드디어 물러나시니 豹皮의 요 한 벌과 胡椒 두 말을 주시고 李道로 하여금 쌀과 콩을 주라고 하시고 또 명하시어 가는 길에 말과 배 끄는 사람을 주어 돌아가는 것을 보호하라고 하셨다.

午正<sup>537)</sup>에 漏水가 내리거늘 拜辭하시고 성으로 나와 東湖夢賚亭에서 자고 己酉, 5일에 배를 타고 동으로 돌아가 奉恩寺에서 주무셨다. 명사들이 조정을 비우고 나와서 전송함에 각각 글을 지어 이별하여 보내니 선생께서도 글을 지으시길

배에 벌여 앉으니 모두 勝流라  
 날저물어 돌아가고자 하나 마음은 머물러 있네.  
 원하건대 한강물을 가져다가 버루에 부어서  
 이별에 임한 한없는 시름을 그려 내고자 하노라.<sup>538)</sup>

533) 말소리와 얼굴빛.

534) 李世澤 補註.

535) 楊時(?~1135). 중국 송대의 학자. 將樂 출생. 자는 中立 또는 龜山. 程\*와 정\*에게 배워 程氏의 正宗이라 불림. 시호는 文靖

536) 性理學

537) 낮 열두시. 正午.

538) 列坐方舟盡勝流 歸心終日爲牽留 願將漢水添行硯 寫出臨分無限愁.

하셨다.

庚戌, 6일에 楊州의 無任浦에서 주무시고 申酉, 17일에 집어 도착하셨다.

4월 글을 올려 물리나서 오는 것을 허락하시고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인하여 벼슬을 갈아 致仕하기를 빌었으나 허락하지 않으셨다. 처음 선생께서 조정에 계실 때에 사방사람들이 풍채를 想望하기를 바랐었는데 물리나감을 들음에 朝野<조정과 들이다><sup>539)</sup>가 缺然히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執義<sup>540)</sup> 權德與가 상소하여 이르기를 “현자의 가며 머무는 것에 인심의 향하며 등짐이 달려 있으며 국가의 存亡이 매여 있습니다. 지난 번에 判府事 李滉이 글을 올려 해골을 빌어 왕명을 기다렸거늘 政院이 아뢰기를 ‘비록 보내지 않을 수 없겠으나 원하옵건대 引見하여 보내소서.’ 하였고 引見하시는 날에 이르러 곧 바로 馬을 주십시오 하고 여쭙거늘 주상께서 未穩<sup>541)</sup>한 뜻을 전교하신 즉 또 곡히 물러가기를 비는 연유를 진술하셨는데 이는 전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政院이 허락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때를 당하여 政院에서 현자의 가며 머무는 것이 인심과 국가의 向拜와 存亡에 매여 있는 까닭을 아뢰고 또 聖學이 바야흐로 급한 때에 가히 이 사람으로 하여금 經筵에서 잠깐이라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진술하여 주상을 인도하여 굳이 잡아 허락하지 않으시고 지성으로 머무를 것을 청하시게 했다면 李滉이 비록 가고자 한들 가히 갈 수 있었겠습니까? 臣이 살펴보니 『詩傳』 小雅의 白駒篇은 어진 사람을 머무르게 하는 것이라. 그 첫장에 이르기를 ‘밝고 밝은 흰 망아지가 우리 마당의 나물 싹을 먹는다 하여 매고 엮어서 오늘 아침을 길게 하여 이른바 이 사람이 이에 머물게 되리라.’ 하였고 그 둘째 장에 말하기를 ‘맑고 맑은 흰 망아지가 우리 마당의 명아주를 먹는다 하여 매고 엮어서 오늘 저녁에 길게 하여 이른바 이 사람이 이에 머물게 되리라.’ 하였고 셋째 장에는 말하기를 ‘皎皎한 白駒가 賁然<sup>542)</sup>히

539) 李世澤 補註.

540) 司憲府의 종삼품 벼슬.

541) 평온하지 못함.



오면 너를 공작이라 하며 너를 후작이라 하여 편안하고 즐겁기를 기약이 없게 하리라.” 하였으니 너의 優遊<sup>543</sup>함을 삼가며 너의 가려하는 생각을 힘쓰며 사랑하기를 간절히 하여 좋은 벼슬로 즉시 엮매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며 머물기를 지극히 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할 줄을 생각하지 않음이니 이 일로써 보건대 옛 사람들이 현자가 가는 데에 머물게 하고자 함을 일만 가지로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함을 또한 한가하게 생각하지 못함이 이와 같거늘 지금은 망아지를 매자는 사람이 있으나 듣지 못하고 도리어 馬을 주지는 칭이 있는 것은 어찌된 것입니까? 李滉이 어진 신하인 것으로 의논하지 말고 학문하는 일로써 말하건대 지금 세상에서 누구와 비교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의 정력이 다 학문에 있어 진실로 알고 실천하여 공부가 이미 이루어졌고 恬淡<sup>544</sup>하고 안정하며 스스로 지켜 밖을 생각하지 않으니 진실로 선비의 높은 태도이며 斯文의 宗匠<sup>545</sup>입니다. 그 여섯 가지 조목을 진술한 것과 열 가지 그림을 드린 것과 자못 일을 쫓아가며 손수 筍子를 올리며 글을 의논하며 입으로 대답하여 아된 것을 보니 식견이 높으며 깊고 의논이 精하고 순수하고 綽綽<sup>546</sup>이 그 연원이 있고 결단코 俗學이 미칠 바가 아닙니다. 간절하고 위대한 정성은 오직 학문을 열어내어 인도하는 것에 있으니 이 進講하기가 바야흐로 급한 때를 당하여 經幄<sup>547</sup>의 옛 신하를 구하고자 할 것인데 이 사람을 버리고 그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이 같은 사람이 비록 前代에 있어도 오히려 만나지 못함을 한할 것인데 하물며 같은 때에 한 세상에 나서 도리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전 날 칭하여 올라올 때에 전하께서는 일념이 오로지 현자를 좋아하는 것에 있으셨고 조정에서 상하를 다 돌보지 못할까 걱정하셨는데 이제 이

---

542) 빛나는 모양

543) 편안하고 한가롭게 지냄.

544) 욕심을 끊고 편안하고 깨끗하게 있음.

545) 經學에 밝고 글을 잘하는 사람.

546) 모자라지 아니하고 넉넉한 모양.

547) 經筵.

미 돌아간 뒤에도 전하의 일념이 여전히 전과 같으심을 보증할 수 있을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朝野의 장차 흠어져 歸宿할 바가 없을까 臣은 두렵습니다. 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자가 있지 않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였으니 엎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인심이 향하며 등 돌리는 것을 살피시며 국가가 유지되며 망하는 연고를 경계하셔서 돈독히 생각하여 善을 좋아하시며 惡을 責하여 어진 이를 부르시고 모든 사람의 情을 매어서 그로써 큰 업의 터를 삼으시면 종사에 심히 다행하고 生民에게도 심히 다행할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벼슬 갈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有旨를 내리시기를 “卿이 전부터 물러가기를 간절히 비니 뜻을 빼앗기가 어려울 듯 함에 이 때문에 그대로 허락하여 卿의 뜻을 평안하게 한 것이다. 致仕를 허락하지 않으며 벼슬을 갈지 않음은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니 卿이 마땅히 알고 있으라.” 하셨습니다.

7월에 川谷書院<sup>548</sup>의 두 선생 祝文을 지으셨다.

9월에 盧伊齋<sup>549</sup>가 喪禮를 의논한 글에 회답하셨다.

□ 1570년<선생 70세> 정월에 致仕를 올려 致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비시고 아울러 글을 올려 벼슬을 갈아주십시오 하셨으나 허락하지 않으셨다.

諭旨에 이르시기를 “卿의 나이 70이나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이에 감히 듣지 않고 그 벼슬을 갈지 않는 것은 卿의 어진 德을 생각하여 여전히 정간을 이룬 것이지 사양하여 물러감을 허락한 것이 아니므로 조정에 돌아올 기약을 날마다 바라니 乘駟하고 올라와 내가 바라는 것을 도우라.” 하셨습니다. 3월에 또 致仕를 올려 致仕하기를 빌었으나 허락하지 않으시고 인하여 乘駟하고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4월에 召命을 사양하

548) 星州에 있으니 金宏弼, 李彦油 두 선생과 송나라의 정자와 주자를 모시었다.

549) 盧守愼(1514~90). 조선왕조 宣祖 때의 相臣. 자는 寡悔, 호는 蘇齋. 광주 사람으로 중종 38년(1543)에 등제하여 선조 6년(1573)에 우의정, 동 18년에(1585)에 영의정이 됨. 己丑獄死 때 鄭汝立을 추천한 죄로 파직됨. 시호는 文懿.

시고 다시 致仕하기를 빌었으나 허락하지 않으셨고 잇달아 사양하셨으니 허락하지 않으셨다.

5월에 여러 선비들과 더불어 易東書院에 모였었다. 陶山에 나가서 서<sup>550)</sup> 여러 선비들과 더불어 心經<sup>551)</sup>을 강론하셨다.<sup>552)</sup> 8월에 易東書院에서 落成式<sup>553)</sup>을 하므로 가셨다. 9월에 전문을 올려 致仕하기를 비시고 글을 올려 벼슬을 사양하셨는데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만 兼帶한 校書館<sup>554)</sup>과 活人署<sup>555)</sup>의 提調<sup>556)</sup>만을 맡으셨다. 다시 陶山에 나가서서 여러 선비들과 더불어 啓蒙과 心經을 강론하셨다. 10월에 奇明彦에게 편지하여 心經情圖를 의논하셨다.

11월에 병으로 피곤하시므로 모든 선비들을 사제하여 보내셨다. 柳應見이 精舍에 있으면서 보내온 세 절귀에 화답하신 것이 있는데 그 중 한 수에 이르시기를

공자같은 성인도 오히려 마음을 가리는 사람을 箴規하셨고  
 曾子께서 이르시기를 글로 모여 서로 도와 仁을 이루는도다.  
 늙어감에 다시 학문을 하는 데에 소홀한 것을 깨달으니  
 속절없이 돌아온 것을 부끄러워하며 또 봄을 기다리노라.<sup>557)</sup>

하셨다.

家廟에서 時祀<sup>558)</sup>를 행하셨다.

그 때에 선생께서는 이미 병환이 있었기 때문에 자제들이 參祭하지

550)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 : 與諸生 講啓蒙 7月至易東書院.

551) 중국 宋나라 眞德秀의 저서. 성현의 마음을 논한 격언을 모으고 여러 학자의 논설로써 주를 배운 것. 大旨는 正心으로써 근본을 삼음. 1권.

552) 翻譯에서 漏落된 部分 : 有齋中夜起看月詩.

553) 공사의 목적물이 완성됨을 축하하는 의식.

554) 조선왕조 때 經書印行, 香祝, 印篆 등을 맡은 관 官衙.

555) 조선왕조 때 서울의 의료에 관한 일을 맡은 관아.

556) 각 司 또는 각 廳의 관제상의 우두머리가 아닌 사람이 그 관아의 일을 다스리게 하던 벼슬로서 종1품 또는 2품의 品秩.

557) 孔聖猶箴擇里人 曾云文會輔成仁 老來更覺疎爲學 慚愧空還又待春.

558) 時亨. 매년 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가묘에 지내는 제사.

마시기를 청하였는데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늙었기 때문에 제사 지낼 날이 많지 않으니 가히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고 櫛<sup>559</sup>을 받들고 제물을 올려 스스로 執事하셨기에 기운이 더욱 不平하였다. 己卯, 16일에 奇明彦의 편지에 화답하시어 致知格物說을 고치셨다.

12월 丙申, 3일에 자제들에게 명하여 다른 사람들의 서적들을 기록해서 돌려 보내라고 하셨다. 경계하여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고 그대에 자제가 奉化縣監이 됨에 명하여 監司께 辭狀을 내라고 하셨으며 집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丁酉, 4일에 형의 아들 寧에게 명하여 遺戒<sup>560</sup>를 쓰게 하시니 “첫째는 禮葬을 사양할 것이고 둘째는 碑를 세우지 말고 작은 돌에게 그 전면에는 쓰기를 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라 하고 그 후면에는 간략하게 향리와 世系<sup>561</sup>와 志行과 出處를 진술하기를 家禮 중에 있는 바와 같이 하라.” 하시고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켜 지으라 하면 서로 아는 奇高峯같은 이는 반드시 실지로 없는 일을 장황하게 써서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으로 일찍이 스스로 뜻하였던 바를 닦아 내고자 하여 먼저 銘文<sup>562</sup>만을 짓고 남은 것은 因順하여 마치지 못하였는데 草한 글을 여기저기 草 중에 섞여 간수하였으니 가려내어 그 銘文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보며 듣는 것이 사방으로 둘러서 있으니 너희의 行喪함이 다른 예가 아니므로 반드시 예를 아는 유식한 사람에게 물어야 거의 지금 세상에도 마땅하고 옛 예법에도 멀지 않을 것이다.” 하였고 그 밖의 것은 집안 일을 처리하신 두어 가지 사항이었다. 낮에 諸生 등을 보셨다. 자제들이 하지 말기를 권하니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죽고 사는 이 때에 가히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시며 명하여 웃웃을 덮게 하시고 諸生들을 불러 더불어 永訣하며 말씀하시기를 “평생에 그릇된 소견으로써 그대들 모두와 더불어 종일토록 강론했던 것은 또한

559) 신주를 모시는 췌.

560) 遺訓. 죽은 사람이 남긴 훈계.

561) 대대의 계통.

562) 마음 속에 새겨 두어야 할 문장이나 문구.

쉽지 않은 일이다.” 하셨다.

戊戌, 5일에 명하여 壽器<sup>563</sup>)를 준비하라고 하였고 庚子, 7일에 문인 李德弘<sup>564</sup>)에게 명하여 서적을 맡게 하셨다. 이미 선생의 병세가 중하므로 문인들이 점을 침에 謙卦에 군자가 마칠 때가 되었다고 하는 爻를 얻었다.

辛丑, 8일 酉時<sup>565</sup>)에 正寢<sup>566</sup>)에서 돌아가셨다. 이날 아침에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盆梅에 물을 주라고 하시고 酉時 초에 명하여 누우신 자리를 바르게 하라고 하시고 부축되어 일어나 앉아서 儼然<sup>567</sup>)히 돌아가셨다.

辛亥, 18일에 訃音이 주상께 올라가니 명하여 頤議政을 追贈하셨다. 이보다 먼저 주상께서 병환 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내의에게 명하시기를 약을 지어서 가지고 역마를 타고 가서 구하라고 하셨는데 내의가 이르기 전에 선생께서는 이미 돌아가셨다. 監司가 狀啓<sup>568</sup>)를 올려 아뢰니 政院에 전교를 내려 말씀하시기를 “李滉이 세상을 떠나니 내 심히 痛悼<sup>569</sup>)하노라. 가히 頤議政을 追贈하고 致賻<sup>570</sup>)하는 모든 일을 빨리 前例를 상고하여 올려라.” 하시니 이에 禮官이 아뢰어 喪葬의 恩奠을 모두 議政禮 쓰기를 청하였다. 각별히 右副承旨<sup>571</sup>) 李齊閔을 보내어 조상하게 하시고 또 右承旨<sup>572</sup>) 兪泓<sup>573</sup>)을 보내어 제사지내게

563) 살았을 때에 미리 만들어 둔 관.

564) 李德弘(1541~96). 조선왕조 선조 때의 학자. 자는 宏仲, 호는 良齋, 永川 사람으로 선조 11년(1578) 조정에서 이름난 선비 9명을 등용할 때 제 4위에 뽑혀 集慶殿參奉이 되고 宗廟署直長, 世子翊衛司副率을 역임함.

565) 오후 다섯시에서 일곱시까지의 시간.

566) 제사나 일을 잡아 하는 몸체의 방.

567) 욕심이 없어 마음이 가라앉아 화평한 모양.

568) 지방 監司의 명령 또는 왕명으로 지방에 파견된 관원이 왕에게 圖面으로 보고하는 啓本.

569) 마음이 몹시 아프고 슬픔.

570) 임금이 賻儀(초상난 집에 扶助로 보내는 돈이나 물건)를 내림.

571) 조선왕조 때 승정원의 정삼품 벼슬. 승정원은 王命의 出納을 맡던 관아.

572) 조선왕조 때 승정원의 정삼품 벼슬.

하시니 다 異數<sup>574</sup>)이다.

乙卯, 22일에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 겸 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를 追贈하였다.

□ 1571년 3월 壬午, 21일에 禮安 擘芝山 남쪽에서 장사지냈다. 子坐午向<sup>575</sup>)한 언덕으로 선생께서 사시던 곳에서 일리<sup>576</sup>) 가량 떨어진 곳이다. 침정공이 遺戒로 두 번이나 글을 올려 힘써 禮葬<sup>577</sup>)을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으셨다. 묘비에 새기는 것은 遺戒대로 써서 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라 하였다. 처음에 선생께서 돌아가시니 원근의 사람들이 匍匐하여 달려와 미처 弔喪하지 못할까 염려하였으며 비록 평소에 일찍이 문하에 와서 수업하지 못한 자라도 또한 모두 거리마다 모여 弔哭하며 嗟歎<sup>578</sup>)하였고 어리석은 백성과 천한 노비라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여러 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이에 이르러 士大夫와 선비로서 모여 장사지낸 자가 삼백 여명이었다.

□ 1572년 萬曆 원년

□ 1573년 11월 초하루에 위패를 받들어 伊山書院에 奉安하고 釋菜<sup>579</sup>)하는 예를 행하였다. 서원은 榮川郡의 동쪽 6,7리에 있는데 戊午년 가을에 郡守 安瑞이 세운 것으로 선생께서 일찍이 記를 지으셨더니 이 때에 郡守 許忠吉이 서원 가운데에 사당을 지어 선생을 제사지내니 이 일이 주상께 아뢰어져서 이듬해에 伊山書院이라 賜額<sup>580</sup>)하였다.

□ 1574년 봄에 서원을 陶山의 남쪽에 세우기로 하였다. 온 마을 선

573) 兪泓(1524~94). 조선왕조 宣祖 때의 相臣. 자는 止叔. 호는 松塘. 杞溪사람으로 宗系辨誣의 공으로 光國功臣이 되었음. 임진왜란 때 세자를 시종하였고 전란이 끝난 다음 선조 25년(1592)에 좌의정이 되었음. 시호는 忠穆.

574) 남다른 대접을 함.

575) 子方을 등지고 午方을 향함. 곧 정남방.

576) 한문본에는 二里로 되어 있다.

577) 예식을 갖추어 치르는 장사.

578) 한숨지어 탄식함.

579) 釋奠祭. 文廟에서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 음력二月과 八月의 上丁日에 거행함.

580) 임금이 詞院 등에 이름을 지어 이를 새긴 扁額을 내림.

비들이 의논하기를 陶山은 선생께서 道를 강론하시던 곳이니 가히 서원이 없을 수 없다하여 서당 뒤에 여러 걸음 나가서 땅을 개척하여 짓기로 하였다.

□ 1575년 여름에 서원을 다 짓거늘 陶山書院이라 賜額하였다.

□ 1576년 2월 丁丑, 13일에 위패를 奉安하고 釋菜할 예를 행하였고 이날에 廬江書院에서도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냈다. 이보다 먼저 안동선비들이 낙동강 상류에 서원을 세웠는데 고을 동쪽 삼십리에 있는 것을 白連寺의 옛터인데 이름하여 廬江書院이라 하고 앞에 누각이 있으니 養浩樓라 하였다.

12월에 諡號<sup>581)</sup>를 주시니 文純이다.<道와 덕이 있고 널리 들은 것을 文이라 하고 중립해서 바르고 精하고 순수한 것을 純이라 한다.>

□ 1596년 윤8월 戊寅, 14일에 誌石<sup>582)</sup>을 묻었다.<선생께서 스스로 명을 지으셨고 高峰 奇大升이 그 뒤에 서를 지었다.><sup>583)</sup>

581) 卿相, 儒賢 등이 죽은 뒤에, 그들의 행적을 칭송하여 임금이 追贈하는 이름.

582) 죽은 사람의 姓名, 生沒 年月日, 行蹟, 무덤의 坐向 등을 기록하여 무덤 앞에 묻는 板石 또는 陶片.

583) 李世澤 補註.